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역사와교육학회 정기 추계 학술대회

# 제5차 교육과정기 역사교육과 국사교과서

일시 : 2020. 11.28. (토) 13:00~17:00

장소 : Cisco Webex 화상회의 프로그램

주최 :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 · 역사와교육학회



- 식 순 -

동국대 역사교과서연구소·역사와교육학회 정기 추계 학술대회  
**제5차 교육과정기 역사교육과 국사교과서**

일 시: 2020년 11월 28일(토) 13:00 ~ 17:00

장 소: Cisco Webex 화상회의 프로그램

사 회 : 손석영(하안중)

시 간	발표자 및 주제		비 고
13:00~13:20	등록 및 개회	<연구소장 개회사 / 학회장 인사말>	
13:20~13:40	제1발표 윤종필(동국대)	제5차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13:40~14:00	제2발표 조성운(동국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 변화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14:00~14:20	제3발표 신선혜(호남대)	제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14:20~14:40	<중 간 휴 식>		
14:40~15:00	제4발표 허은철(충신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고려사 서술	
15:00~15:20	제5발표 신유아(인천대)	5차 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15:20~15:40	제6발표 최보영(단국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체제·내용과 그 특징	
15:40~15:50	<중 간 휴 식>		
15:50~17:00	종합토론 좌장: 한철호(동국대)	박진동(강원대), 임상선(동북아재단), 이형우(인천대), 신항수(교육과정평가원), 김인덕(청암대)	
17:00	<인사 및 폐회>		



## - 목 차 -

제5차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	3
발표자 : 윤종필(동국대학교)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 변화 .....	15
발표자 : 조성운(동국대학교)	
제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	43
발표자 : 신선혜(호남대학교)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고려사 서술 .....	65
발표자 : 허은철(충신대학교)	
5차 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	89
발표자 : 신유아(인천대학교)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근현대사 체제·내용과 그 특징 .....	103
발표자 : 최보영(단국대학교)	



<제1발표>

## 제5차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윤종필(동국대학교)





# 제5차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윤종필(동국대학교)

---

---

## 목 차

---

---

1. 서론
  2. 5차 교육과정기 국사, 세계사 교과목의 편제
  3. 5차 교육과정의 특징
  4. 추후 연구 방향
- 
- 

### 1. 서론

본 발표문 5차 교육과정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차 교육과정 자체의 내용과 그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래 내용을 정리했다. 그리고 발표문 말미에는 5차 교육과정에 대한 본 연구자의 연구 방향을 간략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5차 교육과정은 1987년 3월 1일 문교부 고시 87-7호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중학교는 1989년부터 적용, 고등학교는 1990년부터 적용되었다.<sup>1)</sup> 3차 교육과정이 학문중심 교육과정 개념에 입각해 있었다고 한다면, 4차와 5차 교육과정은 “인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sup>2)</sup>라는 물음을 중심으로 한 인간중심 교육과정 개념에 입각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5차 교육과정이 등장한 사회적, 학문적 배경으로는 다음을 꼽을 수 있다. 민주화 운동, 냉전 체제의 약화, 국제화, 상고사 논쟁 및 국사과와 사회과 통합 논의. 여기서 사회적 요소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학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춰 5차 교육과정의 개발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3차 교육과정에 의거해 1974년 국정 국사교과가 발간된 이후, 한국고대사학회와 국사찾기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야사학자들이 학교 교과서의 고조선사가 식민사학의 관점에서 서술되어 있다고 비판하기 시작했다. 1978년, 이들은 법원에 「국정 국사 교과서 오류 시정 및 정사(正史) 확인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사 교과서의 국정교재 사용금지 및 정사(正史) 편

---

1)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180.

2) 정진이, 제5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綠友會報 권호사항 Vol.- No.33-34, 1992, 9.

찬 특별기구 설치 등의 시행요구」 소송을 진행했다. 4차 교육과정이 고시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1981년 8월에는, 「국사 교과서 내용 시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재야사학자들에 의해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들은 단군조선이 신화로서가 아니라 만주를 중심으로 실제로 성립했던 왕국으로서 교과서에 서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sup>3)</sup> 1982년에는 일본 교과서의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한 한국사 서술이 한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sup>4)</sup> 1986년, 『조선일보』는 총 11회로 기획된 광복 특집 기사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를 연재한다. 기사의 요지는, 한국 주류 역사학계가 식민지사관을 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본의 관점에서 교과서를 서술해 오고 있기 때문에 국사 교과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것이었다.<sup>5)</sup> 이러한 와중에, 1986년 10월, 문교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주관 아래 ‘국사교육 심의회 [이하 ‘심의회’]’가 구성된다. 심의회는 식민사관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생각되는 학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회 위원장은 서울대 변태섭 교수가, 부위원장은 고려대 김정배 교수가 맡았다.<sup>6)</sup> 심의회는 1987년 6월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이하 ‘준거안’]」을 발표했으며, 곧이어 이를 바탕으로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이 마련되었다.<sup>7)</sup>

총론 차원에서 5차 교육과정은 교과목 수의 축소를 지향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했던 강우철(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국사과를 사회과에 통합시키는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사 전공자들의 반대에 직면하여 그 의도가 관철되지는 못했다.<sup>8)</sup> 5차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들은 4차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sup>9)</sup>

- 1) 중, 고등학교의 국사과 교육과정이 연대사적 구조를 취하고 있음. 학생들의 심리적 발달에 대한 고려가 적음.
- 2) 교육과정 상에서는 중학교에서는 정치사, 고등학교에서는 문화사를 강조하고 있으나, 교과서에서나 현장 교실 수업에서 그러한 차이가 실제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않음.<sup>10)</sup>
- 3) 내용전달 중심에 치중하고 있어 역사적 사고 신장 노력에 소홀함. ‘역사를 교육’하는 데 집중한 나머지 ‘역사로서 교육’한다는 측면을 놓치고 있음.

이러한 기존 교육과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차 국사과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sup>11)</sup>

---

3)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194-195.  
 4)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196.  
 5) 정경희,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편향 과정 분석, 비봉, 2013, 41-42.  
 6) 정경희,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편향 과정 분석, 비봉, 2013, 42-43.  
 7) 박평식, 한국근세사 연구의 성과와 국사교육 in 정기문 외, 역사학의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2013, 260.  
 8) 최용규, 사회과교육의 ‘오래된 미래’, 2015, 12-13.  
 9) 최용규, 최석진,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 과정 시안 연구 개발, 1987, 95.  
 10)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 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2006, 13:3, 110.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기초연구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내용의 학교급별 계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특히 국민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 생활사 중심, 정치사 중심, 문화사 중심 구성이라는 당초의 계열화 방향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김희목 외, 1986:238).”  
 11) 최용규, 최석진,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 과정 시안 연구 개발, 1987, 90.

- (가)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
- (나) 학교급별 내용 구조의 특성화
- (다)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및 평가 방안의 구현
- (라) 교육과정 지역화 정신의 반영
- (마)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진술 체제의 구체화

## 2. 5차 교육과정기 국사, 세계사 교과목의 편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사과는 사회과와 함께 독립적인 교과로 존재했다. 다만 세계사는 사회과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 즉 “국사과의 국사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라는 이원적 체제”<sup>12)</sup>로 5차 교육과정이 구성된 것이다. 국사의 경우, 중학교 2, 3년의 시수는 2시간이었다. 고등학교에서는 6단위로 편성되었다.

4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를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서 배웠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 1, 2학년에서 세계사를 배우게 되었다.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세계사와 국사의 내용상의 연계성을 도모하며 중학교 1학년 세계사에서 중세까지의 시간 의식 기반을 형성하고, 그 기초 위에서 국사를 배우게 하며, 세계사를 배운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조망”하게 하기 위해서였다.<sup>13)</sup> 고등학교 세계사의 경우, 4차 교육과정에서는 공통 필수였는데 5차 교육과정에서는 과정별 선택으로 바뀌었다. 이런 면에서는 고등학교 세계사의 위치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4차 교육과정에서는 세계사 단위가 인문계 4단위, 자연계 2단위였는데, 5차에는 인문계, 자연계 모두 4단위로 바뀌었다.

## 3. 5차 교육과정의 특징

### 1) 반공주의의 약화

5차 교육과정의 특징은 그 기초가 ‘반공’에서 ‘통일’과 ‘다양성’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sup>14)</sup> 이와 관련한 가장 큰 특징으로는 용어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우선, 적어도 교육과정 상에서는 ‘반공’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sup>15)</sup> 또한 5차 교육과정부터 ‘6·25 남침’이 아닌 ‘6·25 전쟁’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또한 ‘제주도 폭동 사건’은 ‘제주도 4·3 사건’으로 바뀌었다.<sup>16)</sup> 물론 4·3 사건을 여전히 공산 세력에 의한 무장폭동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교과서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어조는 상당히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17)</sup> 이와 더불어 교과서 내용 구성상에서도 일련의 변화가 눈에 띈다. 먼저 5차 국사 교과서에는 ‘소작 쟁의’

12)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182.

13) “9장 민중사학의 등장과 역사교육 논쟁” 역사교육연구소, 우리 역사교육의 역사 :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 역사교육이 걸어온 길, 2015, 216-217.

14) 양세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서술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2012, 20-21.

15) 이지선,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공식 기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3, 1.

16) 양세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서술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2012, 24.

17) 이지선,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공식 기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3, 53.

와 ‘노동 쟁의’라는 소항목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4차 교과서의 ‘사회·경제적 독립운동’이라는 소항목이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작 쟁의’와 ‘노동 쟁의’는 농민과 노동자의 항일투쟁을 다루고 있는데 4차까지의 교과서에서는 사회주의와의 연관성 때문에 소극적으로 다루어져 왔었다.<sup>18)</sup> 북한 관련 서술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4차의 ‘북한의 공산화’라는 소제목은 5차에 가서 ‘북한 정권의 수립’으로 바뀌게 된다.<sup>19)</sup> 여기에는 북조선 임시 인민 위원회의 의해 이루어졌던 사회 개혁 내용도 일정 부분 서술되어 있다.<sup>20)</sup> 이러한 측면으로 인해, 정경희는 5차 교육과정을 “오늘날과 같은 [좌]편향된 교과서가 만들어지는 시발점”<sup>21)</sup>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렇다고 5차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반공적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한국전쟁에 관련된 서술에 있어, 5차 국사교과서도 4차와 마찬가지로 국군을 절대선으로 묘사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민간인 학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열악한 무기를 갖고 공산주의 침략자들에 용감하게 맞선 국군이라는 큰 틀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sup>22)</sup> 그리고 5차에 들어 국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반공의 성격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도덕과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공 교육은 이루어졌다.<sup>23)</sup> 예를 들어, 중학교 도덕과는 “국토 분단의 비극을 인식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깨달아, 조국의 민주적 통일을 위해 노력하게 하며, 북한 공산 집단의 실상과 공산주의 이념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갖게 함”을 교육의 목표로 상정했다.

## 2) 역사적 사고

5차 교육과정은 역사적 사고의 역사교육적 적용에 있어 커다란 분기점을 형성한 교육과정으로 평가되고 있다.<sup>24)</sup> 이는 4차 교육과정에 대한 「시안」 연구자들의 분석 결과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4차 교육과정의 문제점 중 하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중등학교 국사 교육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본원적인 문제로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국사 교육이 내용 중심에 치우쳐, 역사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인 역사의 객관적 인식을 통한 역사적의식의 계발,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 역사적 관점의 함양 등에 소홀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역사를 교육’하는 일에 치중 하여 ‘역사로서 교육’한다는 역사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 소홀하다는 것이다.<sup>25)</sup>

5차 교육과정은 이러한 「시안」의 문제의식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교육과정 ‘총론’은 “진리 탐구의 정신과 과학적 사고력, 심미적인 정서”의 함양을 교육과

18)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252-253.

19) 양세아,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한국전쟁 서술 변화 분석, 석사학위논문, 2012, 24.

20) 이지선,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공식 기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3, 51-52.

21) 정경희, 한국사교과서 어떻게 편향되었나 :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 편향 과정 분석, 비평, 2013, 184.

22) 이지선, 한국전쟁에 관한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 : 공식 기억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2013, 54.

23) 구경남, 국가주의를 넘어서 ‘민주시민으로서의 다원적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교육 모색,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9, 670-671.

24)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2005, 12권 2호, 227.; 백정화, 교과서 변천과정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려시대 서술, 석사학위논문, 2007, 29-30.

25) 최용규, 최석진,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 과정 시안 연구 개발, 1987, 10.

정 구성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력”을 갖춘 창조적인 사람 양성이 5차 교육과정의 큰 방향이라고 설명한다. 교육목표상에서도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기르고 “탐구 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으로 생활을 개척”하는 것이 주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다. ‘운영지침’의 ‘평가’도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이해, 적용, 표현, 분석, 종합과 같은 능력의 평가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과 ‘교과목표’는 총 다섯 가지로 이 중 세 번째가 다음과 같이 역사적 사고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

3) 다양한 학습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을 통하여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한다.

‘학년 및 내용 목표’에서도 역사적 사고 능력과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2학년의 경우 “유적, 유물, 연표, 역사 지도 등의 여러 학습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적 사실을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3학년의 경우 “역사 학습 자료를 조사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하여, 역사적 사고력 및 문제 해결력을 기르게 한다.”고 각각 서술되어 있다.

‘지도 및 평가 상의 유의점’ 및 ‘평가’ 에도 유사한 내용이 발견된다.

교과서 이외에도 유적과 유물, 역사 지도, 연표, 문헌, 시청각 자료, 역사적 인물 등의 다양한 학습 자료와 지역 사회에 맞는 향토사 자료를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하고, 역사적 사고력과 역사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지필 검사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탐구 능력과 역사적 사고력은 수업 중의 발표와 과제 보고서 등을 통하여 평가한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교육목표’는 중학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역사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언어, 수리 등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을 신장시키고, 논리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표현력을 길러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다.
- 4) 자연과 사회 현상의 기본 원리를 이해시키고, 정보 처리력과 탐구 능력을 길러, 합리적이고 진취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한다.

‘지도’와 ‘평가’에서도 유사한 요소가 발견된다.

- (2) 지역적이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
- (3) 학습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지적, 정의적, 기능적 측면 등이 함께 고려되도록 하고 단순한 사실 외 기억보다는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표현, 조작과 같은 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실험과 실습이 요구되는 과목의 경우에는 실험, 실습도 이론과 함께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국사과 ‘교과목표’도 역사적 사고의 요소를 뚜렷이 담고 있다.

- 3) 역사적 사실과 각 시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 4)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러한 역사적 사고에 대한 강조는 ‘지도’와 ‘평가’에서도 함께 드러난다.

- (5)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그 시대와 전체 역사 속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역사적 사고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6) 다양한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 (1)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편적 지식의 평가보다는 시대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
  - (2) 지필 검사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역사적 탐구 기능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업 관찰, 과제물 검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5차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고를 강조했다라는 점은 선행연구에서 많이 언급되었다. 차미희에 따르면, 1955년 역사교육연구회 창립 이래로 역사교육 연구자들은 꾸준히 역사적 사고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3차 교육과정의 출현과 함께, “민족주체성, 국민정진 교육 강화”<sup>26)</sup>가 주요한 교육목표로 대두하면서, 역사적 사고는 교육과정 상에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 결과 3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적 사고가 일반목표에서 명목상으로만 언급되었다. 4차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과목표와 학년목표에 언급되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단원목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5차 교육과정이 돼서야, 교과목표, 학년목표, 단원목표에 유기적으로 역사적 사고 관련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sup>27)</sup> 그렇다고 해서 5차 교육과정의 모든 단원목표 진술이 역사적 사고의 내용을 뚜렷하게 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경우에 따라 4차 교육과정의 단원목표와 5차의 그것이 아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sup>28)</sup> 그러나 역사적 사고와 관련하여 여전히 5차 교육과정은 3, 4차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3, 4차 교육과정 국사과는 교과목표는 “민족 사관의 확립, 민족적 자부심, 민족사에 대한 긍지, 민족중흥에의 이바지, 민족문화의 발전”<sup>29)</sup> 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 5차에서는 이러한 가치가 일반적으로 강조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를 분석한 이수정에 따르면, “5, 6차 교육과정 시기에는 한사군 위치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여러 설을 함께 지도로 제시하여 학생들이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30)</sup>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를 분석한 권태경은, 교과서 차원에서 역사적 사고에 대한 문제의식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을

26)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190.

27)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203.

28)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204.

29) 차미희,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국사과 독립 시기(1974~1994)를 중심으로, 2011, 213.

30) 이수정, 해방 이후 역사부도의 상고시대 동아시아 관련 지도의 변천 - 고등학교 역사부도의 고조선과 한사군을 중심으로, 역사와 교육, 2016, 23, 29.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5차 교과서에서는 ‘알렉산드로스 제국과 헬레니즘 문화’를 포함한 해당 단원의 모든 내용이 끝난 후에 ‘학습정리’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는데, 6차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단원 마무리에 함께 제시하고 있었다. 학습정리란 말 그대로 지금까지 학습한 해당 단원의 모든 내용을 한두 줄의 분량으로 간략히 정리한 것이고, 연구문제는 단순한 질문을 제시하여 학생이 단순 암기를 확인하고 있으며, 삽화를 제시하거나 학습자의 역사적 사고력을 자극하는 내용은 찾기 어려웠다.<sup>31)</sup>

### 3)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의 강조

세계사 교육과 관련한 5차 교육과정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동시에 강조한다는 점이다.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세계사의 경우, “세계사의 흐름을 각 시대와 문화권의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한다.”와, “세계사를 통하여 한국사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가 ‘목표’로서 제시되고 있다. 세계사적 보편사의 개념은 특히 ‘내용’의 근대사 부분에서 잘 드러난다.

#### 6) 근대 아시아 사회의 발전

아시아 각국의 전통 문화의 성숙과 근대적 성장 과정을 파악하고, 그들의 서양 세계의 진출에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인식하게 한다.

여기에서 “서양 세계의 진출”이 세계사적 보편성의 요소로서,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대응”이 역사적 특수성으로 제시되고 있다. ‘지도 및 평가’에서도 유사한 요소가 강조되고 있다.

(5) 세계 여러 나라 문화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 민족 문화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아 인식을 가지도록 지도한다.

5차 교육과정이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을 강조한다는 부분은 선행연구에서도 반복적으로 이야기됐다. 정진이에 따르면, 5차 교육과정이 “문화권 중심의 세계사 학습”을 가능하게 했으며, 학생들은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국가나 민족의 특수성은 물론 보편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sup>32)</sup> 김선화는 근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5차 교육과정에 담긴 역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상의 내용에서 제국주의 열강에 의한 후진 지역에 대한 침략이라는 세계사의 보편적 현상 속에서 중국은 여러 나라에 의해 분할되었으며, 인도는 영국에 의해 독점되었고, 한국은 후발 제국주의 국가인 일본에 의해 식민지를 경험하였다는 각각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았다. 그와 동시에 그러나 상황 속에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여 자생력을 회복하려 노력하였다는 보편성을 찾아볼 수 있다.<sup>33)</sup>

31) 권태경,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 대한 연구 - 헬레니즘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1권 3호, 2020, 1620.

32) 정진이, 제5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綠友會報 권호사항 Vol.- No.33-34, 1992, 11.

33) 김선화, 「고등학교 역사부도」의 비교 분석 : 세계사분야 역사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4, 26.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는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에서 나타나는 서구중심주의적 요소를 지적했다. 예를 들어, 정진이는 세계사 교과서가 19세기 서양의 제국주의를 설명할 때, '진출'과 '침략'이라는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한 서양 열강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과 비교해 볼 때, 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의 내용과 특징에 대한 설명이 적다는 점도 언급했다. 결론적으로 그가 보기에, 5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는 아시아 국가의 자생적인 힘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다.<sup>34)</sup> 김선화에 따르면, 세계사 교과서에서 유럽 비중이 세계사 전개에서 유럽의 역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sup>35)</sup> 김중락은 1차부터 5차 교육과정까지 서양을 근대화의 모델로 인식하는 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즉 서양식 '민주주의'와 '산업혁명'을 보편적 현상 혹은 가치로 취급하고 그것을 지향점으로 각국의 근대사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5차 교육과정 세계사 교과서가 여전히 서구중심주의를 여전히 극복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sup>36)</sup>

#### 4. 추후 연구 방향

5차 교육과정에 대한 본 연구자의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에서는 5차 교육과정이 역사적 사고의 요소를 강조한 교육과정으로서 언급되고 있다. 다만 5차 교육과정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적 사고 개념에 대한 분석이 선행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교과서의 역사적 사고 관련 부분(탐구활동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잘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자는 선행연구에서 미흡하게 다뤄진 이러한 부분을 파고들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다음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 (1) 5차 교육과정이 전제하고 있는 역사적 사고 개념과 하위 범주
- (2) 5차 교육과정이 개발될 당시 국외 역사적 사고 연구의 내용
- (3) 역사적 사고의 개념과 하위 범주의 전체 연구사에 비추어 5차 교육과정의 역사적 사고 논의 분석
- (4) 5차 교육과정 국사 및 세계사 교과서에 포함된 역사적 사고 요소들에 대한 심층적 분석

34) 정진이, 제5차 교육과정의 세계사 교과서 비교 분석, 綠友會報 권호사항 Vol.- No.33-34, 1992, 45-46.

35) 김선화, 「고등학교 역사부도」의 비교 분석 : 세계사분야 역사지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1994, 48.

36) 김중락, “서양근현대사 연구의 성과와 한국 역사교육의 방향” in 정기문 외, 역사학의 성과와 역사교육의 방향, 책과함께, 2013.



## 제5차 교육과정과 역사교육 발표에 대한 토론

박진동(강원대학교)

사범대학에 와서 보니 제자들의 교원임용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임용을 위한 이른바 ‘고시’ 기출문제를 보면 교육과정 변천/역사교육사 영역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시험이지만 현재에도 여전히 중요해서 다시 다루어도 괜찮겠다는 것도 있고, 당시에는 관심사였지만 세부적으로 다루었더라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 패스해도 될 만한 것도 있었다.

1980년대 말 5차 교육과정도 그렇지 않을까.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고시할 때는 현안이었을 것이다. 이중에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해결 모색중인 주제도 있고, 패스할만한 것도 있지 않을까? 과거를 과거대로 보는 관점도 중요하고 현재와의 연결 고리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발표문을 읽어보았다. 내용은 당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장 잘 알겠으나, 그때는 숙제 하듯이 생산했을 것 같고, 지금은 중요한 포인트를 뽑아서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역사교과서연구소가 연차별로 진행하는 이 학술대회가 교수요목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5차에 이르니 6년차에 이르게 되었다. 프로그램은 대개 교육과정을 다루고 분야별 시대별 교과서 서술을 검토하는 식이다. 우리 역사교육 연구자의 전공을 고려할 때 첫번째 발표인 교육과정 다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발표문에 쓴소리를 하는 것이 토론자의 임무라 토론의 형식을 빌어 세가지 정도를 지적하고자 한다.

발표자는 첫번째 문장을 통해서 ‘개요 제공’을 목표로 삼았다. 목표가 다소 느슨한 것 같다. 더 읽어보니 서론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론의 구조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보통 서론은 연구의 필요성, 선행연구 검토, 연구의 범위와 방법, 문제의식과 목표 등을 담는다고 본다. 그런데 상당 부분을 개발 배경을 알아보겠다 하면서 상고사 논쟁과 국사교육심의회를 서술하였다. 그러다가 준거안과 교과목 수 축소/교과목 축소를 말하고 5차 개발진이 4차 교육과정을 분석한 것과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토론자로서는 이것이 첫번째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썼는지 매우 궁금하다.

서론에서 사회적 요소가 상식적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학문적 요소에 초점을 맞춘다는 언급에서 무엇을 사회적 요소로 보았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토론자는 교과 외적/내적 구분이라고 판단해보았다. 그리고 상고사 논쟁과 국사과와 사회과 통합 논의가 학문적 요소라고 보았나 했다. 그런데 2장은 통상 역사과의 위상을 말할 때 등장하는 학교/학년별 편제와 시간 배당을 다루었다. 필수/선택 여부와 시간 변화에 따라 위치가 달라졌다는 정도의 판단을 제시해서 내적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상식적 서술과 해석이었다. 3장에서 말하는 반공주의도 학문적이라기보다 사회적에 가까운 것 같다. ‘역사적 사고’가 학문적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다루겠다는 언급은 서론에서 없었다.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총론과 관련성을

검토한 것은 역사내를 보기 위한 외적 영향으로 여겨진다. 이전까지의 역사적 사고를 다룬 내력을 살피면서 5차에서 역사적 사고가 각별함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교과서 차원으로 넘어가서 역사적 사고가 교과서에 잘 반영되지 못했다는 연구를 인용했다. 두번째 질문은 서론 문제를 떠나서 5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역사적 사고의 의의를 어떻게 평가하는 입장인지 매우 궁금하다.

다음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사적 특수성 문제를 서술했다. 명시적인 목표였기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강조된다는 것만으로 기술된 것을 읊킨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더 나가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 교과서로 돌아간다. 즉, 서구중심주의가 심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교육과정 문서와 선행 연구 일부를 이용해서 5차 교육과정의 전체상을 설명하려고 한 것 같다. 이 점에서 발표자의 전문성이 발휘되지 못한 듯한 점이 매우 아쉽다. 발표자는 이 점을 의식한 것 같다. 마지막에 역사적 사고 부분을 분석하겠다는 제안이 그것을 말해준다. 처음부터 이것에서 출발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을 담아서 마지막 질문은 끝부분에서 제안한 후속 연구를 어떻게 풀어가려고 하는지가 궁금하다.

소소한 지적은 서면으로 대신합니다.

각주 1) 서지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차미희 저서의 출판사(교육과학사) 누락. 이하 7) 단행본 출판사 없음, 8), 9) 최용규 저서 출판사 없음. 11) 보고서 발행기관 없음, 14), 15), 16), 17), 19), 22), 33), 35) 학위논문 대학 없음,

<제2발표>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의 변화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조성운(동국대학교)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의 변화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조성운(동국대학교)

---

## 목 차

---

1. 머리말
  2.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3.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 변화
  4. 맺음말
- 

### 1. 머리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하고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군사독재를 통해 정권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1981년 유치에 성공한 1988년 하계올림픽과 1986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표면적으로나마 유화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리하여 1984년 3월 신학기에 맞추어 대학 내에 상주하던 사복경찰을 철수시키는 등의 학원자율화조치를 취하고 구금 중이던 반정부인사를 석방하였다. 이에 따라 국내의 민주화운동은 더욱 고조되었고, 1987년 6월민주화운동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였다.

국내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제6공화국 노태우 정권은 변화한 시대상, 즉 민주주의의 진전과 '북방정책'에 따른 사회주의권과의 수교로 인한 새로운 통일 논의의 활성화, 고도화된 산업화와 국제화, 정보화 등 사회의 변화에 수반한 새로운 교육 방향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사회의 정보화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목표에 '정보처리력'을 함양한다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미래 사회에 대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 보인다.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은 국사과의 차원에서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의 교과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교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교재로서 교과서를 개편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1990년부터 사용되었다. 이 교과서를 편찬하기 위해 문교부는 국사교육심의회를 조직하여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1987)을 마련하였고,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최용규·최석진, 1987)을 편찬하였다. 문교부가 이와 같이 국사교과서 편찬에 특히 주의한 것은 1986년 일본에서 『신편일본사』가 교과서 검정에 통과되어 1987년부터 사용되는 등 1982년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이은 제2차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가 발생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부터 유사사

학계가 상고사 분야에 대해 거세게 문제 제기하였던 사실, 그리고 1986년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일보』가 연재한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와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연재한 「민족의 고향 고조선을 가다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부)」라는 연재물에 영향을 입은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상고사 부분과 일제의 역사왜곡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형편이다.<sup>1)</sup>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1987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검토하려 한다. 이를 통해 이 시기 한일 양국이 역사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만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한일 양국이 어떠한 논의를 거쳤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아쉽다 할 것이다.

## 2.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 (1)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1982년에 이어 1986년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편찬한 『신편일본사』가 검정 통과되어 1982년에 이어 일본은 역사교과서를 왜곡하였다.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은 1986년 1월 언론의 보도에 따라 국내에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1986년 1월 22일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82년 「교과서 왜곡 파동」으로 한일 양국간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는 일본 문부성은 내년 4월부터 사용되는 중학교 사회교과서(지리—역사—공민) 검정에서도 여전히 양국간의 역사 사실을 왜곡 기술하도록 지시 또는 권고했음이 일본출판노동연맹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일본출판노동연맹이 최근 발간한 「85년 교과서 보고서」에서 밝혀진 일본 문부성의 중학사회교과서 검정 실태에 따르면 검정 대상의 거의 모든 교과서가 3·1운동, 강제연행, 도래인(渡來人) 등의 부분에서 원고 내용을 수정토록 지시받았다는 것이다. 85년도 검정 대상 사회교과서는 모두 8개사 22책인데, 일본 문부성이 수정을 지시 또는 권고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3·1 독립운동=교과서에 ‘군대에 의해 철저히 진압, 한국인의 사상자 수는 5만 3천명에 달했다’로 돼 있는 것을 이것은 1년간의 사상자 수이므로 운동이 격렬했던 ‘3개월간의 사상자 수를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

1)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차미희의 일련의 연구 외에는 전무한 형편이며, 1986년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연구도 미진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차미희, 『중등 국사교육의 내용 변천에 대한 연구-국사과 독립시기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 『한국 중·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011. : 『5차 교육과정기(1989~95)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연구』12-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08.

정중구, 「일본교과서 역사왜곡의 실태」, 『관훈저널』42, 관훈클럽, 1986.

이명화,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사 기술과 한국사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7.

김환, 「일본 역사교과서 관건-복고조 역사교과서 『신편일본사』를 중심으로-」, 수춘박영석교수화갑기념논총간행위원회, 『한국사학논총』하, 1992.

김경태, 「일본사 교과서의 역사왜곡과 현재 상황-1987년 『신편일본사』를 중심으로-」, 『梨花』41, 이대교지편집위원회, 1987.(김경태, 『근대 한국의 민족운동과 그 사상』,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에 소수).

岡本昌己,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 관련 일본 신문 보도의 차이와 변화」,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강제연행=‘노동력이 부족해서 70만 이상의 한국인들이 일본에 무리하게 끌려와서...’로 된 원문에서 ‘여기엔 자유모집제도의 수도 포함돼 있으므로 「이상」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라’고 강요.

▲임진왜란=‘공훈을 늘리기 위해 여자나 어린이까지 살해, 귀와 코를 베어갔다’는 구절을 『표현이 잔혹하므로 고치라고’ 지시.

▲도래인(渡來人)=고분시대엔 귀화제도가 없었는데도 고분에 관한 기술에서 「도래인(渡來人)」의 표현을 쓰고 있는 부분을 「귀화인」으로 고치게 함.<sup>2)</sup>

이 보도 이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보도가 줄이었는데, 그 중심에 있던 교과서는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가 편찬한 『신편일본사』였다. 『신편일본사』는 제1편 원시·고대(3장), 제2편 중세(3장), 제3편 근세(4장), 제4편 근대·현대(7장)의 4편 17장으로 구성된 교과서로 신국가주의사관과 신관 황국사관을 크게 부각시켜 일본의 역사에 긍지와 애정을 가질 것을 기본<sup>3)</sup>으로 하였다. 이는 국내 언론의 보도와도 궤를 같이 한다. “과거의 침략 전쟁에의 반성은 손톱만큼도 없이 전쟁이나 천황제를 미화했다”<sup>4)</sup>고 한 일본교직원조합의 성명이나 “역사왜곡과 군국주의의 부활”<sup>5)</sup>이라며 일본을 비난한 베트남의 성명을 인용한 『조선일보』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알게 된 한국 정부는 1986년 1월 21일 현지 공관에 진상 파악을 훈령하였고,<sup>6)</sup> 당시 집권당이던 민정당은 1986년 6월 6일 외무부에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sup>7)</sup> 이에 대해 외무부는 “우리로서는 일본 역사교과서 내용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앞으로 우리나라 관계 기술 부분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검정 추이 등을 예의주시하겠”<sup>8)</sup>으며, “이번에 문제가 된 교과서는 7월 10일 공개될 예정이므로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돼 있는지 파악 중에 있다.”고 밝혔다.<sup>9)</sup> 그리고 한국 정부는 국사편찬위원회 등 전문기관에 의뢰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기술의 왜곡 사실 등을 정밀 분석토록 하고, 그 결과가 나오대로 한국관 시정사업을 펴온 문공부와 외국 교과서 사례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등을 마련해 온 한국교육개발원 등과 협의해 왜곡 기술된 부분을 외교 경로를 통해 시정하도록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책을 강구할 방침을 세웠다.<sup>10)</sup>

한편 1986년 6월 17일 문교부는 『신편일본사』 분석을 통해 한국사 관련 주요 왜곡 내용은 다음의 13개 항목이라고 밝혔다.

1. 삼한정벌 : 조선의 남부지방에 군사적 지휘권을 보유(일본이 역사상 우위에 있었다는 의미)
2. 정한론 : 일본은 국교를 가지려고 했으나 한국이 일본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채국정책을 실시했다.

2) 『동아일보』 1986년 1월 21일, 「일 문부성 교과서 왜곡 부채질」. : 『조선일보』 1986년 1월 22일, 「일 문부성, 또 「역사왜곡」 앞장 교과서 검정(檢定)서 "3·1운동 사상자 축소" 등 지시」.

3)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 성명, 1986년 7월 8일.(김경태, 앞의 책, 452쪽에서 재인용).

4) 『조선일보』 1986년 6월 6일, 「安重根의사를 ‘건달’로 표현」.

5) 『조선일보』 1986년 7월 9일, 「中共, 日 교과서 또 맹비난 베트남도 "軍國 부활이다"」.

6) 『조선일보』 1986년 1월 22일, 「일 문부성, 또 「역사왜곡」 앞장 교과서 검정(檢定)서 "3·1운동 사상자 축소" 등 지시」. : 『매일경제신문』 1986년 1월 22일, 「일 교과서 왜곡 중시 정부 진상 파악 훈령」.

7) 『조선일보』 1986년 6월 7일, 「교과서 歪曲 조사 요청」.

8) 『매일경제신문』 1986년 6월 7일, 「일 역사교과서 왜곡 검정 추이 예의주시」.

9) 『경향신문』 1986년 6월 7일, 「일 왜곡 역사교과서 대한 관계 진상 조사」.

10) 『동아일보』 1986년 6월 10일, 「일 교과서 왜곡 시정 요청키로」.

3. 운양호사건 : 조선측이 먼저 포격을 가했으므로 일본은 정당방위를 하였다.
4. 제1차 한일협약 : 강제 체결의 언급 없음
5. 제2차 한일협약 : 미·영의 동의를 얻어 체결하여 외교권 접수
6. 제3차 한일협약 : 내정권을 통감의 지도 하에……(이상 3개항 일본의 침략 은폐)
7. 안중근의사 : 장사(건달)로 표시(민족의 독립운동 무시)
8. 한국인 강제징용, 신사참배, 강제 창씨개명 강요, 토지 약탈, 일본어 강제교육 : 언급이 없음(일본제국주의의 수탈적, 민족말살적 역사 사실 은폐)
9. 한일합병 : 안중근이 이토를 사살하여 한일 관계가 악화됨으로서 가속화(일본의 한국 주권 강탈 합리화)<sup>11)</sup>

이러한 분석 이후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하여 시정을 촉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1986년 6월 20일 나카소네 야스히로(中曾根康弘) 일본 수상은 “국제적 이해를 위해 시정하도록 지시”<sup>12)</sup>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는 1986년 6월 30일 일본 문부성의 최종 수정 요구를 “1. 납본 심사를 거쳐 사실상 검정에 통과된 이 교과서가 오는 7월 10일 전국 교과서 전시회에 출품될 건본 인쇄가 이미 끝나 시간상 대폭 수정이 불가능하고 2. 특히 나카소네 수상의 지시에 따라 추가로 행해지는 수정 작업은 검정제도의 자의적인 운영이며, 3. 교과서의 편집 방향 골격을 바꾸는 수정에는 더 이상 응할 수 없다.”<sup>13)</sup>고 거부하였다. 그러나 가이후 도시키(海部俊樹) 문부상이 “수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검정 불합격도 생각할 수 있다.”<sup>14)</sup>는 강경한 자세에 태도를 바꾸어 교과서 기술 수정을 수용하였다. 수정 내용은 다음 장에서 살필 것이다.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수정에 대해 1986년 7월 10일 오후 외무부 權丙鉉 亞洲 국장은 다니노(谷野作太郎) 駐韓 日本 수석공사를 외무부로 불러 교과서 수정 내용이 미흡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침략 과정 부분 등에 대한 왜곡을 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sup>15)</sup> 이후 1986년 7월 14일 한국고고학연구회(회장 한병삼), 역사교육연구회(회장 윤세철), 한국미술사학회(회장 맹인재), 역사학회(회장 이재룡), 한국사연구회(대표 차문섭), 진단학회(대표 한영국), 한국사학회(회장 박영석)의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사연구협의회(회장 박영석)은 1986년 7월 14일 「일본교과서의 한국관계 내용 왜곡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발표하여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왜곡을 비판하고 일본 역사교육의 풍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는 『신편일본사』의 한국사 왜곡 사례로서 고대사 9개, 중근세사 5개, 근대사 14개, 현대사 7개 등 35개 항을 분석, 발표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분석은 자료를 구할 수 없어 한국사연구협의회에서 분석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소개하기로 한다.

이와 같은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번에 문제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부분 검정 내용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시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 “아직도 침략과 그 전개과정이 기술되어 있지 않는 등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으나 한국 언론은 일본의 왜곡 교과서 시정을 ‘눈가림 수정’, ‘왜곡 핵심 둔 채’, ‘반성 기미 없는 ’외교 장관‘ 등이라며 비판적이었다.<sup>16)</sup> 그러므로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기 국사

11) 『동아일보』 1986년 6월 18일, 「일 고교 교과서 「일본사」 한국 관계 왜곡 13곳 문교부 분석」.

12) 『조선일보』 1986년 6월 20일, 「나카소네 교과서 시정 지시」.

13) 『조선일보』 1986년 7월 2일, 「일 교과서 재수정 거부」.

14) 『동아일보』 1986년 7월 2일, 「내외 비판에 물린 일 국민회의」.

15) 『조선일보』 1986년 7월 11일, 「왜곡 일 교과서 정부, 시정 촉구」.

16) 『경향신문』 1986년 7월 8일, 「일 왜곡교과서 20개항 시정」. : 『동아일보』 1986년 7월 8일, 「일 교과서 왜



교과서 편찬에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대응해야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 (2)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성립

제5차 교육과정은 중학교는 1989년, 고등학교는 1990년부터 적용되었다.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은 국사교과서에서 식민사관의 철폐와 관련하여 주로 한국상고사 문제를 제기하던 유사사학계의 주장과 『조선일보』가 1986년 8월 15일부터 29일까지 『조선일보』가 연재한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를 연재하여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 방향에 대해 자사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이 연재가 끝난 다음날인 1986년 8월 30일부터 최몽룡(고고학), 최재석(사회학), 김광익(인류학), 윤내현(동양사), 허승일(서양사), 김정배(고대사)를 필자로 한 「한국사의 새 지평을 열자 광복 41주 기획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를 9월 11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하였고,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는 「민족의 고향 고조선을 가다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부)」를 다시 연재하였다. 이 기획기사들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국사교과서는 식민사관에 물들어 일본이 의도적으로 왜곡한 한국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서술하여 국민교육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이러한 기획보도를 한 이유는 1986년 8월 15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밝힌 다음의 <편집자 주>에서 그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일본은 역사를 민족 긍지를 촉진하는 교재로, 국민 단합을 위한 정신무장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일본 학생들은 명치 이래로 1백여 년 동안 1만 수 천년 전으로부터 일본문화가 시작되었으며 한국의 남반부 가야, 신라, 백제는 그들이 지배했다고 교육받고 있다.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어떠한가. 현행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시조마저 나오지 않는다.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경영설」을 분석, 비판하는 대목도 없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사 지식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광복 후 교과서 개정 때마다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이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쳤던 고조선, 삼한, 삼국의 고대사가 63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주요 사실이 없어진 것이다. 국사교과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광복 41주년을 맞아 국사교과서의 변모와 현행 국사교육을 점검하는 특집을 연재한다.<sup>17)</sup>

결국 『조선일보』는 이 기사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국사교과서를 새롭게 서술해야 한다는 주장을 대대적으로 전개한 것이며, 그 근거를 임나일본부설 등 일본의 한국고대사 왜곡과 고조선 이래 삼국시대까지의 한국고대사 서술이 크게 축소된 것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국사교과서가 이렇게 된 이유를 1963년 문교부 내에 설치된 국사교육통일심의위원회(위원장 申奭鎬)가 제정한 다음의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에서 찾고 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고대사는 서양사나 중국사에 비하여 기록이 부족하고 따라서 모호한 부분이 많은 데, 교육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고민을 되풀이하고 있으니 이 점을 고쳐야 하겠다는 생각이 여러 교육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다. 즉, 정치 변천 중심의 修史體가 교육방법에까지 침투하여 학생과 교사를 곤경에 빠뜨리고 말았다. 어느모로 보아서는 불필요한 사료까지도 교과서에 수

곡 핵심 든 채 인가. : 『조선일보』 1986년 7월 9일, 「일 교과서 눈가림 수정」. : 『경향신문』 1986년 8월 24일, 「반성기미 없는 '외교장난」.

17) 『조선일보』 1986년 8월 15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1)」.

록되어 있다. (중략) 시대가 현대와 멀어질수록 학생들의 역사의식은 알아지고 현재와 단절되기가 쉬우며 자연스럽게 史實의 기억에만 그치고 만다. 역사는 하나의 종합과학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적 변천만을 가지고 이해할 수는 없다. (중략) 이러한 뜻에서 종래 문체가 되었던 교육 내용을 통일하여 새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교과서가 편찬될 때부터는 통일된 내용을 수록하여, 그에 따라 국사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실지 지도에 있어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sup>18)</sup>

그리고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의 세부지침에서 단군신화(단군은 민족신화로 취급), 기자·위만조선(史實은 고조선에 포함, 취급하되 기자, 韓氏, 개아지, 위만, 위씨조선 등의 용어는 쓰지 않는다. 箕子東來, 기자 운운은 교과서에는 하지 않는다), 삼국의 건국 및 건국연대(㉠ 주몽, 온조, 박혁거세는 부족사회에서 다루고 ㉡ 사료에 기록되어 있는 건국 연대(BC57, 37, 18)는 표시하지 않으며 ㉢ 삼국이 고대국가로서 발전한 것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으로 하고 ㉣ 삼국이 고대국가로서 발전하기 시작한 때는 태조왕, 고이왕, 내물왕 때부터 또는 몇 세기부터라고 한다) 등을 사례로 들었다.<sup>19)</sup>

그러나 『조선일보』는 『고등국사』(김상기)를 예로 들며 이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이 제2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1974년 국사교과서 국정화 이후 일률적으로 적용<sup>20)</sup>되었다고 하였다며, 특히 1974년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이후에는 “70년대 후반의 각급 학교 졸업생들은 교과서에 삼국 초기 기록이 빠져 삼국 시조에 대해 거의가 배우지 못했다고 말한”<sup>21)</sup>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는 주체적 민족사관의 정립과 국민의 단결을 목표로 마련되었던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이 원래 의도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민족사의 뿌리라 할 고대사를 연구하여 보완하기보다 오히려 축소, 말소하는 결과<sup>22)</sup>만 빚고 말았으며 국사교과서는 史實로서의 단군과 단군조선으로부터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일제의 식민사관과 연결하여 한국사학자 대부분이 일본학자들이 일본고대사를 끌어올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말살한 한국고대사 왜곡 논문을 비판없이 답습<sup>23)</sup>하고 있는 한국사학계의 현실에서 찾았다. 또한 1982년에 편찬되고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응해 새롭게 수정, 편찬한 1983년판 국사교과서에 대해서는 大新高 河泳權 교사의 연구를 통해 고교 국사교과서 최근세사 부분의 서술에는 잘못된 내용 13개, 학습에 필요 없는 부분 18개, 적절하지 못한 표현 18개, 중복된 부분 22개, 틀린 낱말을 사용했거나 어법상 잘못된 문장 3개, 민족의 자주성 확립에 어긋나는 부분 2개 등 무려 90여 개의 오류가 있으며, 현행 교과서는 근대사 부분에서 민족의 내재적 발전을 강조한다고 하면서도 일제의 침탈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반면, 이에 대한 민족의 항쟁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조동걸 교수의 인터뷰 내용도 보도하였다.<sup>24)</sup> 그리고 강만길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국사교과서의 검인정화를 주장<sup>25)</sup>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기획 기사를 총정리하는 관점에서 1986년 8월 30일에 사설 「国史와 국민의 合意 —

18) 『조선일보』 1986년 8월 16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 이 기사의 서술을 『편수자료』5의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을 참조하여 보완하였다.

19) 『조선일보』 1986년 8월 16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

20) 『조선일보』 1986년 8월 16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

21) 『조선일보』 1986년 8월 15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1)」.

22) 『조선일보』 1986년 8월 16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2)」.

23) 『조선일보』 1986년 8월 17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3)」.

24) 『조선일보』 1986년 8월 26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9)」.

25) 『조선일보』 1986년 8월 29일,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11)」.

「国史교과서 새로 써야한다」는 命題—」를 통해 자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던 것이다.

역사학이나 실증사학의 권위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많은 보통 한국인의 역사적 상식으로 통쳐진 아이덴티티도 막중한 것이다. 「실증사학」이 국수주의적인 정열에 따라 배척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그러나 「실증」을 말하더라도 3국의 始祖나 건국 연대는 三国史記가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 三国史記의 기록 자체에 실증성이 없다는 논거도 있지만, 실증성이 없다」는 실증의 근거는 또 무엇인가. 中国 또는 日本의 史書와의 符合 여부나, 비현실적인 說話가 그 反証이 된다고도 한다. 그러나 첫째, 인접국 관련 史料의 抛証을 반드시 국내 史記에 우선시켜야 할 필연성도 보통 한국인으로서의 얼른 이해할 수가 없으며, 둘째, 「유비통신」은 현대 과학시대에도 있고 옛날의 그런 얘기들은 역사적으로 더욱 충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손가락이 아닌 달을 보듯 커다란 눈으로 보면 국정교과서가 기록하기 시작한 고구려 태조(53~146), 백제의 근초고(346~475), 신라의 내물왕(356~402) 이전에도 분명히 이 땅에 사람은 살았고 어떤 규모든지 사회(국가)가 형성돼 있었을 것이다. 연이어 발굴되는 고고학적인 유물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三国史記에는 始祖와 건국의 연대가 분명히 기록돼 있다. 9백여년 전에 金富軾이 지금보다는 많았을 옛자료에 따라 기록한 것을 9백년 후의 실증사학이 당장 실증이 안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교과서에서 그 첫 대목을 말살하는 일보다는 유보하는 상태에서라도 참을성 있고 끈질기게 그것을 실증해가는 作業이나 자제가 더 필요했을 것이다. 삼국의 始祖나 건국 연대는 한 예에 불과하지만, 신문은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뿐 문제를 풀지는 못한다. 관계 당국인 문교부와 史學界가 국사교과서를 두고 국민적인 忖意에 마땅한 發言을 하고, 마땅한 해답을 내놓기를 촉구할 따름이다.

이와 같은 『조선일보』의 일련의 보도에 대해 당시 국사교과서 편찬 실무 담당자인 윤종영은 “완전히 기습을 당한 기분이었다.”<sup>26)</sup>며 『조선일보』의 보도에 매우 당황하였던 심정을 남겼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여 삼국의 시조와 건국 연대 문제, 임나일본설, 고대사 분량이 너무 적다는 등의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 특별기획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단순히 교과서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국사학계 전반에 걸친 문제로서 앞으로 좀더 학계의 연구업적을 토대로 연구, 검토하여 제5차 교육과정 개정 때 이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강조는 인용자)

결국 『조선일보』가 기획기사에서 제기하였던 여러 문제점들을 연구, 검토하여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보고가 있는 후 윤종영은 손제석 문교부 장관 등과 대책을 마련하고 청와대 교육담당 비서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 대책으로 「국사교과서에 제기된 문제점과 대책」을 작성, 결재받았다. 이 문건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는 국사교육심의회를 조직하여 현행 국사교과서 내용 분석 및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작성하도록 하고, 장기대책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한국사 쟁점 문제를 심층 연구하게 하고 이 문제에 대해 연 2회 이상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학술연구비를 집중 지원하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논란의 과정에서 국정 국사교과서의 편찬을 담당하였던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박

26)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10·11, 역사실학회, 1999, 682쪽. 이후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의 마련과 내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가 없는 한 윤종영의 이 글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힌다.

영석은 『조선일보』와의 대담에서 현행(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인용자) 국사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우리나라의 고대나 중세에 대해선 공부한 바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보다도 교과서 발 행체제나 풍토에 대해 얘기하지요. 문제점들은 조선일보가 대체로 지적했지요. 우선 63년도에 문교부가 제정한 국사교과서 내용 통일 편수지침이 20여년이 흐르도록 거의 개정되지 않고 사용돼온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0—70년대를 거치면서 국사학이 얼마나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까? 그러나 교과서는 이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만 거듭했을 뿐 큰 틀은 전혀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국시대 초기 부분의 공백 문제 같은 거지요.<sup>27)</sup>

문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서 개편 실무 담당관인 장학편수실에 역사교육연구관을 1986년 9월 1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가칭 역사교과서통일안심의 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1986년 10월 20일 국사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사교육심의위원회는 5개 분과로 구성되었는데 그 위원은 학문 및 학설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각계의 추천을 받아 다음과 같이 선임하였다.

- ▲고고미술분과 : 孫寶基(연세대) 尹武炳(충남대) 金元龍(서울대) 金貞培(고려대) 鄭永鎬(교원대) 安輝濬(서울대) 朴容鎭(혜화여고교장, 겸임)
- ▲고대사 : 文暻鉉(경북대) 李基東(동국대) 申滢植(이화여대) 尹乃鉉(단국대) 金貞培(고려대, 겸임) 朴成壽(정신문화연구원, 겸임), 邊太燮(서울대, 겸임)
- ▲중·근세사 : 邊太燮(서울대, 겸임) 河炫綱(연세대) 朴龍雲(고려대) 韓永愚(서울대) 元裕漢(동국대) 宋俊浩(전북대) 李元淳(서울대, 겸임)
- ▲근·현대사 : 李光麟(서강대) 柳永益(한림대) 李炫熙(성신여대) 朴永錫(국사편찬위원장) 趙東杰(국민대) 朴成壽(정신문화연구원, 겸임)
- ▲역사교육 : 康宇哲(이화여대) 李元淳(서울대) 尹世哲(서울대) 金興洙(춘천교대) 金光男(국사편찬위원회) 金正義(한양여전) 崔秉燾(서울기계공고) 文暻鉉(경북대, 겸임) 朴容鎭(혜화여고교장, 겸임)<sup>28)</sup>

그리고 국사교육심의회 위원들은 변태섭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고, 김정배, 이기동, 신형식,(이상 고대) 하현강(고려), 한영우(조선), 조동걸(근대 이후), 김홍수(역사교육) 등으로 교과서 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했다.<sup>29)</sup> 이러한 국사교육심의회 위원 선정에 대해 유사사학계에서는 위원수가 적으며 식민사관에 젖어있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며 비판하고 심의위원의 개편을 촉구하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독자적인 심의기구를 만들어 국민의 심판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sup>30)</sup>

이들에 의해 제5차 교육과정기 중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이 마련되었는데, 중학교 국사교과서는 邊太燮을 대표로 김정배, 한영우, 이기동, 조동걸, 신형식, 김홍수, 하현강이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을 1986년 제출하였으며, 국사교육심의회에서는 1987년 6월 5일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을 최종 발표하였다. 이 준거안에 따르면 고대사 부분은 17개항, 중·근세사 부분은 8개항, 근·현대사 부분은 6개항, 일반·역사교육 부분은 4

27) 『조선일보』 1986년 8월 30일, 「국사 문제 근본 변혁할 계기 왔다」.

28) 『조선일보』 1986년 11월 6일, 「고대사 대폭 강화 국사교육 혁신」.

29) 『조선일보』 1986년 11월 6일, 「고대사 대폭 강화 국사교육 혁신」.

30) 『경향신문』 1986년 11월 22일, 「국사교과서 개정 고대사부터」.

개항으로 모두 34개항으로 구성되었다.<sup>31)</sup> 이는 1987년 발표되었던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시안의 24개항을 수정하고 새로이 11개항을 신설, 추가한 것이다. 이 중 고대사 부분에 신설 항목이 5개항이며, 수정항목이 6개항<sup>32)</sup>인 것에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고심한 시대가 고대사 부분인 것을 알 수 있다. 신설된 항목은 ① 구석기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하고 새로운 발굴성과를 반영한다 ② 백제의 중국 요서지방 진출 사실을 명시, 3국인의 해외활동 모습을 부각시킨다. ③ 3국 및 가야인의 일본 진출과 이들의 문화전파로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명기한다. ④ 3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주체적인 민족주의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특히 당군 축출을 위한 신라인의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 ⑤ 통일신라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특성을 부각시킨다. ⑥ 신라 말기와 고려 초기에 새로운 사회체력으로 호족들이 대두, 종래 고대적인 골품체제가 해체되고 중세적인 사회체제가 형성되었음을 설명한다. ⑦ 고려 전시과로 대표되던 토지제도와 1/10 수취제도 등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새로운 성격이 나타났음을 서술한다. ⑧ 조선후기에는 중인계층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각됨을 설명한다. ⑨ 한말까지의 단원을 개화, 개혁, 구국운동을 중심개념으로 구조화, 개혁운동은 동학운동, 갑오경장, 광무개혁 등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구국운동은 러일전쟁 후의 주권수호 노력과 의병전쟁 및 계몽운동을 포괄해 구성한다. ⑩ 국민학교는 생활사, 인물사 중심으로, 중학교는 정치사, 시대사 중심의 통사로, 고등학교는 문화사, 사회경제사 중심의 주제사적 접근으로 구조화한다. ⑪ 단원은 고등학교는 선사-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의 시대구분을, 중학교는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등이다.<sup>33)</sup> 이 중 고대사는 ①~⑤, 중·근세사 분야는 ⑥~⑧, 근·현대사 분야는 ⑨, 일반 및 역사교육 분야는 ⑩~⑪이다. 이외에도 국사교육심의회는 고조선의 성립이 청동기문화 위에 전개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형성이었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히 하며, 기자조선을 고조선의 정치 변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위만 이전의 고조선 정치사를 보강, 실존 인물의 활동을 부가하고, 한사군을 서술하되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명기하고, 임나일본부설은 고등학교에서만 서술하며, 발해사의 서술 비중을 높이하는 등 6개항을 고대사 부분에서 수정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이 국사교육심의회에서 작성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이 발표되었으나 국사교육심의회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했던 것 같다. 이를 다음과 같은 이기동 교수와 윤내현 교수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국사연구의 성과가 곧바로 국사교육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국사교육심의회원으로 참여하면서 단군조선 등 논란이 많은 문제에 대해 학계가 재야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고 느꼈다. 어느 경우는 학계의 연구 성과보다 교과서 편찬준거안이 지나치게 앞서가지 않나 생각된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시급한 일은 눈앞에 닥친 교과서 개편 작업 자체보다 훌륭한 교과서를 산출해내기 위한 학문 풍토의 조성이다. 상고사 논란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연구가 안돼 있다는 것이다. 연구비 나눠먹기식의 기존 연구 풍토를 지양, 상고사의 쟁점 해결을 위한 짜임새 있는

31)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10·11, 역사실학회, 1999, 753~756쪽. 이 글에서는 34개항이 소개되었으나 언론 보도에는 중·근세사 부분이 이 글보다 1개항이 많은 8개항으로 소개되어 모두 35개항이다. 이 글에는 7항 ‘조선후기에는 중인계층이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중요한 위치로 부각됨을 설명함’이 생략되어 있다. (『동아일보』 1987년 6월 6일, 「확정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 : 『경향신문』 1987년 6월 6일, 「국사교과서 편찬 준거(확정)안」. : 『조선일보』 1987년 6월 6일, 「국사교과서 편찬준거 확정안」.).

32) 『동아일보』 1987년 6월 6일, 「확정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

33) 『조선일보』 1987년 6월 6일, 「고조선이 최초 국가 명기」.

34) 『조선일보』 1987년 6월 6일, 「고조선이 최초 국가 명기」.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준거안의 상고사 부분에는 아직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첫째, 고조선을 어떤 형태의 국가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고조선을 군장국가로 본다면 그것은 국가 단계로 보지 않는 것이 된다. 군장국가는 영어의 Chiefdom을 번역한 말인데 이것은 국가 이전의 사회 단계를 말한다. 고조선은 연맹왕국 또는 봉건제 국가로 서술되어야 한다. 둘째, 청동기문화의 개시연대이다. 요령성지역의 청동기 개시연대를 중국에서 발표, 국제학계에서 공인된 서기전 2천4백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서기전 9세기나 5세기를 채택한다면 그 이전은 국가 단계가 아니었다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단군조선은 부정되는 것이다. 셋째, 기자조선의 실재를 부정한다고 하면서 기자의 후손인 畝王, 準王 등을 고조선 왕으로 서술한다고 했으니 기자조선이라는 명칭만 제거하고 그 실체를 고조선이라는 명칭으로 둔갑시켜 史實을 왜곡하는 결과가 된다. 이상과 같은 점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준거안에 수정, 보충, 삽입되어야 한다.<sup>35)</sup>

그런데 한국상고사에 대한 이러한 논란은 이미 1970년대부터 유사사학계에서 제기되어 왔던 것이며, 유사사학계의 주장은 전두환 정권기에 더욱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대변한 것이 앞서 본 『조선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유사사학계의 주장을 수용하여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이 제정되기 직전인 1987년 2월 25·26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상고사의 제문제」를 주제로 한 학술회의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 학술회의는 한국사학계가 외면하다시피 했던 단군조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동시에 학계와 ‘재야’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토론한다<sup>36)</sup>는 측면에서 언론의 관심을 크게 받았다.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에 대한 국사교육심의회 내의 이러한 이견은 국사교과서 편찬을 위한 물리적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봉합,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의 발표에 대해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는 등의 기획기사로 국사교육에 대한 새로운 틀을 설정할 것을 주장한 『조선일보』는 1987년 6월 7일 사설 「금지 주체 과학성-국사교과서 개편안에 붙여-」에서 “국사교과서가 덮어놓고 국수주의적 쪽으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다. 가치있는 문헌이나 새로운 발굴 자료의 학술적인 활용을 따라서 민족의 자존과 긍지를 보다 더 과학적으로 한껏 살리는 방향이면 된다. 앞으로의 집필 과정에서 그런 기본 자세와 방향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라며, 장차 ‘국정에서 검인정으로’ 더 다양해지도록 하기를 거듭 촉구한다”며 이를 환영하였다. 문교부는 이렇게 확정된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을 바탕으로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진을 구성, 편찬작업에 들어가도록 하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는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도록 연구를 위탁하여 1987년 12월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최용규, 최석진)이 보고되었다.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은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1. 종래의 국민정신교육의 내용을 일층 체계화하고 그 위에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자주인, 창조인의 육성에 주력한다. 즉 자주적 탐구 능력, 역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민족사와 민족문화의 특수성을 세계사의 보편성 안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능력 등을 강조

35) 『조선일보』 1987년 6월 9일, 「짜임새 있는 공동작업 필요 …… 검인정 환원을」.

36) 『경향신문』 1987년 2월 23일, 「단군조선은 역사적 실체」. : 『조선일보』 1987년 2월 24일, 「상고사 쟁점 대 토론 벌인다」. : 『경향신문』 1987년 2월 27일, 「상고사 공방 방청 초만원」. : 『동아일보』 1987년 2월 27일, 「상고사 학술회의 방청객 8백여명 험악해진 역사 토론 현장」.

한다.

2. 학교급별 내용 구조의 계열을 특성화한다. 즉 중학교 국사가 정치사를 주로 하고, 중요한 사실과 사실 간의 인과관계 탐구에 치중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고등학교 국사는 문화사와 사회경제사를 강조하고 역사의 주요 개념을 활용한 한국사의 구조적 이해에 초점을 두어 조직한다.
3. 효율적인 학습 지도 및 평가 방안을 구현한다. 지식 중심의 역사학습을 지양하고 사고 중심의 역사학습이 되도록 역사적 의미의 탐구를 통한 역사적 사고력의 신장과 역사의식의 계발을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강조한다.
4.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신을 반영한다. 즉 교육과정의 지역화 정신을 구현하는 방안으로서 교과 목표와 지도상의 유의점에서 향토사 학습 또는 지역 사회 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5.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진술 체계를 구체화한다. 즉 교수·학습 활동의 기본적 지침인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원 안내문에서 역사 이해의 뚜렷한 방향을 제시하고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보다 구체화한다.<sup>37)</sup>

실제 확정된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의 국사과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1.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의 구현 강조, 2. 학교급별 내용 구조의 특성화, 3. 학습지도 및 평가방안의 구체화, 4. 교육과정 지역화 정신 반영, 5. 교육과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진술체계의 구체화, 상세화 등 5가지이다.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은 “시대구분에 따라 대단원을 설정한 후 각 단원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별 중단원을 설정하고 이들을 각각 탐구 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고등학교 국사과의 내용 구조는 이른바 ‘연대사적 구조와 분야사적 구조의 절충’이란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국조는 중학교 국사의 ‘연대사적 구조와 주제 중심 구조의 절충형’과 비교할 때 ‘분야사’의 중시라는 점에서 학교급별 특성이 부각”되는 것이었다.<sup>38)</sup>

그런데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상권은 1990년 3월 1일 발행되었으나 하권은 9월 1일 발행되었다. 이와 같이 발행시기가 다른 것은 편찬작업이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1990년 1월 20일 현재 국사교과서는 인쇄 단계에 들어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필 방향, 내용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sup>39)</sup> 이에 대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申載洪은 “새 교과서의 편찬 일정,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숨긴 적은 없다.”며 “교과서 집필 초고를 토대로 각 도별 학교에서 현장 검토를 실시하고 각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기도 했다.”<sup>40)</sup>고 밝혔다. 그러나 앞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 일본의 역사왜곡과 유사사학계의 도전에 대응한 것이었으므로 한국사학계와 유사사학계 또는 학계 내부의 학설에 따라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필 내용이 알려지면 집필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sup>41)</sup>

37) 최용규·최석진,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87, 1~2쪽.(쪽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인용자가 목차 이후 본문이 시작되는 쪽을 1쪽으로 설정하였다.)

38)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72~73쪽.(쪽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의 PDF 파일의 쪽수로 표기하였다.)

39) 『조선일보』 1990년 1월 20일, 「개정 국사교과서 제작·배포 지연 수업 준비 부실 교사들 불만」.

40) 『조선일보』 1990년 1월 20일, 「개정 국사교과서 제작·배포 지연 수업 준비 부실 교사들 불만」.

41) 『조선일보』 1990년 1월 20일, 「개정 국사교과서 제작·배포 지연 수업 준비 부실 교사들 불만」.

### 3.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 변화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사건에 이어 1986년 일본 역사교과서 『신편일본사』가 검정 통과되어 한국 정부는 국사과 교육과정에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어떠한 형태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에 대응하여 1983년 펴낸 국사교과서에 비해 그 서술 분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서술 내용도 소략한 편이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1982년과 1987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거듭되는 과정에서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일본과의 외교적 갈등 해소를 도모했던 한국 정부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간에 역사교과서와 관련한 외교적 합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여기에서는 일본 정부가 『신편일본사』의 한국사 왜곡 기술 중 수정했다고 통보해온 기술과 한국사연구협의회가 지적한 『신편일본사』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각각 <표 1>, <표 2>에서 살펴보자. 다만 <표 2>에서는 <표 1>과 중복되는 大和 조정과의 관계(임나경영설), 정한론, 안중근의사, 3·1운동에 대해서는 비교를 생략한다.

<표 1>, <표 2>를 통해 『신편일본사』에 대응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을 살펴보자. 먼저 전근대사 서술에 대해 보면 대화 조정과의 관계, 즉 임나경영설에 대해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인 1982년판과 1983년판 국사교과서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인 1990년판은 각각 가야가 “일본지역에 진출하여 그곳과 연결하는 무역이 크게 발달”와 “철의 생산과 중계무역을 통하여 발전”했으며 “5세기경 고구려와 신라의 압력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고 서술함으로써 임나경영설을 부정했으나 1982년판과 1983년판이 부정의 의미가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신편일본사』에서 “중국 동북구 남부로부터 조선반도 북부에 걸친 지역을 직할지로 하여 낙랑군 이하 4군을 설치”하였다고 한 한4군에 대해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는 “한은 고조선을 넘어뜨린 후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1982년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sup>42)</sup>을 두었다.”(1983년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1990년판)으로 서술하여 한4군이 고조선 전역에 설치된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서술이 변화하였으며,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한4군이라는 용어 대신 한 군현이 사용되었으며, ‘낙랑, 진번, 임둔, 현도’의 4군의 지명은 삭제되었다. 그리고 제4차 교육과정기에는 우리 민족이 한4군을 축출하여 발전하였다고 서술하였으나 제5차 교육과정기에는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한 군현의 세력이 약화되었으며, 결국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며 한 군현의 소멸 과정을 강조하여 서술하였다. 또 한 군현 설치 이후 고조선 사회의 변화 모습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백제로부터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헌상”하였다고 서술한 『신편일본사』의 서술과 같은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에 대해서는 1982년판과 1983년판은 대동소이하게 서술되었으나 1983년판에 “특히, 현재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불상은 그 형태미나 특징으

42)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요서 지방설이 있다.



로 보아, 거의가 삼국에서 전해진 것이다.”고 서술하여 일본 불상 대부분이 삼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서술했으나 1990년판에는 ‘삼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서술하여 확정적인 표현을 완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판에는 “삼국시대에 우리 나라 유이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선진 기술 문화를 전해 주어, 아마도 정권의 탄생 및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의 기반을 이룩하였다.”고 서술하여 1982년판과 1983년판보다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의 결과와 영향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호류사의 금당벽화가 인도나 중국의 양식을 전하고 있다는 『신편일본사』의 서술을 비판하듯이 호류사 금당벽화는 담징이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는 서술을 모두 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구원 요청에 따라 왜군이 출병하여 백촌강에서 당군에 패배하였다는 백촌강 전투 이후 백제왕족 이하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 귀화하였다는 『신편일본사』의 서술에 대해서는 신라군이 매소성 전투, 기벌포 전투 등에서 당군을 대파하고 당의 세력을 축출하여 삼국통일을 이룩하였다고 서술하여 백촌강 전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당군 축출 과정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그리고 백촌강 전투 이후 견당사가 잠시 뜬하였다고 서술한 『신편일본사』의 서술에 대해서는 일본이 견신라사를 파견하여 통일신라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였다고 서술하였다. 이는 삼국시대 이래 통일신라시대에도 일본이 한반도의 선진문물을 수용하였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근대사 서술에 대해 살펴보자. 『신편일본사』는 정한론에 대해 1990년판 국사교과서는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 정도로 서술하여 정한론에 대해 적극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1982년판과 1983년판 국사교과서에 적극적으로 비판한 것과는 비교된다. 운요호사건에 대해서 1990년판 국사교과서는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왔으며 그 결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서술을 하였다. 1982년판과 1983년판에서 운요호의 포함외교를 미국으로부터 당한 일본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본이 계획적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서술한 것과 비교된다. 한일의정서의 체결에 대해서는 “전략적 교두보를 선점하고자 한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이 점령당하였다.”고 서술하여 『신편일본사』의 “일로개전 직후인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에 강요하여 일한의정서를 맺고 한국 영내에서의 일본군의 자유행동 권리를 인정시켰다.”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1983년판에는 2개 사단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했다는 서술과 일제의 내정간섭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도 서술한 것과 비교하면 그 서술 내용이 매우 간략하였다. 또한 『신편일본사』 원고본에서는 안중근의사를 ‘장사’, 즉 ‘건달’이라 서술하였던 것은 ‘지도자’로 수정하였으나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였다고 하였으나 국사교과서에서는 ‘사살’하였다고 서술하여 한일 간 역사교과서 서술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1운동 서술에서는 『신편일본사』 원고본에서는 시위운동이 유혈참사를 야기했다고 하여 유혈참사의 책임이 한국민에게 있다고 하였으나 수정본에서는 “군대가 출동하여 유혈참사가 되었다”고 하여 유혈참사의 책임이 일본측에 있다고 수정하였다. 그러나 『신편일본사』의 서술은 한국민에 대한 탄압과 학살의 주체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국사교과서에서는 헌병 경찰, 육군, 해군을 적시하였다. 그런데 1982년판에는 3·1운동 참가자 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1983년판에는 200여만 명, 시위횟수도 1500여 회라 명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주로서 3·1운동이 전국 218개군 가운데 211개군이 참가하였고, 만주, 연해주 등지로도 번져 나갔다는 것을 보충 설명하였다. 또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합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씩 사상자를 내었으며, 수원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들을 교회에 집합시킨 후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무수한 사

람들이 투옥당하고, 일본 경찰로부터 비인도적인 악형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며 일제의 학살 행위 사례를 명시하였다. 1990년판에는 여기에 더해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총 2,023,098명이며, 일본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은 7509명, 부상자는 15,961명, 체포된 사람은 46,948명이었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는 통계를 덧붙였다. 그리고 『신편일본사』에서는 “조선, 대만 출신의 청년도 징병되어 전투에 참가했다”고 서술한 징병에 대한 서술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서술이 1990년판 국사교과서에는 서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징병에 관한 서술이 없다는 것은 1930년대 중후반 이후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서술이 이루어진 것은 “‘민족문화수호운동’에서는 일제의 민족말살정책에 저항하여 전개된 민족문화 수호운동을 언론, 학문, 교육, 종교, 문학, 예술의 분야별로 정리”<sup>43)</sup>한다는 ‘근대사회의 발전’ 단원의 해설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민족말살정책의 내용보다는 그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을 중심으로 서술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신편일본사』의 역사왜곡에 대한 정면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근현대사 서술에서 이러한 경향이 명확히 보인다. 정용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정한론·운요호사건·한일의정서·3·1 운동 등에 대한 서술은 1982년판과 1983년판보다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제6공화국 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

43) 『문교부 고시 제88-7호(1988.3.31.)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96쪽(쪽수는 국가교육과정 정보센터의 PDF 파일 쪽수임.).

<표 1> 『신편일본사』 한국 관계 기술 및 수정 내용<sup>44)</sup>

	신편일본사 원고본	수정내용	1982년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1983년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1990년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
大和조정의 대외관계	大和조정은 반도의 철 자원이나 선진기술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세기 후반 경 조선의 낙동강 하류지역의 伽羅(任那)지방에 진출하여 거점을 마련했다고 생각된다. (……) 대화조정은 (……) 조선 남부의 군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높은 작호를 얻으려고 했다. 이것은 중국 황제의 권위에 의해 일본의 조선반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장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혀 수정 없음	가야연맹체 세력은 낙랑, 대방, 일본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특히 일본지역에 진출하여 그곳과 연결하는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대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백제와 신라에게 분할 점령되고 말았다.(23쪽)	가야세력은 낙랑, 대방, 일본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특히 일본지역에 진출하여 그곳과 연결하는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고대왕국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백제와 신라에게 분할, 점령되고 말았다.(24쪽)	가야연맹은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하면서 철의 생산과 중계무역을 통하여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5세기경 고구려와 신라의 압력으로 큰 타격을 받고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33~34쪽)
정한논쟁	우리나라(일본)는 …… 조선에 대해 …… 다시 국교를 열려고 했다. 이에 대해 청국을 중주국으로 한 조선은 종래의 관례와 다르다고 하여 국서의 수령을 계속 거부했다. 이리하여 일본측은 사태를 타개하지 못한 채 (……) 군대 파견을 주장했다. 그러나 參議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조선에 건너가 開國을 설명하여 사태의 타개를 시도하자고 주장했다.	정한논쟁이란 표현 삭제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강화되고 있을 때 일본은 메이지유신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성립을 조선에 알리면서 다시 수교할 것을 청해왔다. 그러나 조선측에서는 일본이 보내온 국서의 내용이 매우 오만하여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조선을 침공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 침공의 적당한 시기를 얻기까지는 계속 부국강병책으로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보다 강하여 정한론은 일단 후퇴되었다.(65쪽)	홍선 대원군의 쇄국정책이 강화되고 있을 때 일본은 메이지유신에 의한 새로운 정부의 성립을 조선에 알리면서 새로 수교할 것을 청해왔다. 그러나 조선측에서는 일본이 보내온 국서의 내용이 매우 오만하다 하여 거절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조선을 침공하자는 정한론(征韓論)이 일어났다. 그러나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 침공의 적당한 시기를 얻기까지는 계속 부국강병책으로 국력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보다 강하여 정한론은 일단 후퇴되었다.(67~68쪽)	메이지 유신 이후 근대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자본주의화를 서두르면서 해외 진출을 시도하고 있던(76쪽)
강화도사건	강화도 근해에서 측량 등의 시	명치 8년(1875년) 강화도 근	쇄국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이	일본은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44) 『조선일보』 1986년 7월 9일, 「신편일본사 한국 관계 기술 및 수정 내용」. <표 3>의 국사교과서의 서술 내용은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1982년판은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초판, 1983년판은 1982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에 대응해 1982년판을 개정해 펴낸 개정판 초판, 1987년판은 『신편일본사』의 검정 통과에 따른 국사교과서의 서술 변화를 찾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1990년판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초판이다.

	위 등을 한 일본군함이 한국포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일본측도 보복공격을 가했다.	해에서 측량을 포함한 시위행동을 한 일본군함이 조선의 포대로부터 공격을 받고 일본측도 포격을 가했다.	정권에서 물러나자 일본은 미국 등으로부터 그들이 당한 전례를 모방하여 포함외교를 펴, 사전 계획에 의한 운요호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어 군함과 군인을 강화도에 보내어 위협적으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폈다.(66쪽)	정권에서 물러나자 일본은 미국 등으로부터 그들이 당한 전례를 모방하여 포함외교를 펴, 사전 계획에 의한 운요호호 사건을 일으키고 이어 군함과 군인을 강화도에 보내어 위협적으로 조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폈다.(68~69쪽)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강요해 왔다. 그리하여 조선은 마침내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1876)(76쪽)
한일의정서	일본은 한국과 일한의정서를 맺어 한국 영내에서의 일본군의 자유행동 권리를 얻었다.	일로개전 직후인 1904년 2월 일본은 한국에 강요하여 일한의정서를 맺고 한국 영내에서의 일본군의 자유행동 권리를 인정시켰다.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 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에 병력을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로 하는 장소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일본의 내정간섭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일의정서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였다(1904). 이에 따라 국외 중립은 무너지고 러시아와 맺었던 모든 조약이 폐기되었다. 그후 전세가 유리해짐에 따라 일본은 한국 식민지화 계획안을 확정하고 한국의 통신망과 항해권을 차지하였으며 경의선과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였다.(102쪽)	러일전쟁이 일어나자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 속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전쟁 도발과 동시에 한국 침략의 발판을 굳히고 한국에 대한 우월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2개 사단의 병력을 한국에 투입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를 점령하고 일본군이 전략상 필요로 하는 장소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고 일제의 내정간섭 충고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한·일의정서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였다(1904). 이에 따라 국외중립은 무너지고 러시아와 맺었던 모든 조약이 폐기되었다. 그후 전세가 유리해짐에 따라 일제는 한국 식민지화 계획안을 확정하고 한국의 통신망과 항해권을 차지하였으며, 경부선과 경의선 철도를 부설하였다.(103~104쪽)	러일전쟁이 일어날 무렵 대한제국은 양국의 전쟁에 말려들지 않으려고 국외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교두보를 선점하고자 한 일제의 강요에 의해 한일의정서가 체결되어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군사적 요지와 시설이 점령당하였다.(130쪽)
안중근의사	하얼빈에서 한국 독립의 壯士 안중근(安重根, 1879~1910)에게 살해되어 이를 계기로 합병문제가 급속히 진전되었다.	1909년 전 통감 이등박문이 하얼빈역에서 한국독립운동의 지도자 안중근에게 살해되었다. 다음해 8월 일본은 한국에 강요하여 합병조약을 조인케 하여 ……	의병의 항전이 전국에서 계속되는 동안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요 대륙 침략의 선두에 나섰던 이토오를 사살하였고(110쪽)	의병의 항전이 전국에서 계속되는 동안 연해주 일대에서 의병을 이끌고 이범윤과 항일진을 전개하고 있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요 대륙 침략의 선두에 나섰던 이토오를 사살하였고(112쪽)	의병으로 활약하던 안중근은 만주 하얼빈역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101쪽)

3·1운동	일한병합 이래 조선의 독립운동은 끈질기게 확대되어 갔으나 …… 3월 1일 서울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집회가 행해져 독립만세소리가 높아졌다. 드디어 이것이 유혈참사를 야기시켜 군대가 출동하기까지 격렬히 끌어올랐다.	조선에서는 일한병합 이래 독립운동이 뿌리깊게 번져 나갔으나 일손의 민족자결 제창에 격려되어 대정 8년 서울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집회가 열려 독립만세소리가 높아졌다. 드디어 이것이 전국에 급격히 번져나가 군대가 출동, 유혈참사가 되었다.	서울 파고다공원에서는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중략) 일본은 크게 당황한 나머지 헌병경찰은 물론 육·해군까지 긴급 출동시켜 평화적으로 시위하며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민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살상하거나 흉기로 난자하여 목숨을 앗아갔고 인가와 학교 등 공공건물을 방화, 파괴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다. 이때 일본 관헌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었고 투옥당한 사람만도 5만여명에 달하였으며, 많은 가옥과 학교, 교회 등이 소각되었다.(129~130쪽)	서울 파고다공원에서는 사전에 계획했던 대로 (중략) 이 운동에 참가한 인원 수는 200여만명에 달하였고, 시위 횡수도 1500여회나 되었다. <sup>45)</sup> 일제는 크게 당황한 나머지 헌병경찰은 물론 육·해군까지 긴급 출동시켜 평화적으로 시위하며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는 민중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살상하거나 흉기로 난자하여 목숨을 앗아갔고 <sup>46)</sup> 인가와 학교 등 공공건물을 방화, 파괴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하였다. 이때 일본 관헌에 의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상되었고 투옥당한 사람만도 5만여명에 달하였으며, 많은 가옥과 학교, 교회 등이 소각되었다.(131~133쪽)	이에 크게 당황한 일제는 헌병경찰은 물론 육·해군까지 긴급 출동시켰다.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정당한 요구를 주장하던 우리 민족은 무차별 총격에 의하여 살상되었고, 가옥과 교회, 학교 등 건물이 방화, 파괴되는 등 수난을 당하였다. <sup>47)</sup> (137쪽)
관동대지진	혼란 중에 유언비어가 돌아 조선인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고 오해한 自警團 등이 다수의 조선인을 학살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혼란 중에 조선인에 불온한 움직임이 있다는 유언이 번져 여기에 속은 자경단 등은 다수의 조선인을 학살하는 참혹한 사건이 생겼다.	서술 없음	서술 없음	서술 없음
징용	조선, 대만 출신의 청년도 군에 편입되어 전선에 나갔다.	조선, 대만 출신의 청년도 징병되어 전투에 참가했다.	정신적 학대와 물질적 수탈만이 아니라 우리 청년을 전선으로 몰아내기 위해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더니 마침내는 징병제로 바꾸었다. 한편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장정을 전쟁터나 군수공장에 징용으로 끌어들여 희생시키기도 하였다.(148~149쪽)	일제는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식량과 각종 물자를 수탈해 갔을 뿐 아니라 우리 청년을 전선으로 몰아내기 위해 지원병제도를 실시하더니 마침내는 징병제로 바꾸어 일본, 중국, 인도차이나, 남양군도 등지로 강제 동원하였고, 여자들까지 칩락 전쟁의 희생물로 삼기도 하였다. 한편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장정들을 전쟁터나 군수공장에 징용으로 끌어들여 위험한 노동 조건 속에서 노예와 같이 혹사하여 수많은 장정이 희생되기도 하였다.(151쪽)	서술 없음

한일기본조약	한국과의 국교는 소화 40년(1965)에 정상화되고 양국은 기본조약을 체결했다. 한국과의 관계는 극히 복잡한 결과를 거쳐 병합이 가져온 각가지 폐해는 한국인에게 깊은 반일감정을 심어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반성을 더해가면서 새로운 일한관계 확립에 힘쓰고 있다.	일한관계는 합병과 그 이후 정책에서 한국인에게 깊은 반일감정을 심어왔으나(주2) 소화 40년 佐藤 내각은 일한교섭을 매듭지어 일한 기본조약과 제협정을 체결, 국교를 정상화했다. (주2)-소화 10년대에는 창씨개명 등 황민화정책이 취해져 민족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추가됐음)	적극적인 외교활동 퍼 민주 우방을 포함하여 중립국과도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또 자유당 정부 이래 추진하던 한-일 간의 국교도 정상화시키는 등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169~170쪽)	적극적인 외교활동 퍼 민주 우방을 포함하여 중립국과도 외교관계 개선에 주력하였다. 또 자유당 정부 이래 추진하던 한-일 간의 국교도 정상화시키는 등 우리의 국제적 지위를 향상시켰다.(171~172쪽)	서술 없음
--------	---	--	---	---	-------

한편 <표 1>에서 소개하지 않은 수정 내용 이외에도 일제의 조선 강점에 대해서는 ‘합병조약이 조인되어’를 ‘강요하여 조인시켜’로, 제2차 한일협약에 대해서는 ‘외교권 접수’를 ‘외교권을 손에 넣어’로, 대통령 전두환의 방일에 대해서는 ‘전두환 대통령도 방일하여 양국 간의 우호친선을 맹세’를 ‘전두환 대통령의 내일에 의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일한 신시대로 불릴 단계에 이르렀다’로 수정하였다.<sup>48)</sup> 또한 기술하지 않았던 창씨개명을 소개하기는 하였으나 신사참배, 토지약탈, 일본어 강제 교육 등에 대해서는 전혀 서술하지 않았다.<sup>49)</sup>

45) 이 운동은 전국 218개군 가운데 211개군이 참가하였고, 만주, 연해주 등지로도 번져 나갔다.

46)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함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씩 사상자를 내었으며, 수원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들을 교회에 집합시킨 후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또한 시위에 참가한 이유로 무수한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일본 경찰로부터 비인도적인 악형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47) 정주, 사천, 맹산, 수안, 남원, 함천 등지에서는 일본 군경의 총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내었으며, 화성 제암리에서는 전 주민들을 교회에 집합시킨 후 감금하고 불을 질러 학살하였다. 또,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무수한 사람들이 투옥당하고, 일본 경찰로부터 비인도적 악형을 당하여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유관순의 순국 사실은 이를 잘 말해 주고 있다. 3·1 운동 당시, 만세 시위에 참가한 인원은 총 2,023,098명이며, 일본 군경에게 피살당한 사람은 7509명, 부상자는 15,961명, 체포된 사람은 46,948명이었고, 헐리고 불탄 민가가 715호, 교회가 47개소, 학교가 2개소였다.

48) 『경향신문』 1986년 7월 8일, 「일 왜곡교과서 20개항 시정」.

49) 『동아일보』 1986년 7월 8일, 「일 교과서 왜곡 핵심 둔 채 인가」.

<표 2> 한국사연구협의회가 분석한 『신편일본사』의 한국사 서술에 대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서술(50)

왜곡 항목	『신편일본사』	1982판 국사교과서	1983판 국사교과서	1990년판 국사교과서
일본열도	일본사의 주무대가 된 일본열도는 ‘열도화된 후에도 한편으로는 가까운 대륙이나 조선반도의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바다 건너 대륙의 정치, 군사 정세에 직접 끌려 들어가거나’ 이민족이 대거 들어오는 일도 거의 없었다.			
한4군	한무제는 강력하게 판도를 넓혀 기원전 108년 중국 동북구 남부로부터 조선반도 북부에 걸친 지역을 직할지로 하여 낙랑군 이하 4군을 설치하였다. 그 전후부터 한문화는 점차 우리나라(일본)에도 미치어 왔다.	한은 고조선이 자기네들의 무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을 위협하였으므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고조선은 이에 대항하여 1년간이나 싸웠으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망하였다.(B.C.108). 한은 고조선을 넘어뜨린 후 낙랑, 진변, 임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계속 발전하면서 이들을 축출하였다.(11~12쪽)	한은 고조선이 자기네들의 무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요동지역을 위협하였으므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고조선은 이에 대항하여 1년간이나 싸웠으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망하였다.(B.C.108).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 진변, 임둔, 현도의 4군(51)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축출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12쪽)	한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의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완강하게 대항하였으나, 마침내 왕검성이 함락되어 고조선은 멸망하였다(B.C. 108). 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려 하였으나, 지역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 (중략) 한의 군현이 설치된 이후 억압과 수탈을 가하게 되자, 토착민들은 그것을 피하여 이주하거나 단결하여 한 군현에 대항하였다. 이에, 한 군현인들은 엄한 율령을 실시하여, 자신들의 생명과 수탈한 재산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법 조항도 60여 조로 증가되었고, 풍속도 각박해졌다.(20쪽)
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	應神天皇대에 백제로부터 王仁이 논어와 천자문을 헌상하고 태자인 菟道稚郎子が 왕인을 스승으로 섬기면서 제전적을 배웠다고 전하는 것은 한자를 전했다는 상징적인 전승인 것이다. 西文氏	<b>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b>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토착 사회의 일본인을 교화시켜 일본의 고대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주었다. 그중에서도 백제	<b>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b>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토착 사회의 일본인을 교화시켜 일본의 고대문화를 형성, 발전시켜 주었다. 그중에서도 백제	(5)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 <b>삼국 문화의 일본 전파</b>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간 우리 나라 사람들은 토착 사회의 일본인을 교화시켰다. 백제의 아직기와 왕

50) 『통일한국』32, 평화문제연구소, 1986, 42~44쪽. <표 4>의 국사교과서의 서술은 필자가 작성한 것이다.

	<p>는 왕인의 자손으로서 대대로 문필을 맡아 출납을 담당하면서 조정에 봉사하였다.</p>	<p>문화의 영향이 가장 컸다. 백제의 아직기와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서 한문을 가르쳤는데, 이 때 한학은 일본인에게 문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유교의 충효 사상도 보급시켜 주었다. 또, 불교, 불상, 경전과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 그리고 미술, 공예 기술자도 보냈다. 그 같은 영향으로 5층탑도 세워지고, 백제 가람이라는 건축 양식도 생겼다. 한편, 고구려도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오류우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 신라에서는 축제술과 조선술을 일본에 전하였으며, 특히 축제술의 전파는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겼다. 이 밖에,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서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등의 이름까지 생기거나 일본 음악의 주류를 이루어 주었다.(43~44쪽)</p>	<p>의 아직기와 왕인은 일본에 건너가서 한문을 가르쳤는데, 이 때 한학은 일본인에게 문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유교의 충효 사상도 보급시켜 주었다. 또, 불교, 불상, 경전과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 그리고 미술, 공예 기술자도 보냈다. 그 같은 영향으로 5층탑도 세워지고, 백제 가람이라는 건축 양식도 생기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도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오류우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불상은 그 형태미나 특징으로 보아, 거의가 삼국에서 전해진 것이다. 신라에서는 축제술과 조선술을 일본에 전하였으며, 특히 축제술이 전파되어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밖에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등의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일본 음악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45~46쪽)</p>	<p>인은 일본에 건너가서 한문을 가르쳤는데, 이 때 한학은 일본인에게 문학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유교의 충효 사상도 보급시켜 주었다. 또, 백제는 불교, 경전, 불상과 5경 박사, 의박사, 역박사, 그리고 화가와 공예 기술자들을 보냈다. 그와 같은 영향으로 5층탑도 세워지고, 백제 가람이라는 건축 양식도 생기게 되었다. 한편, 고구려도 일본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류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불상은 그 형태미나 특징으로 보아, 거의가 삼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서는 축제술과 조선술을 일본에 전하였는데, 특히 축제술의 전파로 한인의 연못이라는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 밖에, 삼국의 음악도 전해져서 고구려악, 백제악, 신라악 등의 이름까지 생기게 되었으며, 일본 음악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듯, 삼국 시대에 우리 나라 유이민들이 일본 열도에 건너가 선진 기술 문화를 전해 주어, 야마토 정권의 탄생 및 일본 고대 아스카 문화의 기반을 이룩하였다.(80~82쪽)</p>
<p>회화</p>	<p>회화에서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기품 있는 필치로 그린 범룡사 금당벽화가 있는 바 인도나 중국의 양식을 전하고 있다. 또 高松塚 고분의 벽화도 이 시대의 작품이다.</p>	<p>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오류우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44쪽)</p>	<p>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오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오류우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불상은 그 형태미나 특징으로 보아, 거의가 삼국에서</p>	<p>고구려의 승려 혜자는 일본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유교의 5경과 그림을 가르쳤으며, 종지와 떡의 제조 방법까지 전해 주었다. 일본의 자랑거리인 호류 사의 금당 벽화도 담징의 그림으로 전해진다. 특히, 현재 일본 각지에 남아 있는 불상은 그 형태미나 특징으로 보아, 거의가 삼국에서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p>



<p>신라의 삼국통일</p>	<p>改新정치가 강력히 추진되고 있을 무렵 반도에서는 당과 손을 잡고 있던 신라가 660년 백제의 수도 사비성(부여)을 함락시켰다. 그후 백제가 구원을 청하여 왔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부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병하여 싸웠는데 663년 금강 하구의 백촌강에서 당의 수군에게 공격을 받아 대패하였다.(백촌강싸움) 그때에 백제왕족 이하 다수의 사람들이 일본으로 망명하여 귀화하였다. 차후 신라는 고구려를 멸하고 당의 세력도 배제하여 반도를 통일하였다.</p>	<p>백제가 망한 뒤, 당은 의자왕의 아들을 옹진 도독으로 삼아 백제를 계속 지배하려 하는 한편, 신라의 장군들을 회유하여 신라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을 폈다. 이에 나·당 간에는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고구려가 망하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임천 지방과 옹진 도독부를 공격하였다. 이에 당은, 여·제 양 지역에 남은 주둔군으로 하여금 대항하게 하는 한편, 거란병과 말갈병을 동원하여 북방으로부터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이에 신라는, 마진, 적성 등지에서 당·말갈·거란의 군대를 대파하고, 매초성 일대에서 당·말갈의 20만 병력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때 노획한 말만도 3만 필이 넘었다. 그뿐 아니라, 백제 지역에 침입하려는 설인귀가 거느린 당의 해군을 금강 하구에서 여러 차례 섬멸하였다. 이에 당도 할 수 없이 물러가고 말았다(676). 이로써 신라는 외세의 간섭 없는 자주적인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였다.(27~28쪽)</p>	<p>전해진 것이다.(46쪽)</p> <p>백제가 망한 뒤, 당은 의자왕의 아들을 옹진 도독으로 삼아 백제를 계속 지배하려는 정책을 펴는 한편, 신라의 장군들을 회유하여 신라 세력을 분열시키려는 정책을 펴 나갔다. 이에 나·당 간에는 대립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고구려가 망하자,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과 연합하여 당에 정면으로 대결하고, 당군을 몰아내기 위하여 임천 지방과 옹진 도독부를 공격하였다. 이에 당은, 여·제 양 지역에 남은 주둔군으로 하여금 대항하게 하는 한편, 거란병과 말갈병을 동원하여 북방으로부터 신라를 공격하게 하였다. 신라는, 마진, 적성 등지에서 당·말갈·거란의 군대를 대파하고, 매초성 일대에서 당·말갈의 20만 병력을 섬멸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 때 노획한 말만도 3만 필이 넘었다. 그뿐 아니라, 백제 지역에 침입하려는 당의 해군을 금강 하구에서 여러 차례 섬멸하였다. 이에 당도 할 수 없이 물러가고, 신라는 자주적인 통일의 위업을 이룩하였다(676).(29~30쪽)</p>	<p>다.(81쪽)</p> <p>백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자, 당은 백제의 옛 땅에 옹진 도독부를 두고, 다시 고구려 점령 이후 평양에 안동 도독부를 설치하였으며, 심지어 신라 본토에 계림 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들과 연합하여 당나라와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신라의 대당 전쟁은 백제 지역의 주둔군을 공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이어서 고구려 지역까지 확산되었다. 당나라 역시 신라의 공격에 맞서 침략군을 계속 투입하였기 때문에 치열한 전투는 여러 곳에서 벌어졌다. 신라는 매소성에서 당의 20만 대군을 크게 격파함으로써 일단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어서, 금강 하구의 기벌포에서도 당의 수군을 섬멸하여 당의 세력을 완전히 축출함으로써 삼국 통일을 이룩하였다(676).(43쪽)</p>
<p>통일신라시대의 대일관계</p>	<p>견당사는 백촌강의 싸움을 전후하여 잠시 뜸하였으나 大宝 2년(702) 栗田真人 등을 파견함으로써 부활되었다. 이래 15년에서 20년에 1회씩 渡海하였다.</p>		<p><b>통일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b> 삼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파되어 아스카 문화를 이룬 이후, 일본은 더욱 통일 신라의 문화 흡수에 적극적이었다. 일본은 견당사와 동시에 견신라사를 수시로 보내어 신라 문화 수입에 노력하였고, 원효, 강수, 설총 등의 불교·유교 문화를 모방하여 하쿠호(白鳳) 문화를 이룩하였다. 특히 일본은 불상, 가람 배치, 탑파뿐 아니라, 율령, 정치 제도 전반에 걸쳐 신라 문화를 전수받아 편의적으로 수정하여 그들의 고대 문화를</p>	<p><b>통일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b> 삼국 문화에 뒤이어 통일 신라의 문화도 일본에 전해졌다. 일본에 전해진 신라의 정치 제도는 다이카 개신 이후의 강력한 전체 왕권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또, 통일 전쟁에서 보여 준 신라인의 강렬한 국가 의식은 일본 지도자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1) 통일 신라 문화의 일본 전파는 일본이 견신라사를 신라에 파견해 옴으로써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 일본에 전해진 원효, 강수, 설총 등의 불교, 유교 문화는 일</p>

			발전시켰다.(62쪽)	본 하쿠호 문화의 성립에 이바지하였다.(82쪽)
일본서기의 편찬	일본서기는 舍人親王을 총재로 하는 편찬관이 조정의 기록, 호족의 소견, 중국이나 조선의 사서 등의 재료를 이용하여 편년체로 정리한 것이다.			

51)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요서 지방설이 있다.

#### 4. 맺음말

<토론문>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의 변화에 대한 토론

박진동(강원대학교)

한국 현대 역사 교과서에 두툼한 저술을 내렸고, 역사교과서연구소의 연차별 학술대회와 학술지에 꾸준히 역사교과서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있는 발표자에게 먼저 경의를 표한다. 이번 발표문도 완성도 높게 작성되었기 때문에 토론자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을 가지면서 토론문을 작성했다. 발표문에 비해서 토론문이 부실하다면 촉박하게 발표문을 받아서 시간 맞추기도 어려웠으니 양질의 토론문은 언감생심이었다는 평계를 대본다.

머리말에서 5차 국사 교과서가 조선일보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 연재물을 제2차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와 재야사학계의 상고사 문제 제기 등에 영향받아 준거안, 교육과정 개발을 거쳐 편찬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조선일보 연재물의 영향이 다른 2개의 배경과 동급으로 볼 정도인가. 한일관계/국제관계, 학술·학계/비제도권, 언론/사회 등 분야와 계통을 구분한다면 어떻게 명명할 수 있을까? 오늘날 종이신문의 영향력을 실감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5차 국사교과서에 조선일보라는 신문이 엄청난 영향을 준 것을 제대로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 첫번째 질문을 하고 싶다.

신문 얘기가 나왔으니 덧붙이고 싶은데, 발표자가 한 기왕의 교과서 연구를 보면 신문자료 활용이 눈에 띄게 많았다. 언론 DB 활용이 편리해졌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활용이 활발해졌다. 하지만 자료 부족을 보충하거나 여론/언론 동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면 원자료에 접근하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를테면 문교부의 왜곡 내용 분석을 신문 출전으로 처리하는 방식(각주 11)은 아쉬움이 있다.

발표자가 국사교과서에 대한 연구를 제기한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상고사나 일본 역사왜곡 등 이슈 중심보다 발표자 말대로 교과서 자체 분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지금에서는 더 필요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본 구도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과 관련한 국사교과서 편찬이 되므로 초점이 국사교과서에 완전히 맞춰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1963)까지 올라가서 언론사의 교과서 비판에 많은 양을 할애하였다. 이것은 곧 준거안으로 연결된다. 일본 교과서 왜곡, 교육과정 성립, 상고사 문제, 국사교과서 서술 변화를 시간 흐름으로 서술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논문 작업은 생각해 보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관련해서 이번뿐만 아니라 발표자의 교과서에 관련해서 발표한 글들은 자료를 꼼꼼히 모아 제시한 공이 크다. 반면에 어떤 논점을 잡아서 썼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 점에서 발표자가 생각하는 ‘교과서 자체 분석’의 시야와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1990년 국사교과서의 배포가 지연되었는데 “집필 내용이 알려지면 집필자에게 심리적 부

답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있었”다는 서술 부분을 읽으면서, 개인적 경험으로 2006년에 고1 국사 교과서 개정본이 3월 학기 시작에도 배포하지 못했던 기억이 났다. 외부의 관심과 압력이 클 때 비밀주의에 빠지게 된다. 그러면서 한정된 인력을 동원해서 밤샘 작업을 돌리곤 한다. 반대로 완전 공개해서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 같다.

끝으로 발표자는 <신편 일본사>의 한국 관계 기술 및 1982년판, 1983년판, 1990년판 국사교과서 서술내용을 분석한 방대한 표를 첨부하였다. 특히 이 표는 일본 교과서 왜곡에 따른 우리 국사교과서의 대응이란 구도에 맞는다. 오늘 발표 제목인 5차 교육과정기가 일부 걸쳐있지만, 4차 교육과정에 많이 들어가 있다. 이것은 연구 주제와 범위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발표자가 이런 문제를 모르지 않았을텐데 밀고 나가는 이유가 궁금하다.

제목은 보았을 때 기대한 바와 달리 5차 국사교과서 서술 변화는 몇 장 되지 않는다. 이어서 큰 표가 추가되어 있다. 눈길 가는 문장은 다음과 같다.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신편일본사』의 역사왜곡에 대한 정면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근현대사 서술에서 이러한 경향이 명확히 보인다. 징용과 한일기본조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정한론·운요호사건·한일의정서·3·1운동 등에 대한 서술은 1982년판과 1983년판보다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1988년 서울올림픽의 개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과의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는 제6공화국 정부의 외교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추측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신편일본사』의 역사왜곡에 대한 정면대응이 당시 국사교과서 개발의 목표였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싶다. 소략이라는 서술 분량에 대한 지적도 요즘 교과서 중심이 아니라 교육과정 중심 교육이라는 관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용어 하나 개념 하나가 학습 대상이자 근거가 되는 역사교육의 실제에서 국가적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이용당하는 교과서로 보는 관점은 매우 역사학자의 교과서가 아닌 정치가나 관료의 교과서로 여겨져서 앞에서 교과서의 내적 분석의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읽었는데, 마지막에서 외적 작동을 거론해서 혼란을 불러일으킨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궁금하다.

사소한 점은 서면으로 대신하려고 한다.

1쪽: 일체의 역사왜곡 부분 -> 일본의 역사왜곡 부분

3쪽: 문공부는 문화공보부라 하면 좋겠음

15쪽: 각주44) <표 3>은 어느 표를 말하는가?



<제3발표>

제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신선혜(호남대학교)





# 제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신선혜(호남대학교)

---

## 목 차

---

1. 머리말
  2.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확정의 과정과 배경
  3. 『국사』 교과서 서술 체계와 내용의 검토
    - (1)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반영의 실제
    - (2) 이외의 서술 변화 특징과 배경
  4. 맺음말
- 

### 1. 머리말

5차 교육과정은 민주주의의 토착화, 사회 정의의 구현, 문화의 주체성 확립 등을 기치로 이에 맞는 자주적, 창조적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1987년과 1988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개정, 공포되었다. 여기에는 1986년 서울아시안게임, 1987년 6월 항쟁과 함께 1988년 서울올림픽 등을 통한 민주화와 국제화라는 국내의 커다란 변화의 과제와 함께 미·소 냉전체제의 붕괴와 급속한 정보화 사회로의 진전에 대한 대응이라는 전세계적 요청이 바탕에 있었던 만큼 이전과는 다른 교육목표의 설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sup>1)</sup>

이때 교육과정 개정의 필요성은 무엇보다 역사교육의 방향전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논의가 촉발되었다고 생각된다. 1986년 5월에 열린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역사교육에 대한 국가, 사회의 지나친 요구는 오히려 역사교육을 퇴보시킬 수 있고, ‘국적 있는 교육’만 강조한 결과 학생들은 세계사 속에서 한국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sup>2)</sup> 이는 3·4차 교육과정이 집권의 정당성 확보와 군사독재의 유지를 위한 이념교육 강화의 산물로 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며, 실상 5차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3차 협의회에서 “민족 중흥, 민족 사관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지양”한다고 논의의 정한 것이 이와 관련된다.<sup>3)</sup>

---

1)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1988.03)(이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 해설서는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www.ncic.go.kr](http://www.ncic.go.kr))에서 참고함)에는 개정의 배경으로 경제적인 발전, 민주화의 정착, 정보화 사회의 도래, 국제 경쟁 및 교류의 증대를 언급하였다.

2) 「역사교과서 ‘흥미’가 없다」 『조선일보』(1986.06.03.)

이와 함께 1982년부터 시작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문제가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시정되지 않고 또다시 우익단체가 인쇄중인 『고교일본사』에 대한 문부성의 검정이 통과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사교과서의 내용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이 다시금 증대되었다.<sup>4)</sup> 특히 왜곡의 상당부분이 고대사에 편중된 점에서 국사교과서 개편에 대한 유사역사학계의 개입을 예견하게 하였고,<sup>5)</sup> 이와 관련하여 1990년 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가 출간되기까지 실로 ‘국사교과서 파동’이라 일컬어질 만큼 험난하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sup>6)</sup> 이에 이 시기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과 관련하여 교과서 발간 후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전문적 분석이 시작되었고,<sup>7)</sup> 이후 고대 국가 발달단계, 영토인식, 백제 요서 진출, 고조선 및 한군현, 삼국통일 및 남북국 서술과 관련하여 주목되었다.<sup>8)</sup> 아울러 최근 유사역사학계와의 논쟁에 있어 이 시기가 다시금 조명되기도 하였다.<sup>9)</sup>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와의 서술 차이점과 논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졌다.

다만 서술된 양상에 대한 파악에 앞서 ‘국사교과서 파동’ 속에서 1987년에 확정된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이하 ‘준거안’)의 내용을 살피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sup>10)</sup> ‘준거안’의 작성과 국사교과서 서술의 적용은 5차 교육과정기에 처음으로 시행된 교과서 개편 과정이었기 때문이다.<sup>11)</sup> 아울러 그러한 배경에 고대사에 대한 고조된 관심이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sup>12)</sup> ‘준거안’ 확정의 과정을 통해 당대 고대사에 대한 논쟁의 일면을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실상 ‘준거안’이 확정되기까지 몇 차례에 걸친 시안류가 개발되었다. 시안류라 함은 1987년 6월 ‘준거안’이 확정되기 전, 같은 해 3월에 발표된 ‘국사교과서 개편 시안’(이하 ‘시안’)과 함께 그에 앞서 1986년에 교육과정 개편이 논의되면서 1989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국사교과서 편찬을 위해 작성된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이하 ‘내용 전개 준거안’)을

3) 한국교육개발원(최용규·최석진), 1987,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13쪽.  
 4) 「일 교원노조서도 비난」 『동아일보』(1986.06.05.) ; 「일 교과서 왜곡 시정 요청키로」 『동아일보』(1986.06.10.) ; 「일본의 복고역류」 『조선일보』(1986.06.17.) ; 「지엽만 건드린 일 교과서 수정」 『동아일보』(1986.07.09.) ; 「일 교과서 왜곡 대책협의」 『조선일보』(1986.07.10.) 등.  
 5) 「일 교과서 비판 앞서 우리도 고칠 곳 많다」 『조선일보』(1986.07.24.)  
 6) 당시 교육부 역사담당 편수관이었던 윤종영의 회고를 통해 전말이 자세히 드러났다.(1999, 『국사 교과서 파동』, 혜안)  
 7) 금경숙, 1992,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내용 분석 : 고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강원사학』8.  
 8) 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 이부오, 2010,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4 ; 임기환, 2016, 「백제 요서진출설과 역대 교과서 서술 검토」, 『한국사학보』63 ;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56-1 ; 박미선, 2019, 「교과서 속 삼국통일, 남북국 서술과 통일교육」, 『사학연구』133.  
 9) 조인성, 2016, 「「고대사 파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172 ; 장미애, 2016,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4,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117 ; 조인성, 2017, 「「고대사 파동」과 식민주의 사학의 망령」, 『역사비평』118.  
 10) ‘준거안’은 윤종영, 1999, 『국사 교과서 파동』, 혜안 참고.  
 11) “80년대 이후 국사 교과서의 서술 문제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고 제5차 교육과정 개정시기에 즈음하여, 이 문제가 더욱 가열되자 문교부는 ‘국사교육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중고등학교 「국사교육내용전개의 준거안」을 작성케하였다. 이에 제5차 국사과 교육과정에서는 동 준거안을 특히 참작하게 되었다”(『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2) “최근의 학문적 동향과 연구성과를 반영하는데 유의하였다. ... 학계의 일각에서 고대사의 재인식이 요구되고 있어, 국사 교육의 담당자들로 하여금 이를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를 고민케 하고 있다. 이에 ... 고대사에 대한 고조된 관심에 대해서도 이를 수렴하여 ‘고조선’을 최초의 국가로 이해시킬 것을 전제로 한 단원명, 주제명을 선정하였다”(『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3) 시안의 내용은 「국사교과서 개편방향(시안) 주요내용」 『동아일보』(1987.03.25.)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리킨다.<sup>14)</sup> 특히 ‘내용 전개 준거안’의 경우 항목 설명을 위한 <참고 내용> 부분에 당시까지 합의된 논점이 정리되어있어 이를 살피는 것이 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육의 내용을 파악함에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국사교과서의 서술에는 ‘준거안’(시안류 포함)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피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서술과의 비교도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준거안’ 작성의 영향과 의의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준거안’에 언급되지 않은 주제들의 서술 변화상을 살피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표적인 부분은 반구대 및 고령 암각화의 편년, 신라 중대 왕권의 전제화 등의 변화상이 주목되는데, 변화의 배경으로서 당대의 관련 연구성과를 살피고자 한다. 본고를 통해 이후 교과서 서술의 더 나은 방향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확정의 과정과 배경

1987년 6월 5일, ‘준거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총 35항목으로, 그 중 고대사가 17개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주제별로 대별하여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1>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의 고대사 항목

(1) 구석기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세분하고 새로운 발굴 성과를 반영토록 한다.(구석기시대를 상술함)
(2) 한민족의 역사무대였던 동북지방(만주)의 고고학적 성과를 기술한다.
(3)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가 요녕지방과 동일문화권임을 주지시킨다.(청동기시대 상한과 국가기원과 중요한 관계가 있음)
(4) 고조선 초기에는 정치적, 문화적으로 요녕지역이 중심이었음을 설명하고, 이곳에서 주변 지역으로 발전하였음을 설명한다.
(5)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의 반영으로 파악하고, 고조선의 성립이 청동기 문화 위에 전개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형성이었다는 사실을 중시하며, 그 정치적, 문화적 수준이 발전된 단계에 이르렀음을 명기한다.(고조선의 출발이 청동기시대였음을 명확히 함)
(6) 기자의 동래와 기자조선의 실재를 부인하고 이에 대한 학설을 주에서 처리한다(시안에 있었던 기자조선을 고조선의 정치적 변혁으로 설명한다는 것을 삭제함)
(7) 위만 이전의 고조선의 정치사를 보강하여 칭왕의 사실과 부왕, 준왕 등 실존 인물 및 정치 상황을 수록 한다.(아직까지 위만 등장 이전의 고조선 정치사는 공백으로 되어 있음)
(8) 한군현에 관해서는 근래의 학문적 성과를 유의하여 서술하되 그것이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한다.(위치 문제는 주에서 처리함)
(9) 한국 고대의 국가발달 단계는 1.군장국가 2.연맹왕국 3.중앙집권국가의 순서로 기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학교 교과서에는 세 단계를 명시하지 않아도 됨)
(10) 삼국의 건국 전설 내용을 기술하고 그에 반영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한다(삼국사기의 시조와 건국연대)
(11) 백제의 중국 요서지방 진출의 사실을 명시하여 삼국인의 해외활동의 모습을 부각시킨다.
(12) 삼국 및 가야인의 일본 진출과 이들의 문화 전파가 일본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명기한다.
(13)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허구성을 주에서 기술한다.(중학교에서는 기술치 않음)
(14) 삼국통일의 역사적 의의를 주체적인 민족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특히 당군 축출을 위

14) ‘1986년도 문교부 정책과제 연구비에 의한 논문’이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은 연구자 대표로 변태섭, 연구자로 김정배, 이기동, 신형식, 하현강, 한영우, 조동걸, 김홍수 등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서론」에서 중학교 교과서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였으나, 「준거안」과 「참고내용」 부분은 고등학교에까지 적용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한 신라인의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

(15) 통일신라의 정치체제와 권력구조에서 나타나는 독자적인 특성을 부각시킨다.

(16) 통일신라의 문화는 삼국의 개별적인 전통문화를 하나로 융합하고, 그 위에 중국문화를 수용하여 민족문화로 성장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17) 발해사의 비중을 높이고 신라와의 관계도 대립보다는 상호 교류하고 있었음을 기술한다.

<표1>을 통해 삼국 이전의 항목이 8개, 삼국의 건국을 전후한 시기부터 통일 전까지 항목이 5개, 삼국통일 이후 항목이 4개로 나뉘짐이 확인되는데, 이른바 ‘상고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이러한 ‘준거안’ 마련의 직접적 계기는 『조선일보』가 1986년 광복절 특집으로 기획한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의 11회 연재로 파악된다. 연재의 계기는 앞서 언급했던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대응의 차원이었다.

- a) 일본은 역사를 민족 긍지를 촉진하는 교재로, 국민 단합을 위한 정신무장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의도는 바로 여기에 있다. ... 이에 대응해야 할 우리나라의 역사교과서는 어떠한가. ①현행 초·중·고교 국사교과서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시조마저 나오지 않는다. ②일본이 주장하는 「임나경영설」을 분석, 비판하는 대목도 없다.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국사 지식도 일치하지 않고 있다. 광복 후 교과서 개정 때마다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이다. 놀라운 것은 초등학교에서도 가르쳤던 ③고조선, 삼한, 삼국의 고대사가 63년부터 대폭 축소되어 주요 사실이 없어진 것이다. 국사교과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광복 41주년을 맞아 국사교과서의 변모와 현행 국사교육을 점검하는 특집을 연재한다.<sup>16)</sup>

그런데 위의 기사가 연재되기 한달 전, 국내 사학계에서 일본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결과에는 고대사의 왜곡 항목으로 일본열도, 한군현, 임나경영설, 삼국문화의 일본 전파, 회화, 신라의 삼국통일, 통일신라시대의 대일 관계, 『일본서기』의 편찬 등 8개로 대별하여 논박되었다.<sup>17)</sup> 이를 a)와 비교해 보면 변화되어야 할 세 가지 중 ①과 ③의 내용은 왜곡 항목과 직접적인 연결 관계를 찾을 수 없음이 확인된다. 이는 오히려 이미 한 차례 ‘고대사 파동’을 일으킨 바 있던 유사사학계의 주장이 되풀이된 것으로 보이는데,<sup>18)</sup> 다음의 기사는 그 영향 관계를 명확히 보여준다.

- b) 「증발된 한국고대사」 아예 한국 역사 교과서에는 고대사 허리가 송두리째 빠져버리고 없다. 일본 식민사관의 원천적 배경을 이루는 무대인 삼국시대 전반기 수백년의 역사가 그림자조차 찾을 길 없는 것이다. 더구나 요즘 교과서에는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누구나 배웠던 사실, 고구려의 시조는 누구고 백제의 시조는 누구며 신라의 시조는 누구라는 것마저 온데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 「정통사학과 재야사학」 ... 특히 재야사학 또는 비정통사학으로

15) ‘상고사’란 일찍이 신채호가 『조선상고사』에 그 용어를 사용함이 시작이지만, 그는 고조선사를 중심으로 고구려 멸망까지를 범위로 하였다. 그러나 1987년 2월 정신문화연구원의 심포지움에서 신석기, 청동기 문화와 고조선사를 중심으로 국가 기원론을 다룬 뒤 ‘한국상고사의 체문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대체로 고조선을 중심으로, 전후한 시기를 범위로 하는 용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고대사’라는 개념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송호정, 2014, 「최근 ‘한국상고사’ 논쟁의 위험성에 대하여」, 『내일을 여는 역사』56, 135-136쪽)

16)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 한다(1)」 『조선일보』(1986.08.15.)

17) 「한국사 자주성 부정-고대~현대 35항목 “변조”」 『조선일보』(1986.07.16.) : 평화문제연구소, 1986, 「정밀보고서:일본의 교과서 왜곡:한국사 자주성 부정-국내 사학계 「신편 일본사」 정밀분석」, 『통일한국』32.

18) 이와 관련하여 신선혜, 2019, 「제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대구사학』136 참고.

불리는 연구학자들의 성과를 “소설이다, 위서다”라고 배척만 하지 말고 과감히 수용 발전시키는 공동노력을 시작해야 한다.<sup>19)</sup>

이렇듯 ‘준거안’ 작성은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으로 인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준거안’에서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은 단군신화를 역사적 사실로 서술할 것과 백제의 요서진출 및 『삼국사기』의 신빙을 통한 삼국의 건국 연대를 기술할 것 등인데 앞의 두 내용은 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에서도 발견되는 바<sup>20)</sup>, 이러한 경향이 5차 교육과정기에까지 이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빙에 대해서는 고고학계에서 1960년대 후반부터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으므로<sup>21)</sup> 이를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으로만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한군현에 대한 서술여부는 ‘준거안’ 이전의 두 가지 시안류에서는 다르게 언급되어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준거안’ 확정 배경에 더욱 다가갈 수 있다.

<표2> 한사군에 대한 항목 서술 변화

전거	항목
‘내용 전개의 준거안’ (1986)	한사군의 위치나 낙랑 문화의 영향은 학계의 성과와 현재의 논의 과정을 주에서 설명해 준다.
‘시안’ (1987.3)	현행 교과서 본문에 수록돼있는 한사군 문제를 본문에서 제외, 주에서 설명한다.
‘준거안’ (1987.6)	한군현에 관해서는 근래의 학문적 성과를 유의하여 서술하되 그것이 한국사의 주류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한다.(위치 문제는 주에서 처리함)

한사군의 문제에 있어 시안류 단계에서는 본문에서의 삭제가 제안되었으나 곧 ‘준거안’에서 서술하는 방향으로 기조가 변화된 배경은 윤종영의 회고를 통해 알 수 있다.

c) (‘시안’의 수정과 관련하여) 논의 과정 중에서 특히 한사군 문제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오갔다. ... 이 수정안에 대해 신형식, 송준호, 유영익, 정영호, 한영우 교수 등은 “한사군은 치욕의 역사이나 역사적 사실이니 마땅히 다루어야 한다. 한사군은 삼국의 발전과 중요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문화의 유입 과정에서의 교량 역할, 또 이를 극복한 우리 민족의 저력 등을 서술하는 것은 국민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교수는 “한사군 문제는 일인들의 주장에 의해 한국사에 기술된 것이며 이를 인정한다면 한국사의 전체적인 맥이 서지 않는다. 더욱이 한사군 설치로 민족적 자각이 생겼다는 것은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의 잔재다”라고 본문에서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 결국 “한사군에 대해서는 학문적 성과를 유의하여 서술하되 위치 문제는 주에서 다룬다”는 수정안이 나와 통과되었고 그 이외는 대체로 수정안대로 의견의 합의를 보았다.<sup>22)</sup>

유사역사학계에서는 한사군이 중국에 있었으며 우리 역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19) 「동명성왕은 어디로 갔나」 『조선일보』(1986.07.31.)  
 20) 이와 관련하여 신선혜, 2019, 「제4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대구사학』136 참고.  
 21) 김원룡, 1967, 「삼국시대의 개시에 관한 일고찰」, 『동아문화』7, 1-33쪽.  
 22) 윤종영, 1999, 『국사교과서 파동』, 해안, 166-167쪽.

것에 비해 역사학계에서는 한사군 서술 제거에 따른 부작용이 더욱 큼을 주장한 것이다.<sup>23)</sup> 이러한 논란이 야기될 것임은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 한사군에 대한 서술 방향이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양상을 통해 예견되었다고 할 수 있다.

- d) 한사군의 위치비정문제가 지금까지 논란이 되는 것은 첫째, 연구의 부족과 이를 보는 시각이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다 아는 바와 같이 일본인들이 주로 많은 연구를 하였고, 그 결과 위치는 사군이 한반도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斗溪(이병도-필자주)의 업적이 여기에 속하고 있다. ... 비록 前漢代의 유물은 잘 보이지 않고 後漢代의 유물이 많다고 하여도 사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되는 지역에서 한 대의 유물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이다. ... 사군의 위치 비정 문제는 한반도 안팎 어디서 구하든 간에 강점과 약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이 문제는 앞으로 집중적인 종합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자 한다.

실상 ‘내용 전개’의 준거안’은 한사군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준거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아가 <참고 내용>에서 항목 설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이후 ‘준거안’의 연구성과적 배경을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육과 관련된 연구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국사교과서 서술내용과 함께 살피기로 하고, 이 장에서는 주제만을 제시하여 ‘준거안’과 논의점이 동일함을 확인하고자 한다.

<표3> ‘내용 전개’의 준거안’의 <참고 내용> 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접국가의 구석기 기술문제</li> <li>2. 구석기시대 반영문제(전기, 중기, 후기 세분)</li> <li>3. 신석기시대 문제</li> <li>4. 빗살무늬토기 문제</li> <li>5. 무늬없는토기(무문토기) 문제</li> <li>6. 예맥족 문제</li> <li>7.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요령지역 연계 문제</li> <li>8. 단군기사 문제</li> <li>9. 고조선 문제</li> <li>10. 한사군 문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 국가의 발달 단계를 나타내는 용어 문제</li> <li>12. 건국연대와 이를 표기하는 문제</li> <li>13. 건국설화와 건국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문제</li> <li>14. 백제 위례성의 위치 문제</li> <li>15. 변한과 가야의 관계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li> <li>16. 가야의 지역 세력 이름을 기술하는 문제</li> <li>17. 가야연맹의 실체와 그 정치적 통합이 성공하지 못한 까닭을 서술하는 문제</li> </ol>

23) 다만 ‘시안’ 발표 후 ‘한사군’의 명칭이 ‘한군현’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민족사바로잡기국민회의의 위원이었던 윤희병이 「국사교과서개편방향 시안을 보고 진언」이라는 문서가 작성된 것과 관련하여 그 배경을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으로도 상정해 볼 수 있을 듯하다.(본 문서는 동국대학교 조성운선생님으로부터 전달받은 것이다. 귀한 자료를 선뜻 내어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윤희병은 환단사학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하고 『한민족의 상고사』(198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출판을 통해 환웅과 단군은 실존인물로서 환웅은 백두산과 흑룡강 사이에 배달국을 세우고 단군은 환웅초기 왕검이라는 직위를 받아 요동에 조선을 세웠다고 주장한 이다.(「정문연서 주제발표」 『매일경제』(1984.11.27.)) 그를 비롯한 유사역사학계에서는 『환단고기』를 근거로 한사군의 설치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본 문서에서도 그러한 기초가 확인된다.

18. 백제의 중국 진출 문제
19. 삼국문화의 일본전파 문제
20. 이른바 임나경영설에 대한 비판적 서술을 확대하는 문제
22. 삼국시대 경제 생활에 대한 서술 문제
23. 삼국시대 과학기술에 대한 서술 문제
24. 삼국시대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서술 문제
21. 나당전쟁과 삼국통일에 대한 서술 문제
25. 통일전쟁에 있어서의 외세(당)의 영향력 문제
26. 신라 통일의 역사적 의의 문제
27. 남북국시대의 사회와 문화 문제
28. 통일신라 전제왕권의 성격 문제
29. 상대등과 시중의 성격 문제
30. 통일신라 권력구조의 특질 문제
31. 골품제도, 화백, 화랑도의 성격 문제
32. 통일신라의 경제제도의 성격 문제
33. 통일신라의 해외활동의 방향 문제
34. 발해사에 대한 서술 문제
35. 통일신라 문화의 성격 문제
36. 통일신라의 불교문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 하는 문제
37. 통일신라 문화의 일본전파 강조 문제
38. 6두품계열의 활동을 늘릴 필요성에 관한 문제
39. 도당유학생의 설명을 추가하는 문제
40. 호족의 설명을 늘려야 하는 문제
41. 궁예, 견훤 등의 해설에 부정적인 견해만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켜야 하는 문제

<표1>과 <표3>을 비교하면 밑줄 친 부분이 동일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준거안’의 내용은 이미 ‘내용 전개의 준거안’ 단계에서 확정되었고 유지되었던 것이다. 1987년 2월에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한국 상고사의 체문제’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역사학계는 유사역사학계의 흑독한 도전을 정면으로 당하였지만,<sup>24)</sup> 실상 그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은 ‘내용 전개의 준거안’을 통해 확인된다.<sup>25)</sup> 이를 1987년 6월항쟁 이후 유사역사학계의 목소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파악한 견해를 참고한다면<sup>26)</sup> 이후 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서술에는 그간 폭발적으로 증가한 연구성과의 다양성을 어떻게 국정화 된 교과서에 담아내는가라는 문제가 관건이었을 것임을 짐작해볼 수 있다.

### 3. 『국사』 교과서 서술 체계와 내용의 검토

#### (1) ‘국정 『국사』 교과서 편찬 준거안’ 반영의 실제

‘준거안’의 국사교과서 반영 양상은 단원 구성을 통한 체제의 변화와 서술 내용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먼저 단원 구성을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4) 그 전말은 학회가 끝난 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 『한국상고사의 체문제』(1987)의 종합토론 부분에 전개되어있으며, 윤종영의 회고(1999, 『국사 교과서 파동』, 혜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5) ‘고대사 파동’을 일으킨 비학문적인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내용은 없다고 본 견해가 있다.(조인성, 2016, 『고대사 파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172, 11쪽)  
 26) 박찬승, 1994, 『분단시대 남한의 한국사학』,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비평사, 351쪽.

<표4> 단원 구성의 변화

『국사』(1983)	『국사』(1990)
<p>I. 고대 사회의 발전</p> <p>1. 우리 역사의 시작</p> <p>(1) 선사 시대의 사회와 문화</p> <p>(2) 고조선의 건국과 발전</p> <p>(3) 철기 문화와 사회의 발전</p> <p>2. 삼국의 성립과 발전</p> <p>(1) 삼국의 성립</p> <p>(2) 삼국의 대외 관계와 민족 통일</p> <p>3. 삼국 시대의 사회와 문화</p> <p>(1) 삼국 시대의 사회</p> <p>(2) 삼국 시대의 문화</p> <p>4.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p> <p>(1) 통일 신라의 발전</p> <p>(2) 발해의 건국과 발전</p> <p>(3) 신라의 학술과 불교 문화의 발달</p> <p>(4) 신라의 예술</p> <p>(5) 신라 말기의 사회 변동</p>	<p>I. 선사 문화와 국가의 형성</p> <p>1. 선사 문화의 전개</p> <p>(1) 자연 환경과 한민족의 형성</p> <p>(2) 구석기 문화</p> <p>(3) 신석기 문화</p> <p>2. 국가의 형성과 문화</p> <p>(1)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p> <p>(2) 고조선의 건국</p> <p>(3) 여러 나라의 성장</p> <p>II. 고대 사회의 발전</p> <p>1. 고대 사회의 형성</p> <p>(1) 고대 사회의 성격</p> <p>(2) 삼국의 성립과 고대 사회</p> <p>2. 고대의 정치와 그 변천</p> <p>(1) 정치적 발전과 중앙 집권화</p> <p>(2) 정치 구조의 정비</p> <p>3. 고대의 사회와 경제</p> <p>(1) 고대의 사회 체제</p> <p>(2) 고대의 경제 생활</p> <p>4. 고대 문화의 발달</p> <p>(1) 고대 문화의 성격</p> <p>(2) 사상의 발달</p> <p>(3) 학문과 기술의 발달</p> <p>(4) 예술의 발달</p> <p>(5)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p>

<표4>와 같이 단원 구성 상의 가장 큰 변화는 대단원이 2개로 분리, 내용이 증가된 것이다. 이러한 분리는 그간의 증가된 고고학적 연구성과를 반영하기 위함이 일차적 배경이라 생각되지만, 이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시작이 국가의 형성과 관련된다는 ‘준거안’ (3)을 적용하기 위한 구성 변화라 하겠다. 결국 고조선에 대하여 역사성과 국가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sup>27)</sup>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 고대사가 고대국가의 성립을 기점으로 하는 것과 배치된다. 고대 국가의 성립 이전에 ‘국가’, ‘나라’가 등장할 수 있는가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sup>28)</sup> 이는 국가발달단계에 대한 교과서 서술과 함께 이후에 다시 논의해보고자 한다.

또 하나의 변화는 중단원명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화기 이후 삼국통일론과 남북국시대론의 두 가지 인식은 병존하고 있었고, 1차 교육과정 교과서에서부터 줄곧 통일신라와 발해가 중단원 혹은 소단원명에 드러났는데, 5차에 이르러 ‘고대’의 범주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전시기까지 ‘고대’의 하위에 ‘선사’, ‘삼국’, ‘통일신

27) 차미희, 2011, 『한국 중, 고등학교의 국사교육』, 교육과학사, 217쪽.

28) 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77쪽.



라’, ‘발해’ 등이 포함되면서 시대구분의 개념이 모호하게 적용되었다면 이제는 ‘선사’와 ‘고대’가 삼국을 기준으로 구분된다는 점이 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준거안’ (17)에서 말한 바, 두 나라의 관계를 상호 교류의 측면에서 부각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구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제를 택하면서도 시대를 통괄할 수 있게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sup>29)</sup> 다만 교과서의 서술에서는 두 국가를 가리켜 ‘남북국’이라 칭하기도 하고,<sup>30)</sup> 6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의 중단원에 다시 통일신라와 발해가 등장하며 7차에 이르러 남북국 시대로 단원명이 확정된 점을 보면 통일신라(남국)와 발해(북국)를 대칭 관계로 표출하는 것이 시대상 이해에 더욱 용이하다고 판단된 것이 아닐까 한다.<sup>31)</sup>

그렇다면 교과서 서술에서는 ‘준거안’이 어떻게 적용,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준거안’의 항목을 모두 대상으로 하기에는 방대한 내용이므로 고조선 건국과 세력범위(비파형 동검 및 한사군 관련 포함), 국가발달단계(삼국의 건국연대 관련 포함), 백제의 요서진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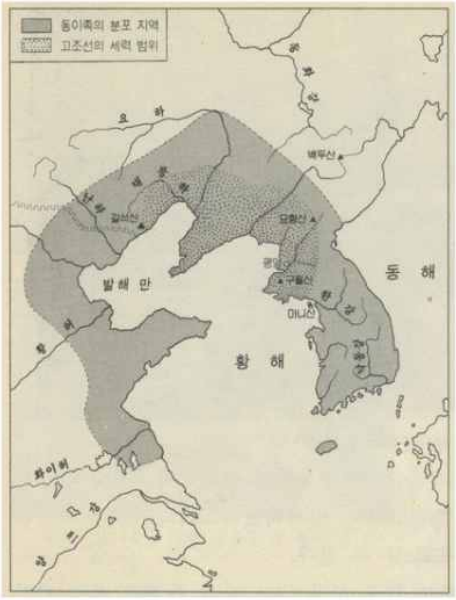
<표5> 고조선과 한사군 관련

	『국사』(1983)	『국사』(1990)
① 단군과 고조선	삼국유사에는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과 곰의 변신인 여인 사이에서 출생한 단군 왕검이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주)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 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건국에 관한 내용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국 신화와 같은 유형이다. 천신의 아들이 내려와 건국하였다고 하는 단군 건국의 기록은, 우리 나라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과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을 밝혀 주고 있으며, 고려, 조선, 근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 고조선은 단군 왕검(檀君王儉)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B.C. 2333). <u>단군 왕검이란, 당시 지배자의 칭호였다. 고조선은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성장하여, 점차 인접한 군장 사회들을 통합하면서 한반도까지 발전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출토되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로 알 수 있다.</u> 고조선의 건국 사실을 전하는 단군 이야기는, 우리 민족의 시조 신화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단군 이야기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전승되어 기록으로 남겨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어떤 요소는 후대에 새로이 첨가되거나 또는 없어지기도 하였는데, 이것은 시대에 따라 관심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기록은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한 고조선의 성립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주) 단군의 건국에 관한 기록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응제시주, 세종 실록 지리지, 동국여지승람 등에 나타나고 있다. 천신의 아들이 내려와 건국하였다고 하는 단군 건국의 기록은, 우리 나라의 건국 과정의 역사적 사실과 홍익 인간의 건국 이념을 밝혀 주고 있으며, 고려, 조선, 근대를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왔다.

29) 최완기, 1990,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48, 188쪽. 다만 ‘선사’의 개념 역시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원시시대 혹은 원시사회로의 표기가 더욱 적절할 것임을 피력하는 견해도 있다.(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80-81쪽)

30) 『국사』(1990)의 “고대의 경제생활” 부분은 “삼국의 경제생활”과 “남북국의 경제생활”로 나뉜다.

31)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는 단원명을 “남북국시대의 사회와 문화”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였다.(변태섭 등, 1986,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52쪽)

<p>고조선은 요서 지방 일대까지 자기의 세력권으로 하여 중국과 맞설 수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lt;지도 없음&gt;</p> <p style="text-align: center;">② 고조선의 세력범위</p>	 <p style="text-align: center;">고조선의 세력 범위</p> <p>(주) 고조선의 세력 범위는 청동기 시대를 특징짓는 유물의 하나인 비파형 동검(요령식 동검)이 나오는 지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③ 한사군 관련</p>	<p>한은 고조선이 자기네들의 무역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요동 지역을 위협하였으므로,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고조선은 이에 대항하여 1년간이나 싸웠으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망하였다(B.C. 108).</p> <p>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낙랑, 진번, 입둔, 현도의 4군을 두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이에 대항하여 이들을 축출하면서 계속 발전하였다.</p> <p>(주) 한이 고조선 지역에 설치하였다는 4군현의 위치에 대해서는 만주와 한반도 북부설과, 요동·요서 지방설이 있다.</p> <p>이러한 경제적, 군사적 발전을 기반으로 고조선은 한과 대립하게 되었다. 이에 불안을 느낀 한 무제는, 수륙 양면으로 대규모의 무력 침략을 감행하였다. 고조선은 1차의 접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이후 약 1년에 걸쳐 한의 군대에 완강하게 대항하였으나, 마침내 왕검성이 함락되어 고조선은 멸망하였다(B.C. 108).</p> <p>고조선이 멸망하자, 한은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여 지배하려 하였으나, 지역 토착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그리하여 그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고, 드디어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소멸되었다(313).</p>

<표5>에서 확인되는 가장 큰 변화는 ②의 지도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동이족의 분포 범위와 겹쳐 제시함으로써 고조선의 범위를 더욱 넓게 인식하게끔 만들고 있다.<sup>32)</sup> 고조선 세력범위의 근거를 비파형동검의 분포에서 찾은 점은 1980년대 활성화된 비파형동검에 대한 연구가 반영된 것이다.<sup>33)</sup> 그러나 비파형 동검 분포 권역을 세력범위로 설정한 것은 비약일 수 있다. 즉 비파형 동검의 분포는

32) 이를 ‘고조선 이미지 만들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고조선 이후 건국된 국가들의 발전단계를 서술하지 않는 방식으로 강력한 고대국가로서의 고조선을 부각시켰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이는 ‘준거안’에서 제시한 한국 고대 국가의 발달단계(군장국가-연맹왕국-중앙집권국가)와도 부합하지 않는 서술이다.(장미애, 2016,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4,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117, 263-264쪽)

33) 윤무병, 1987, 「요령지방의 청동기문화」,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정학, 1987, 「고고학상으로 본 고조선」,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이를 사용하였던 사람들의 분포를 알려주는 것이지 정치적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 함께 ‘청동기의 보급’ 부분에서 비파형 동검이 만주와 한반도 북부는 물론 남부 지역에서도 발견되고 있다고 한 점에 따르면 한반도 전 지역이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지만 지도에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sup>34)</sup> 고조선의 강역에 대해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는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서 보려는 경향은 올바른 국사교육을 위해 좀 더 신중해야 한다”고 경계하였음에도<sup>35)</sup> 교과서 서술의 단계에서는 지도에 왜곡되어 반영되었던 것이다.

다만 ‘준거안’ (4)가 반영된 고조선 중심지 이동설의 반영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는 4차 교육과정 개정의 시기를 즈음하여 주장되었으나 당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다시금 강조되면서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sup>36)</sup>

한편 앞서 한사군의 문제에 대해 서술방향의 변화가 있었던 점을 살펴보았는데, 『국사』(1990)에는 한사군의 명칭뿐만 아니라 ‘고조선의 일부 지역’이라고만 서술함으로써 위치문제를 주에서 서술한다고 한 ‘준거안’ (8)의 비중보다도 축소하여 서술하였다. 한사군에 대한 문제가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을 받은 쟁점 중 큰 부분을 차지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sup>37)</sup>

실상 한군현은 근대의 식민지와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대표적으로 낙랑군은 그 존속 기간 동안 어느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식민지라기보다는 중국 왕조의 변방 군현으로, 한반도와 만주 일대에 존재하고 있던 여러 국가나 민족들과 교섭하는 창구 내지는 무역중계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낙랑 지역에서는 고조선 주민과 이주 한인 사이에 종족적, 문화적 복합이 진행되어 이른바 ‘낙랑인’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연구방향도 최근 등장하였다.<sup>38)</sup> 이에 낙랑군을 중국 군현이 아닌, 한국사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점도 일면 수긍할 수 있다.<sup>39)</sup>

다음으로 ‘준거안’ (9), (10)과 관련하여 해당 부분의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6> 국가발달단계와 삼국의 건국 관련

	『국사』(1983)	『국사』(1990)
① 고대국가 발달단계	<p>철기 문화가 보급되면서 만주와 한반도 각처에 많은 나라들이 성립되었다.</p> <p>... 또, 이들은 처음에는 부족 연맹적 형태를 가졌었으나, 점차 정치 제도를 정비하여 삼국 성립의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p> <p>... 세력이 강한 부족장은 주변의 여러 읍락을 통합하고 점차 그의 권력을 강화하면</p>	<p>청동기 문화의 발전과 함께 군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였다. 이들 중에서 세력이 강한 군장은 주변의 여러 사회를 통합하고, 점차 권력을 강화하여 갔다. 가장 먼저 국가로 발전한 것은 고조선이었다.</p> <p>... 삼국 시대는 우리 나라 역사에서 중앙 집권 국가가 성립하여 발전한 시기이다.</p> <p>...</p>

34) 조인성, 2016, 「‘고대사 파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172, 19-20쪽 ;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56-1, 31쪽.

35) 변태섭 등, 1986,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43쪽.

36) 서영수, 1988, 「고조선의 위치와 강역」, 『한국사 시민강좌』2, 일조각.

37) 위만조선의 왕검성이 한반도 평양지역에 있음이 학계의 정설임에도 기술하지 않은 점은 고대사 파동의 후유증이라 할 수 있다.(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56-1, 31쪽)

38)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39) 임기환, 2017,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56-1, 42쪽.

	<p>서 국가를 이룩하게 되었다.</p> <p>... 삼국 초기의 지배 세력이었던 강한 부족장이 우세한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노비와 일반 민중을 더욱 강력하게 지배할 수 있게 되었다.</p> <p>... 우리 나라에서는 고대 왕국의 성립과 발전이 중국보다 늦었다. 그것은, 고대 왕국으로 성장하려던 고조선이 한의 침입을 받은 이후, 한의 분열 정책으로 각 부족의 통일 세력의 성립이 방해를 받았기 때문이다.</p>	<p>중앙 집권 국가에 앞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 연맹 왕국이 성립되어 있었다. 연맹 왕국은 군장 국가가 발전한 국가 형태로서, 국왕이 출현하고, 국가 조직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종래의 군장 세력이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집권 국가로서는 일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p>
<p style="text-align: center;"><b>② 삼국의 건국</b></p>	<p>건국 시조 및 연대에 대한 서술 없음</p>	<p>고구려는 ... 서력 기원 전후에 도읍을 압록강 중류 통구 지방의 국내성으로 옮겼는데, 이후 고구려는 이 곳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해 나갔다.</p> <p>... 백제는 한강 유역에 위치한 마한의 한 소국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주몽의 아들 온조가 남하하여 하남 위례성에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세웠다고 한다(B.C. 18).</p> <p>... 경주 지방의 사로국으로부터 발전한 신라는 삼국 중에서 가장 늦게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었다. 기록에 의하면, 신라는 박혁거세에 의해 건국되었다고 한다(B.C. 57).</p>

국가발달단계는 각 교육과정별(검인정시기의 경우 교과서별) 다르게 적용되었다.<sup>40)</sup> 이는 그만큼 시기별로 새로운 연구성과들이 도출되고, 이를 교과서에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5차 교육과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부족국가’ 혹은 ‘부족연맹체’라는 개념이 아닌 ‘군장국가’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1980년 이후 등장한 chiefdom론과 관련된다. 다만 이때는 ‘군장국가’가 아닌 ‘군장사회’로 통용되었는데, 이 단계는 국가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성격상 준국가 단계, 또는 군장에 의해 통솔되는 특징이 있어 군장사회라고 한 것이다.<sup>41)</sup> 실상 『국사』(1990)에서 사용된 군장국가가 chiefdom 단계를 말한다는 점은 교육과정에서 밝힌 바 있다.<sup>42)</sup> 이에 대해 ‘내용 전개 of 준거안’에서는 chiefdom을 국역함에 ‘군장사회’, ‘추장사회’, ‘수장사회’, ‘족장사회’, ‘추방사회’ 등 다양하므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군장국가’로 한다고 하였다.<sup>43)</sup> 이는 성읍국가론에서 성읍국가를 대신하는 용어로 제안된 것으로<sup>44)</sup> 실제 chiefdom으로부터 state로 진전되는 단계이므로 ‘군장국가’로 표기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sup>45)</sup>

40) 이와 관련하여 신선혜, 2017, 「제2차 교육과정기 한국 고대사 연구와 국사교과서의 서술 검토」, 『역사와교육』 24 참고.

41) 김정배, 1986, 『한국고대의 국가기원과 형성』, 고려대 출판부.

42)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146-147쪽.

43) 변태섭 등, 1986,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45-46쪽.

44) 이기백,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89-90쪽.

45) 이기동, 1987, 「한국고대국가기원론의 현단계」, 『한국상고사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78-181쪽.

그러나 군장사회와 군장국가는 엄연히 다른 단계이다. 군장사회는 국가 발생 이전을 칭하는 것이므로 군장과 국가는 혼용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을 교과서 필자가 이해하고 있었음은 ①의 밑줄 친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sup>46)</sup> 다만 이후의 단계인 연맹왕국의 경우 이전 시기 성읍국가론에서 가져온 개념으로, chiefdom론과 성읍국가론이 절충된 양상으로 해석된다.<sup>47)</sup> 이러한 절충양상은 ‘시안’의 단계에서 청동기시대 상한과 국가기원을 관련지으려 한 점을 통해 지적된 바 있는데,<sup>48)</sup> 아마도 다양한 견해를 수렴하는 과정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부분이 아닌가 한다.

이와 더불어 중앙집권국가의 개념 역시 상대적인 것으로, 삼국시대 이전 시기의 사회 또는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중앙 집권되었다는 서술은 가능하지만, 중세, 근세, 근대사회의 국가보다 중앙 집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대 사회의 국가를 중앙집권국가로 명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참고된다.<sup>49)</sup>

한편 ② 역시 5차 교육과정기 교과서부터 나타나는 특징적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대체로 유사역사학계가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불신하는 경향을 식민사학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된다. 그런데 역사학계가 『삼국사기』 초기기록을 모두 믿지 않는다고 파악하는 것은 명백한 오류이다. 앞서 1960년대 후반부터 고고학계에서 『삼국사기』의 초기기록 연대를 신빙할 수 있는 성과들이 도출되었던 점을 언급하였는데, 실상 이와 함께 역사학계에서는 이른바 수정론적 입장에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을 연구에 활용하고 있다.<sup>50)</sup> 이렇게 본다면 건국 시조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설화가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 두고 생성되었음이 전제되므로 별다른 문제를 발견할 수 없으나, 건국연대를 『삼국사기』에 근거해 서술하는 것은 삼국의 건국과정에 대한 이해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도 이러한 점을 경계하였으나 이 역시 반영되지 않았다.<sup>51)</sup>

다음으로 ‘준거안’ (11)에서 다루고 있는 백제 요서진출에 대한 부분은 교과서 서술상으로는 『국사』(1983)와 『국사』(1990)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나 『국사』(1990)에는 다음과 같은 지도가 삽입되었다.

46) 이를 교과서가 서술되는 과정에 원래 군장사회론의 견해가 그대로 살아남게 되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89-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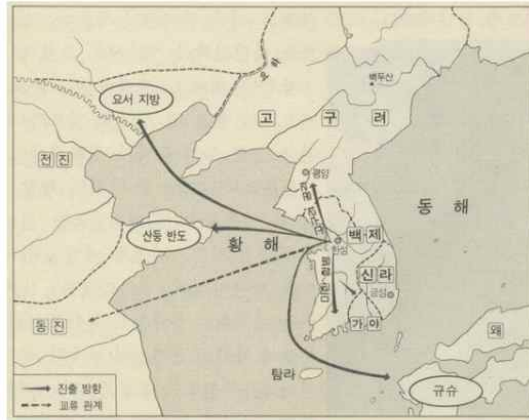
47) 금경숙, 1992,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내용 분석 : 고대사 부분을 중심으로」, 『강원사학』8, 29-30쪽 ; 최광식, 2001, 「상고사에 대한 바람직한 교육 방안」, 『단군학 연구』5, 10쪽.

48) 「개편시안 다시 만들어야」 『한국일보』(1987.04.02.)

49) 박찬홍, 2009, 「제3차~제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 국가 발달단계론에 대한 서술 검토」, 『역사와 담론』54, 97-98쪽.

50) 이기백, 1987, 「동아 고대문헌의 신빙성 문제(종합토론)」, 『아시아문화』2, 119-120쪽.

51) 변태섭 등, 1986,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46-47쪽. ‘시안’이 발표된 후 이기백은 삼국의 건국설화를 기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학문적 진리에 충실해야」 『한국일보』(1987.03.28.)



백제의 발전(4세기 후반)

백제의 요서진출설은 3차 교육과정부터 국사교과서에 등장하는데,<sup>52)</sup> 당시 역사학계에서는 백제의 요서진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sup>53)</sup> 긍정론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아직 정설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적지 않다는 견해가 대부분이었다.<sup>54)</sup> 이와 같이 백제의 요서진출 여부는 당시까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하여 ‘내용 전개’의 ‘준거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 e) 백제의 요서 지방 진출설에 대하여는 일찍이 한진서가 『해동역사』 속편에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일단 이를 부인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송서』, 『양서』 등 중국 정사의 백제전 기록에서 명백한 오류를 발견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사실로 기술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한다.<sup>55)</sup>

요서진출설이 강대한 백제를 강조하기 위한 유사역사학계의 주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 『국사』(1990)의 단계에 충분한 연구성과가 도출되지 못했던 것에서도 교과서 서술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부정론이 지배적으로 확산된 것은 1989년 중국측 기사를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로 보여지기 때문이다.<sup>56)</sup> 다만 『국사』(1990)에 위와 같은 지도가 삽입되고 요서 지방, 산동반도로 향한 화살표가 굵은 선으로 시각화됨으로써 백제 역시 고조선, 고구려와 같이 강대한 국가였음이 강조된 것은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이 상정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준거안’의 항목이 교과서 서술에 반영된 실재를 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의 서술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는데, 앞서 ‘준거안’ 확정의 단계에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파악된 것과 달리 교과서 서술의 단계에서는 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음이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국사교과서가 출간되기 전까지 유사역사학계가 언론, 권력과 연계하며 강경한 입장을 연일 내놓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민족사 바로잡기 국민회의를 비롯한 유사역사학 단체들은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 국학연구기관이 그들의

52) 2차 교육과정기부터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3차 교육과정기에 서술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이부오, 2010,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4, 245쪽)

53) 김정학, 1981, 『百濟と倭國』, 221-222쪽.

54) 이기백, 이기동, 1982, 『한국사강좌』1(고대편), 195-197쪽.

55) 변태섭 등, 1986,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49쪽.

56) 유원재, 1989, 「『백제약유요서(百濟略有遼西)』기사의 분석」, 『백제연구』20.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촉구하는 진정서를 문교부 등에 발송하였고, 집필 중인 국사교과서의 내용에 그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교과서의 출판금지 가치분 신청을 내겠다는 강경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보아<sup>57)</sup> 이전과 달리 그들의 영향력이 교과서 편찬에 미쳤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이외의 서술 변화 특징과 배경

‘준거안’을 비롯한 시안류는 다양한 견해가 제출된 주제에 대한 내용 수렴을 위해, 혹은 꼭 다뤄져야 할 주제임을 강조하기 위해 압축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에 그 외의 주제에서도 연구성과의 진전에 따라 서술의 변화상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암각화의 편년 부분에 대해 살피고, 이외 『국사』(1990)에 새롭게 보이는 서술들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표7> 반구대 및 고령 암각화 관련

『국사』(1983)	『국사』(1990)
<p><b>삼한</b> 당시의 예술품으로는 바위면을 쪼아서 새긴 암각화가 유명하다. 고령에서 발견된 암각화에는 원, 삼각형 등의 기하학적 무늬가 새겨져 있다.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듯하며, 다른 농업 사회에서의 태양 숭배와 같이 풍요를 비는 뜻으로 여겨진다.</p> <p>한편, 이보다 앞선 시대의 것으로 보이는 울주의 암각화에는 고령, 거북, 사슴, 호랑이, 토끼 등과 사냥하는 장면과 배를 타고 고기잡이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p>	<p><b>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의 예술</b> 바위 면을 쪼아 새긴 바위 그림은 당시 사람들의 활기에 찬 생활상을 보여 주고 있다. 울주의 바위 그림에는 고래, 거북, 사슴, 호랑이, 새 등의 동물과 작살이 꽂힌 고래, 밧에 걸린 동물, 울타리 안의 동물 등 여러 가지의 그림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사냥과 고기잡이의 성공과 풍성한 수확을 비는 염원의 표현으로 보인다. 고령의 바위 그림에는 동심원, 십자형, 삼각형 등의 기하학 무늬가 새겨져 있다. 동심원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으로, 다른 농업 사회에서의 태양 숭배와 같이 풍요를 비는 것이다.</p>

울산 반구대 암각화는 70년대 발견된 후 암각화에 그려진 내용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수몰에 따른 보존방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sup>58)</sup> 반구대 암각화는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발견 이후 편년에 대한 다수의 견해가 제기되었다. 특히 연구의 초기에 구석기 제작설이 제기되기도 하였고,<sup>59)</sup> 신석기~청동기,<sup>60)</sup> 철기<sup>61)</sup> 등 각 시대로 편년하는 연구들이 등장하였다. 이들 중 『국사』(1983)에 해당하는 시기에는 주로 기법의 측면에서 신석기시대설이 다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7>에서 『국사』(1983)에 반구대 암각화가 양전동 암각화보다 ‘앞선 시대의 것’으로 모호하게 서술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통일되지 않은 편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57) 「국사교과서 일 잔재 없애야, 제야역사단체 반영안되면 소송도 불사」 『경향신문』(1988.05.06.) 이후 안호상에 의해 국사교과서 발매금지 가치분신청이 제출되기도 하였다.(「식민사관 국사교과서 발매금지 가치분신청 초대문교 안호상씨」 『경향신문』(1990.12.17.)

58) 전호태, 2013, 『울산 반구대암각화 연구』, 20-21쪽.

59) 손보기, 1974, 『한국사』1, 탐구당, 13쪽 ; 임세권, 1984, 「우리나라 선사암각화의 연대에 관하여」, 『람사정 재각박사교회기념 동양학논총』, 고려원, 541쪽.


60) 황수영·문명대, 1984, 『반구대』, 동국대학교, 244쪽.

61) 김원룡, 1980, 「울주 반구대 바위그림에 대하여」, 『한국고고학보』9, 6-22쪽.

나 『국사』(1990)에서는 청동기, 초기 철기 시대로 위치 지워 상한을 청동기시대로 한정하여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청동기시대설이 통설화 되며<sup>62)</sup> 나타난 서술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외 『국사』(1990)에 새로 등장한 서술은 다음과 같다. 각 항목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배경에 대한 연구는 별고를 기약하고자 한다.

<표8> 『국사』(1990)에 새로 등장한 서술

소단원 및 주제	서술내용
삼국의 대외관계 (칠지도)	<p>일본에 보관 중인 칠지도라는 칼은 백제 왕이 왜왕에게 선물한 것으로서, 양국의 친교 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백제는 이와 같은 관계를 바탕으로 왜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여 삼국 항쟁에 이용하기도 하였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칠지도</p> </div>
통일신라의 왕권강화 (왕권의 전제화)	<p>삼국의 통일을 전후하여 초래된 중요한 정치적 변화 현상은 왕권이 전제화되었다는 점이다.</p> <p>... 왕권이 전제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진골 귀족 세력은 왕권에 눌러 약화되었다.</p>
신라 하대 사회의 동요 (6두품)	<p>이에 비하여, 6두품은 신분상의 제약으로 높은 관직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전제 왕권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다.</p> <p>... 최치원 등 6두품 지식인들은 신라 사회의 폐단을 시정하고, 새로운 정치 질서의 수립을 시도하였지만, 탄압당하거나 배척당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능력 중심의 과거 제도와 유교 정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을 마련하였다.</p>
남북국의 지방통치 군사조직의 정비 발해 문화의 성격 (발해사 비증 확대)	<p>발해의 지방 제도는 5경 15부 62주로 조직되었다. 즉, 수도인 상경을 비롯한 5경은 신라의 5소경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p> <p>지방 행정의 중심은 15부였으며, 62주가 그 밑에 편성되어 있었다. 부에는 도독, 그리고 주에는 자사를 파견하였으며, 주 밑에는 현을 두었다. 지방 조직의 말단인 촌락은 토착 세력이 지배하였다.</p> <p>... 발해의 군대는 8위로 조직하고, 각 위마다 대장군과 장군을 두어 통솔하였다. 이들 중앙 집권 국가의 정비된 군사 조직은 전제 왕권의 확립과 중앙 집권적 지방 통치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p>

62) 김원룡, 1986, 『韓國考古學概說』(제3판), 일지사, 97쪽.



	<p>...</p> <p>북쪽의 발해도 독특한 문화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발해는 귀족 문화가 발달하여 그 서울인 상경은 만주 지역의 문화적 중심지가 되었다. 특히, 발해는 문왕 때 당과 외교 관계를 맺은 후, 당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를 더욱 발달시켰다. 그러나 발해의 문화는 전통적인 고구려 문화의 토대 위에서 당의 문화를 흡수하여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한 고구려적인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온돌 장치, 미술 양식, 돌방무덤 등 구조가 고구려적 색채를 뚜렷이 드러내고 있다.</p>
--	---

#### 4. 맺음말

지금까지 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서술 특징과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5차 교육과정 개정과정에서 처음 마련된 ‘준거안’과 이의 확정을 위한 ‘내용전개의 준거안’ 및 ‘시안’ 등의 내용을 함께 살펴 교육과정 개정 및 국사교과서 서술의 배경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4차 교육과정기부터 찾아지는 유사역사학계의 영향이 5차에서도 발견되는가에 주목해 보았다. 그 결과 ‘준거안’의 확정까지는 이전 시기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교과서 편찬의 단계에서 언론과 권력을 통해 유사역사학계의 학설을 반영하기 위한 강력한 행동을 취하였음이 확인되었고, 나아가 교과서 서술양상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준거안’ 확정까지의 과정에는 역사학계의 논의들이 대부분 반영되었는데, 여기에는 그간의 진전된 연구성과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었다.

본고는 ‘준거안’ 및 시안류의 항목별 정치한 분석과 교과서 서술내용의 연구사적 배경 천착이라는 남은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간 주목되지 않은 편찬자료들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과서 분석에 자료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환기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토론문>

## “제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특징과 배경” 토론

임상선

5차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교과서에 반영되는 과정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교과서 편찬의 기준이 되었던 준거안 자체가 변화를 겪으며 결정되는 과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 준 점이 인상적입니다.

발표문과 관련된 전체적인 느낌과 몇 가지 궁금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표문을 통해서 느끼는 전체적인 느낌은 5차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일본역사교과서 왜곡, 이른바 유사역사학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원에서 고대가 선사와 고대로 나누어지고, 통사적인 기술이 정치, 경제, 문화 등 주제별 서술로 변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띕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30여년 전의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한 검토는 오늘날의 학적 기준에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당시 어떠한 배경과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1. 고조선과 한군현 관련

- 고대에 속했던 고조선이 5차에서 선사 단원에 들어갔을 때 논란이 없었는지.

고조선은 그 건국 시기는 차지하더라도, 문헌기록 등이 나오는 국가로 기술하면서 선사 단원에 편입했을 때, 반론이 있지 않았는지

- 2. 표1.국사교과서 편찬 준거안의 고대사 항목에서 “고조선의 정치적 변혁으로 설명한다”는 기자조선 관련 시안의 내용이 어떠한지

- 쟁점인 고조선의 평양이나 한사군에서는 위치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 2. 임나일본부 관련

- 고등학교 준거안에서 “이른바 임나일본부설의 허구성을 주에서 기술”하고 중학교에서는 기술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임나일본부는 그 용어의 존재와 더불어 4세기부터 6세기까지의 한일관계에 대한 일본학계의 인식이 핵심인데, 주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술했는지

### 3. 지도와 유사학계 관련

- 고대사 부분에 고조선의 세력범위, 백제의 요서 진출 등의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는 본문보다 명확하게 관련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지도의 수정, 보충이 유사학계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유사학계만 아니라 학계 이외의 인식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 교과서 내용이 편찬과정에 학자만 아니라 비학자 집단이 절대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 유사학계 이외의 영향은 어떠했는지.



<제4발표>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

허은철(총신대학교)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

허은철(충신대학교)

---

## 목 차

---

- I. 서론
  - II. 국사과 교육과정과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의 특징
    - 1. 국사과 교육과정의 특징
    - 2.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의 특징
  - III. 고려사 서술의 영역별 분석
    - 1. 정치사
    - 2. 사회경제사
    - 3. 문화사
  - IV. 결론
- 

## I. 서론

5차 교육과정은 학문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교육내용의 적정화, 내실화, 지역화를 개정의 방침으로 하고, 지속성(제4차 교육과정의 골격 유지), 전진성(혁명적이고 총체적인 개혁보다 현실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인 개선), 효율성(교육과정이 의도한 대로 기대하는 교육적 성취를 가져오도록 하는 제반조치 시행)을 개정 전략으로 1987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87-7호에 의해 개정되었다. 5차 교육과정의 배경은 “고도 산업화, 정보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제 관계의 다양한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만을 개선하려했던 문교부의 당초 의도와는 달리 전면적인 개정의 형식이 취해졌으나, 내용상으로 볼 때 제4차 교육과정과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제5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든다면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1)</sup>

5차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의 방향은 자주적, 창조성, 도덕성 교육이었으며, 이것은 국사 교육에도 영향을 미쳤다. 5차 교육과정에서도 국사는 독립 교과로 편제되었으며, 역사교육은 독립된 국사와 사회과 속의 세계사라는 이원적 체제가 유지되었다. 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는 형식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교과서가 상하 두 권으로 분량도 늘었고, 책

---

1)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1990, 31쪽.

크기도 국판에서 신국판으로 커졌다. 이것을 감안하면 전체 분량은 40% 정도 증가한 것이다. 5차에서 강조하는 역사적 자료 처리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를 수록하였다. 특히 역사학계의 학문적 연구 성과를 많이 반영하였다. 일본교과서의 한국사 왜곡 서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역사적 용어에 대한 비판과 시정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 대한 분석은 차미희<sup>2)</sup>와 최용규<sup>3)</sup>, 장미애<sup>4)</sup>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전체 역사과 교육과정을 다루면서 5차 국사과 교육과정을 다룬 글들이 있다.<sup>5)</sup>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5차 교육과정 국사과의 특징을 알아보고, 특히 고려시대(중세)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한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5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고려사 서술에 집중하여 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 II. 국사과 교육과정과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의 특징

### 1. 국사과 교육과정의 특징

5차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의 기본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과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계속되어 있는 국사 교과서 내용 시비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의 계열성 확립을 개선하는 방향을 취하였다. 5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한 기초연구에서는 4차 교육과정에서 국사 내용의 학교급별 계열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초·중·고에서 거의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어 생활사 중심, 정치사 중심, 문화사 중심 구성이라는 당초의 계열화 방향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었다.<sup>6)</sup> 이러한 지적은 5차 교육과정이 계열성 확보 방안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5차 교육과정 국사과의 첫 번째 특징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학교에서는 주제 중심 내용 선정을 고등학교에서는 분류사 체제에 따른 단원 구성을 계열화 방안으로 전면내세웠다는 것이다. 연대기적 방법은 역사의 고유한 시간 차원에 해당하므로 중·고등학교에서 모두 대단원 조직 방법으로 삼되, 그 안에서 다루는 내용을 주제 중심, 구조 중심으로 달리 한다는 접근법인 것이다. 당시 현장 역사교육의 문제점으로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파악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제 중심 구조와 구조사 중심 구조를 각각 중·고등학교에 적용하여 동일한 내용의 반복을 피하고자 하였다.<sup>7)</sup> 특히 문화사 중심 구성이 의미했던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시대 인식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구조로서 분야사적 접근을 강조했다. 그렇다고 종래의 정치사-문화사 기준을 포기하였음

2)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1989~95)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1), 이화여자대학교 교육연구소, 2008.

3) 최용규, 중학교 국사과 새교육과정의 특징, 사회과교육 2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87.

4) 장미애,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 - 4·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6.

5)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 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13-3, 2006;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한국사회과교육학회, 2005; 윤용혁·문경호, 국사 교과서 속의 몽골 관련 서술, 교과교육학연구 15-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등이 있다.

6) 김희목 외, 제5차 초·중학교 사회과 및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 1986, 238쪽.

7) 김희목 외, 위의 글, 237-239쪽.



을 뜻하지는 않는다. 종래의 계열화 기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학교급별 차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덧붙여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계열화 방향은 중·고등학교 단원 구성으로 잘 나타난다.<sup>8)</sup>

이를 위해 중학교에서는 역사의 주요 흐름을 구성하는 사건과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그러한 흐름의 내용을 좀 더 종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문화적 내용을 덧붙였다. 또한 불가피하게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다룬다 해도 중학교에서는 인과관계 측면을 강조하게 되고, 고등학교에서는 해당 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그 사건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였다. 그런 점에서 고등학교에서 분야사적 조직 방식을 택한 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이다. 고등학교 학습이 한층 종합적이어야 한다는 것, 즉 문화사 중심 구성이라는 기준에 함축되어 있던 역사학습의 특성을 명확히 하면서 중학교와 차별화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다. 그 결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분류사로 나누어 단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국사의 실제 내용 구성은 여전히 비슷한 모습을 띠었다. 주제 중심, 구조사 중심이라는 아이디어가 실제 내용상의 차이로 구체화되는 데까지 나가지 못한 것이다. 중학교 교과서 또한 정치사 중심의 통사로 서술되었기에 교육과정의 계열화 방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둘째로 5차에서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강조하였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역사적 사고력이 강조되었지만 5차에서는 모든 요소에서 역사적 사고력의 육성을 명시적으로 명확히 개념화하였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문화 및 사회경제면을 중심으로 한 국사를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한다는 점을 제시하였고, 각 시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강조하였다.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단원 개관’과 ‘학습 개요’의 진술과 더불어 ‘학습 문제’와 ‘학습 정리’를 주제별로 일관성 있게 서술하였다.

또한, 단원 개관 하단부에 동일 년도에 발생한 한국사와 세계사 내용을 비교하며 한국에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 국외에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두었다. 3차 교육과정 단원 개관에서 최초로 등장했던 연표가 4차 교육과정 때 사라졌다가 5차에 다시 등장했다. 3차와 다른 점을 하나 더 꼽자면 3차는 중국, 일본, 서양을 함께 비교했지만, 5차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로 묶어서 우리나라 역사와 비교했다는 것이다. 단원에 들어가며 한국사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세계사적 사건들을 배치하여 연표를 통한 전체적인 역사 조망을 한국사를 중심으로 바라보도록 구조를 조직하였다.

8)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 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13-3, 2006, 111쪽.



마지막으로 5차 교육과정에서는 고고학 용어와 옛 지명의 현재 명칭 등이 아래 <표 1>과 <표 2>와 같이 제시되었다. 이전에는 이런 내용들이 교과서 본문에 끼이는 채로 함께 삽입되거나, 고고학 용어와 같은 경우 아예 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5차 교육과정 대부터 새롭게 등장하게 되었다. 개념을 확립할 수 있는 동시에 지도를 통한 역사적 공간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

<표 1> 고고학 용어 (일부)

[개정 용어]	[개정 이전 용어]	[개정 용어]	[개정 이전 용어]
가락바퀴	방추차(紡錘車)	모줄임 천장	말각 조정식 천정 (抹角藻井式天井)
가지무늬 토기	채문 토기(彩文土器)	민무늬 토기	무문 토기(無文土器)
간석기	마제 석기(磨製石器)	바위 그림	암각화(岩刻畫)
갈판	연석(碾石)	바퀴날 도끼	환상 석부(環狀石斧)
거친무늬 거울	조문경(粗文鏡)	바탕흙	태토(胎土)
거푸집	용범(鎔範)	반달 돌칼	반월형 석도(半月形石刀)
검은 간 토기	흑도(黑陶)	받침돌	지석(支石)
고인돌	지석묘(支石墓)	번개 무늬	뇌문(雷文)
구덩무덤	토장묘(土葬墓)	벽돌무덤	전축분(塼築墳)

<표 2> 옛 지명의 현재 명칭(\* 표는 현재의 소재지) (일부)

[옛 이름]	[현재 이름]	[옛 이름]	[현재 이름]
가리포(加里浦)	*강진	상경 용천부(上京龍泉府)	동경성(만주)
가림성(加林城)	*부여	쌍성(雙城)	*영흥
가산(嘉山)	박천	서경(西京)	평양
갑주(甲州)	갑산	서경 압록부(西京鴨綠府)	통구(만주)
강동성(江東城)	*강동	서라벌(徐羅伐)	*경주
강음(江陰)	금천	서안평(西安平)	안동(만주)
강주(康州)	진주	서원경(西原京)	청주

이외에도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사와 세계사 모두 근현대사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인접 학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sup>11)</sup>

11) 최상훈, 앞의 글, 227쪽.

## 2.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의 특징

1990년부터 사용된 5차 교육과정 국사는 이전 교과서에 비해 전체적인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고등학교 경우 상권은 178쪽에서 196쪽으로, 하권은 178쪽에서 202쪽으로 늘어났다. 또한, 한쪽이 25행에서 29행으로 늘어남으로써 페이지 당 글자 수도 증가하였다.<sup>12)</sup> 이처럼 국사교과서의 내용이 증가한 것은 역사적 사고력 신장이 교육 목표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연표, 사진 등이 보완되었기 때문이다.<sup>13)</sup> 교과서 전체 분량이 늘어나면서 고려 관련 서술도 늘어났다. 특히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에서 문화사와 사상사, 사회경제사 분야를 중시하면서 연대사적 구조 안에서 구조사적 접근을 강조하며 분류사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표방하였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가 역시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 대단원의 시기 내에서 분류사 형식을 일정하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는 ‘고려사회의 발전’이라고 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중세사회의 발전’이라고 해서 중학교는 왕조명을 따라 구분하였고, 고등학교는 중세라고 하는 시대구분법에 따라 기술하였다.

### 중세 사회의 발전

나말여초의 시대 전환이 가지는 역사적 의의를 이해하게 하고 고려 귀족 사회의 그 문화의 특성을 고대 사회와 비교하여 파악하게 하며 후기의 사회 변화와 문화의 새 동향을 인식하게 한다.

- (1) 중세 사회로의 이행
- (2) 중세의 정치적 변천
- (3) 중세의 사회와 경제
- (4) 중세 문화의 발달

영역별 교재 내용의 분량을 살펴보면 정치사적 교재 내용의 분량이 48쪽 중 12쪽으로 25%를 차지하고 사회경제사적 내용이 10쪽으로 20.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사적 내용은 15쪽으로 31.3%를 차지하고 있다. 교과서 전체에서는 문화 영역 내용이 다소 풍부해졌지만 세부 목차를 보면 대개 정치사 영역의 내용으로 고려 시기 서술 내용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차 교육과정은 문화사와 사상사 사회경제사 분야를 중시하면서 연대사적 구조 안에서 구조사적 접근을 강조하며 분류사 중심으로 구성할 것으로 표방하였다. 정치·사회·경제·문화가 역시 모두 언급되어 있는데 대단원의 시기 내에서 분류사 형식을 일정하게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영역별 교재 내용의 분량을 살펴보면 교과서 전체에서는 문화 영역 내용이 다소 풍부해졌지만 세부 목차를 보면 대개 정치사 영역의 내용으로 고려 시기 서술 내용은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5차 국사과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준거안에 영향을 받았다. 한국 상고사에 대한 재야사학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학원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현대사교육을 정립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1986년 10월 문교부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의 협의 하에 국사교육심의회를 구성하고, 학계의 연구업적을 총정리한 뒤 국사교과서 편찬의 준거안을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개편하기로 결정하였다.<sup>14)</sup> 국사교육심의회에서는 준거안을 마련하면서 “국사교육

12)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53쪽.

13) 차미희, 5차 교육과정(1989~95)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1), 이화여대교과교육연구소, 205쪽.

14)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역사실학회, 1999, 112쪽.

내용의 서술은 한국사 학계의 연구 성과를 기본으로 삼는다. 여기에는 최근의 새로운 업적을 중심으로 학계의 승인된 학설을 적용한다. 주체적인 역사의식에 입각한 민족사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하도록 한다.”라는 기본 입장을 제시하였으며, 1987년 6월에는 준거안을 확정하였다. 준거안은 교과서는 물론 그에 앞서 제정된 5차 중등 국사과 교육과정에도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은 준거안에서 고려사 부분이다.

### 1. 귀족 관료 국가의 형성

- 1) 호족은 과거를 통하여 중앙 귀족 관료로 전환함으로써 호족 연합 정권으로부터 귀족 관료 국가로 발전하였다.
- 2) 호족세력을 기반으로 하여 후삼국과 발해로 나뉘어져 있던 민족이 고려라는 하나의 국가 기구 속에 통합되었다. 고려는 신라 편중을 지양하고 고구려 구토 회복을 위한 북진 정책을 썼다.
- 3) 귀족들은 중앙집권적인 기구 속에서 왕권의 전제화를 제약하고, 귀족 전체의 특권을 공동으로 보장하기 위한 유교적 정치 이념을 마련하였다.

### 2. 귀족 관료 국가의 구조

- 1) 귀족들은 출신지인 본관을 상징적 표시로서 내세우며 문벌을 중시하였고, 음서제도를 통하여 관직을 세습하는 특권을 누렸다.
- 2) 고려의 정치는 문반의 고급 귀족관료들의 합의제를 상층으로 하고, 행정적 관료에 의한 사무 집행기구를 하층으로 하는 이중적 구조를 가졌다.
- 3) 고려의 지방제도는 군현이 중심이었으나 그밖에 천민들의 거주지인 부곡·향·소도 있었다.
- 4) 귀족들은 공급 공납을 원칙으로 한 전시과의 지급을 받았고 또 세습이 용인된 공음전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들의 경제 기반이 되었다.
- 5) 고려는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각 하에 선진적인 문명 국가와는 평화적인 문화 교류를 하고, 후진적인 유목 민족에 대하여는 문화적 혜택을 입히는 한편, 그 침략에 대하여는 과감한 투쟁을 수행하였다.
- 6) 고려사회에는 밑으로 농민에게 상승할 기회가 개방되고, 위로는 귀족으로 상승할 기회가 주어진 중간계층에 있어서, 이들이 사회적 신분의 유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 7) 농민은 토지의 경작자로서 전호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 8) 특정 문벌의 정치권력 집중과 사적인 경제기반의 확대는 귀족 전체의 공동 권의 보장을 위한 제도를 파괴하고, 귀족 상호 간의 경쟁으로 전개되었다.

### 3. 고려의 귀족문화

- 1) 불교는 교종과 선종의 사상적 대립을 지양하기 위하여 교리적인 정리를 진행하는 한편, 대장경과 속장경의 간행의 간행을 보았다. 그리고 공덕 사상에 입각한 각종 법회가 성행함으로써 전사회와 밀착하게 되었다.
- 2) 고려 지배체제의 정치이념으로서 등장한 유교의 영향으로 정치의식이 성장하고, 한 문화의 교양이 심화되어 귀족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
- 3) 고려초 호족의 세력을 뒷받침하는 사상 체계로 등장한 풍수지리설은 불교와 결합하여 신흥 유교세력과 대립하게 되었다.
- 4) 문학, 음악 및 미술은 점점 종교적 성격을 탈피하고 귀족들이 생활의 여유를 즐기는 것으로 되었다.

### 4. 무신정권과 대몽항쟁

- 1) 신분적인 차별 대우에 불만을 품은 무신들이 일반 군인의 지지를 받아 문신정권을 타도하고 정치적 신세력으로 등장하였다.
- 2) 무신들은 사병을 조직하여 각자의 권력 확대에 노력하였으며, 문신으로부터 탈취한 농장이 그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하여 주었다.
- 3) 최씨 정권은 왕권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문신과 무신을 아울러 지배함으로써 정치의 실권자로 군림하였다.
- 4) 무신 정권하에서 벌어지는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은 지방관의 악정을 시정하려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부터 차차 신분해방과 정권탈취를 목적으로 한 조직적인 것으로 발전하였다.
- 5) 무신전권 하에서 문인들의 사회적 제약성이 완화 문학을 전개하고, 현실 세계로부터 축출된 불교는 선종을 발전시켰다.
- 6) 귀족의 문화적 우월 의식과 농민의 애항심이 결합하여 몽고에 대한 장기적인 항쟁을 지속시켰으며, 그 결과로 독립을 상실함이 없이 강화를 맺을 수가 있었다.

##### 5. 고려후기의 사회와 문화

- 1) 고려 후기에 외세를 업고 등장한 권문세가들이 농장과 노비를 증대시킨 결과 국가의 경제와 국방에 타격을 주었다.
- 2) 고려 후기 향리층에서 과거를 통하여 중앙정치 무대에 등장한 학자적 관료인 사대부들은 정치적 신세력으로 성장하여 안으로 농장과 노비제도의 모순을 개혁하고 밖으로는 외세의 간섭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 3) 역사학은 유교적인 도덕을 바탕으로 한 합리주의적 경향이 점차 지배적으로 되었으나, 한편 고유한 전통을 존중하는 경향도 있었다.
- 4) 사대부들은 그들의 사상적 배경을 우주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이해에 두었고, 미술에 있어서는 풍류를 즐기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 5) 문학에 있어서는 궁정 중심의 권문세가들이 향락적인 민요풍의 장가를 즐겼고, 사대부들은 관료적 출세를 노래한 경기체가와 전원생활을 전제로 한 어부가를 지었다.
- 6) 과학기술은 우리의 창조적 전통을 바탕으로 하고, 밖으로는 원과 아라비아의 기술을 받아들여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발전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고려 단원의 서술 체계를 아래 <표 3>에서 보면, 중학교에서는 여전히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중단원을 구성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중세’라는 시대구분법에 따라 분야사로 교과서의 중단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4차에서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었던 것이 5차에서는 4개의 중단원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고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시기적으로 서술하였던 체제에서 벗어나 고려사 전체를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라는 분야사로 나누어 각각 서술하였다. 무엇보다도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중세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중단원을 새롭게 추가하여 고려가 고대사회와는 성격이 다른 중세사회임을 강조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히 쪽수만 비교하면 4차에서는 27.5%에서 5차에서는 29%로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교과서 판형이 커진 것을 고려하면 그보다 훨씬 분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4차와 5차 중·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및 국사 교과서 목차

5차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5차 중학교 국사 교과서
(2학년) 3) 고려 사회의 발전 (1) 민족의 재통일과 정치의 안정 (2) 귀족 중심의 사회와 문화 (3) 귀족 사회의 동요 (4) 몽고의 침입과 민족의 항쟁 (5) 사회문화의 새로운 변화	4) 고려 사회의 발전 (1) 고려의 성립 (2) 국가 체제의 정비 (3)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 (4) 고려 전기의 사회 (5) 고려 전기의 문화 (6) 귀족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 (7) 고려 후기 사회의 변화 (8) 고려 후기의 문화
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3) 중세 사회의 발전 (1) 중세 사회로의 이행 (2) 중세의 정치적 변천 (3) 중세의 사회와 경제 (4) 중세 문화의 발달	(상권) 3) 중세 사회의 발전 (1) 중세 사회로의 이행 (2) 중세의 정치와 그 변천 (3) 중세의 사회와 경제 (4) 중세 문화의 발달
4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4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2) 중세 사회의 성장 (1) 중세 사회의 성립 (2) 귀족 중심의 경제 생활 (3) 불교 중심의 문화 (4) 귀족 사회의 동요 (5) 중세 문화의 변질	(상권) II. 중세 사회의 발전 1. 고려의 건국과 귀족 사회의 성립 2. 귀족 사회의 발전과 변동 3. 고려 후기의 사회와 문화

5차 교육과정에서는 3차 때 포함하고, 4차 때 포함하지 않았던 ‘학습개요’와 ‘학습 문제’를 다시 포함 시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중단원을 정치의 흐름이 아닌 ‘분류사’, 즉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영역 별로 조직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흐름은 이후 6차를 거쳐 7차의 대단원까지 이어진다.

고려 단원의 도표는 4차(1개)에 비해서 5차(5개)에서 많이 증가하였다. 고려시대에 도표가 새롭게 많이 들어왔는데 고려 시대 중앙 정치 기구, 고려 시대 관리 등용, 고려 사회의 신분, 무신집권자와 지배기구 등 4개나 해당된다. 아쉬운 것은 도표가 정치사 중심이라는 것이다. 5차에서 도표를 통해 사회의 신분 구조에 대한 도표를 통해 학생들이 계급사회에서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지도도 ‘11세기경의 세계’와 ‘개경의 나성’이 2개가 추가되어 이전 6개에서 5차에서는 8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학습자가 스스로 사료를 분석하고 검토함으로써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사료 또한 4차(13개)에서 5차(15개)로 소폭 증가하였다. 고려시대는 5개에서 6개로 사료가 소폭 증가하였다.

### Ⅲ. 고려사 서술의 영역별 분석

#### 1. 정치사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새롭게 설정된 첫 번째 중단원인 중세 사회로의 이행'은 '고려의 성립'과 '중세 사회의 전개'라는 2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었다. 후삼국에서 왕건이 통일을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고려의 성립'이라는 소단원에서 '호족의 대두'와 '후삼국의 성립'으로 나누어 더 자세히 관련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이전에 비해 호족에 대한 설명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신라 말에 성장하여 고려를 건국한 정치세력으로서 호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전 교과서에서 '후삼국 형세도' 지도만 실은 것과 달리 '호족의 성터' 사진을 함께 실은 것도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4차에 있었던 '국제관계의 변동'이라는 소주제가 사라지고 고려의 건국을 '민족의 재통일'이라는 별도의 소주제가 설정되었는데 이는 왕건의 통일을 단순한 통일이 아닌, 민족 화합의 면에서 보다 강조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바탕 위에 성립한 고려가 중세 사회임을 강조하기 위해 '중세 사회의 전개'라는 소단원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그중에서 '중세 사회의 성격'이라는 소주제를 설정하여 고려의 건국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고대 사회와 여러 면에서 다른 중세 사회의 전환이라는 역사적 사건임을 4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고려의 건국으로 중세 사회가 성립되었음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징표를 찾아볼 수가 있다. 고려 사회는 고대 사회와는 모든 면에서 확실히 다른 구조를 보여 주고 있었다.

첫째, 사회적 지배 세력으로 지방의 호족 세력이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고대 사회의 모순을 체험한 지방의 호족들은 새로운 사회를 추구하여, 중앙의 진골 귀족 중심의 폐쇄적인 사회를 개혁하는 데 앞장 섰다.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호족들은 자신들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신분 체제를 마련하였으니, 이른바 문벌 귀족 사회의 형성이 그것이다.

둘째, 유교적 정치 질서가 중시되었다. 6두품 계열의 유학자들이 고려의 정치에 직접 참여하면서 골품제의 조직 원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유교 정치 이념이 정립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마련된 정치 제도는, 신분제적 관념이 강조되었던 신라의 정치 제도에서 보다 진전하여 행정적 기능이 중시되었다. 그리고 통치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정비하였다.

셋째, 문화의 밀도가 크게 높아진 중세 문화를 발달시켰다. 고려의 문화는 신라 때의 고대 문화의 모순을 극복하였고, 중국과도 다른 독자적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즉, 혈족적 관념과 종교의 테두리에서 어느 정도 벗어남으로써 문화의 폭이 그만큼 넓어졌고, 선진적인 송의 문화를 수용함에 있어서도 모방적 단계에서 벗어나 독특한 개성을 보여 주었다. 또, 지방의 호족들이 문화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면서 지방 문화의 성격이 보다 뚜렷해졌다.

넷째, 강력한 민족 의식이 사회를 이끌었다. 고대 사회의 모순을 스스로 극복하였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오는 자신감은 곧 새로운 문화 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이를 토대로 하여 강력한 민족 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민족 의식은 고구려 강토의 회복, 그리고 북방 민족과의 항쟁 과정에서 잘 드러났다.



이와 같이, 나말 여초의 사회 변동은 단순한 왕조의 교체가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중세 사회로의 전환이었다. 더구나 그 변동은 외세의 간섭 없이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 큰 의의가 있다.<sup>15)</sup>

이러한 ‘중세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중단원과 ‘중세 사회의 성격’이라는 소주제를 설정한 것을 통해서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고려라고 하는 사회가 후삼국을 통일하여 민족의 재통합을 이룩한 왕조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고려 단원 서술의 방향성은 단원 첫머리에 연구과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1. 후삼국 성립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2. 고려 건국의 주체인 호족 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은 무엇인가?
3. 고려 건국과 민족 재통일의 의의는 무엇인가?
4. 고려 사회를 중세 사회로 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sup>16)</sup>

두 번째 중단원 ‘중세의 정치와 그 변천’은 귀족 중심의 지배 체제가 형성되면서 정착된 고려 특유의 정치 제도를 먼저 살펴보고자 하였다. 첫째 소단원인 ‘정치구조의 정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광종의 이러한 과단성 있는 정치는 신구 세력의 세대교체를 이루어 놓았으며, 왕권을 안정시키고 국가 기반을 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의 부분이 바로 그것이다. 4차에서는 광종의 업적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한계 또한 서술하였다. ‘광종은, 그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척과 호족 세력을 배제해야만 했다.’, ‘광종의 과단성 있는 개혁도 완전한 것은 못 되어, 광종 이후에 다시금 정치적인 혼란을 야기시켰다.’는 서술과 비교된다. 중앙 정치 제도와 관련한 내용은 5차에서도 3, 4차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이 서술되었다. 그러나 5차에서는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고려시대의 중앙 정치 기구’ 표-그림을 삽입하여 학생들이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하여 한눈에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중앙 제도 서술에 대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병마사와 같은 단어를 각주로 처리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제도에 관한 서술에서는 전국을 나누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 그 변천에 대해 이전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종 때에 3경, 4도호부(뒤에 5도호부) 8목을 두었다는 내용을 추가했는데, 이는 5차에서 처음으로 서술되는 것이다. ‘5도 양계-전국지도’는 이전에 삽입된 지도에 비해 선명하고 눈에 띄는 것으로 삽입되어 있다. 군사제도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내용이 추가되었다.

특히, 양 계에 배치된 주진군은 국방의 주역을 담당한 상비군이였다. 상장군, 대장군 등은 합좌 기관인 중방(重房)에서 군사 문제를 의논하였는데, 무신 정변 이후 권력의 중추 기구가 되기도 하였다.<sup>17)</sup>

둘째 소단원인 ‘귀족 지배 체제의 동요와 무신 정변’은 고려 전기의 정치 제도가 지배체제 내의 내부적 갈등과 밖으로부터 거란, 여진, 몽고족의 잇따른 침입에 의해 점차 변질되어 갔

15) 국사편찬위원회 1중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01쪽.

16)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85쪽.

17)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4쪽.

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은 고려의 귀족에 대한 지식을 학습자의 눈높이에서 설명했다는 점이다. 고려 귀족과 신라 귀족과의 차이점을 들며 자연스럽게 기술했고 학생들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했다. 귀족제 서술에 있어서 이전 교과서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귀족 사회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추가 설명되었다.

고려 전기는 이러한 귀족들이 중심을 이룬 귀족 정치 시대로서 이를 기반으로 귀족사회가 발달하였지만 이들은 점차로 읍서제나 공음전 제도 같은 정치적 경제적 특권을 차지하면서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모습을 띠어갔다.<sup>18)</sup>

연구 과제는 “고려 사회의 주도적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문벌사회의 동요를 정치세력 변화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연표에서는 한국사(=우리나라) 부분에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은 1135년에 발생한 것과, 세계사(=다른 나라) 부분에서는 1115년 여진이 금을 건국했음과 1127년 남송 왕조가 개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슷한 년도에 발생했던 세계의 사건들이 주변국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구조를 취하고 있었음을 학습자들은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군정 및 교수요목기, 1차, 2차에서는 ‘문벌사회의 동요’라는 소단원 안에 이자겸의 난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3차와 4차 교육과정에서는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난을 함께 묶어서 문벌사회의 동요에서 분리하여 소주제로 구성했다. 하지만 5차에서는 이자겸의 난 부분을 독립적인 서술 영역으로 기술했다. 그러나 서술 내용은 이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다. 사진 자료 역시 ‘대화궁 토성터’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두드러진 변화는 묘청의 ‘난’ 이라 표현하지 않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라 표현하였다는 것이다. 귀족사회의 동요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에서 묘청의 난을 서경천도론, 금국정벌론 등을 주장한 서경과와 이를 반대한 개경과의 정권 다툼으로만 강조하고 있어 지나치게 이항대립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셋째 소단원인 ‘대외 관계의 변천’은 3차, 4차 교과서와 크게 다른 점이 고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사전 이해로써 중국사 내지는 당시 동아시아의 정세에 대한 서술이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고려의 대외관계를 서술할 때 당시 국제적 정세를 중심으로 고려 상황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고려의 외교정책을 중심으로 당시의 대외관계를 서술하였다. 이는 4차 교과서에서는 ‘거란은~’으로 문단을 시작을 한 것과 달리 5차에서는 ‘고려의 외교정책에~’라고 시작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소주제 제목이 ‘국제관계의 변동’이 아닌 ‘북진정책과 친송정책’임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대외교류 서술에 있어서 ‘대송무역’에 대한 내용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송무역 서술에서 거래된 물품뿐만 아니라 이용되었던 해로(海路)까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 한중 교통사(交通史)에 대한 서술이 더 구체적으로 서술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에 비해 요(거란)와 금(여진), 일본과의 교역에 대한 서술은 달라진 점이 없었다.

‘몽고의 침입’에서 ‘몽고와의 전쟁’으로 제목이 바뀐 몽골의 침입에 대한 서술은 이전 교육과정과 대체로 서술이 비슷하였는데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노비와 천민들이 용감히 싸워 주었다’는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삼별초가 몽골에 투쟁하였던 유적지의 사진과 연표에서도 삼별초의 항쟁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의 서술을 통해 5차에서도 몽골의 침입에 저항하고 투쟁하였다는 민족의식을 나타내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18)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95쪽.

몽고 세력의 침입으로 고려는 각 분야에서 많은 손실을 입었으나, 강인한 민족정신이 토대가 되어 전통과 주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sup>19)</sup>

또 하나의 특징은 4차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던 하층민들의 저항에 관한 부분이 신분 해방 운동의 성격으로 다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 이전 교과서에 단순히 ‘하층민들이 저항했다’라고만 기술되었던 것에서 더 나아가 관악산 초적이 주도한 관악산 전투와 충주성 노군·잡류들의 항쟁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sup>20)</sup>



<지도1 4차 민란도>



<지도2 5차 농민과 천민의 항쟁>

위 지도처럼 4차에서는 ‘민란도’라고 했던 지도 제목이 5차에서는 ‘농민과 천민의 항쟁’으로 그 제목이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사에서 민중의 역할을 강조하려고 한 것이다. 새롭게 “한편, 승려들도 무신 정권에 반발하여 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라고 추가된 내용도 있다. 기존 농민과 천민의 저항이라는 서술에서 벗어나 조금 더 다양한 사회 계층의 반란들을 서술한 것이다. 4차 교과서에서 농민과 천민의 고통에 대한 서술이 특징적이었다면, 5차에서는 3차와 마찬가지로 문신 정권 때에도 농민과 천민들의 동요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을 첫머리에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단지 무신 정권의 집권의 결과로서 성격만을 가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천민의 저항 목적을 ‘신분 해방’만이 아니라 ‘사회적 부당 대우에 대한 저항’으로도 기술하고 있다.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사료로 제시되었던 ‘최충헌의 시무 10조’가 본문에서 축소 서술되는 등 조심스러운 비판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최씨 무신 정권은 대몽항쟁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었다. 최씨 무신정권의 붕괴 원인을 ‘장기간에 걸친 외침에 대해 정부의 뚜렷한 대책이 없자, 민심이 최씨 정권을 떠나게 되어’라고 기술하여 민심의 이반을 최씨 무신 정권의 붕괴 원인으로 꼽은 것이 특징이었다. 4차 교과서에서 하나의 주제로 다뤄졌던 몽골풍에 대한 자료는 각주로 처리되었으며, 삽화로는 삼별초의 항몽순의비에서 강화산성 사진자료로 바꾸어 수록되었다.

이후 원 간섭기 서술은 4차와 거의 같으며, 원의 내정간섭과 풍속의 변동의 두 소제목으로 나누어 다루었던 이전과는 달리 ‘원의 내정간섭’을 ‘자주성의 시련’이라는 소제목으로 두

19)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1쪽.

20)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01쪽.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서술하고 있다. 이전 교과서의 '풍습의 변동' 부분이 없어져 원의 풍습이 고려에 들어와 유행했고, 고려의 풍습이 원에서 유행하여 '고려양' 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생략되었다. 대신에 몽골풍, 고려양, 공녀, 조혼 풍습에 대한 설명은 '-고려 사회의 본래의 모습이 변질되기도 하였다.'라는 문장에 각주를 달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원의 내정간섭'을 '자주성의 시련'이라고 소주제 제목을 바꾸어 서술함으로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족 의식적 관점에서 교과서를 서술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시기 고려 후기의 신진사대부 연구와 짝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신진사대부 이전의 지배 세력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것은 권문세족에 대한 연구로 나타났다. '권문 세가'에서 '권문세족'으로 '신진 세력'에서 '신진 사대부'로 용어가 변경된 것이 큰 변화이다. 이 같은 연구 경향이 교과서에 반영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문세족은 고관 요직을 장악하고 거대한 농장을 소유했던 고려 후기의 집권 세력이었다. 그들은 과거 보다 주로 음서에 힘입어 관인으로서의 신분을 세습시켜 나갈 수 있었다. 또 그들은 가문을 기초로 삼아 종적인 가족 관계와 횡적인 혼인 관계를 통하여 세력 범위를 넓혀 나갔다. 이러한 권문세족들 중에는 고려 전기로부터 그 세력을 이어 내려오거나 무신정권 시대에 대두한 가문도 있기는 하였으나 주로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여 등장한 경우가 많았다. 권문세족들은 국정의 최고 합의기관인 도평의사사를 독점하여 정권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농장과 많은 노비를 소유하여 경제적인 부를 축적하고 있었다. 농장의 소유주인 권문세족들은 개경에 살고 있는 부재지주로서 전국 각처에 소유지를 가지고 있었다.<sup>21)</sup>

이들의 중요한 특징으로 ① 문학적 또는 유교적 소양이 없이 대부분 과거 보다는 음서를 통해 입사하였고 ② 왕권이 약화되어 있는 가운데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정치권력을 장악하였고 ③ 원과 결탁하는데 적극성을 띠었고 ④ 경제적 기반을 농장에 두고 있는 대토지 소유자였고 ⑤ 관료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들었다. 이처럼 권문세족이 사대부와 대비되는 존재였던 만큼 이 연구를 계기로 사대부의 개념이 더욱 선명해졌고 고려 후기의 정치사를 권문세족과 사대부의 대립이라는 틀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대한 서술은 개혁을 위한 진통을 겪는 일련의 변천 과정으로 파악하였다.<sup>22)</sup> 5차에서 해당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이전의 4차에서는 공민왕 당시의 구 귀족과 신진 관리를 중심으로 공민왕의 개혁정치를 살펴보고자 했던 반면, 5차 교육과정에서는 공민왕 개혁정치의 의의를 살펴보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5차에서는 고려 말 무신들의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최영 그리고 신흥무인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이성계가 고려에서 이름을 알리고 존재가 커졌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알려준다.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성계 황산대첩(1380년)', '최영 홍산대첩(1376년)' 등이 쓰여 있는데,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그냥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고려시대 때부터 무신으로 성장해서 신진사대부와 백성들을 힘입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었다는 순서를 알려준다. 과전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초기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과전법을 실시해, 땅을 나누어주고, 나라는 재정을 확충하는 법을 제정한다. 그리고 이전에서는 '정도전과 이런 급진파 사대부들이 이성계를 '끌어 들였다.' 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5차에서는 이런 표현보다는 '손을 잡음으로써' 라는 표현을 사용해 이성계의 정계진

21)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7쪽.

22)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31.)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IX. 국사과 교육의 내용.

출에 대한 능동성을 강조하였다.

## 2. 사회경제사

세 번째 중단원은 고려의 사회경제사를 다루었다. 이 중단원에서는 고대 사회에 비해 일층 분화된 사회 구성의 기본 단위와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지배 체제를 파악하고, 경제면에서는 전시과를 근간으로 삼는 토지 경제의 내용과 농민보호 장치 등을 파악하게 하였다.

사회사 기술에서 가장 큰 특징은 사회구조의 개편을 다루면서 고려 사회가 과거 실시와 무관직을 통한 하층민의 신분 상승이 가능하여 통일 신라보다 더욱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강조하였다. 첫째 소단원인 ‘사회 구조와 지배 세력’에서는 고려의 개방적인 사회상을 강조하는 것에 맞추어 고려시대의 사회계층 변동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고려의 신분 제도는 엄격하여 조상의 신분이 그대로 자손들에게 세습되었지만, 이와 함께 사회 계층의 변동이 부단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고려 후기에는 천민 집단 구역인 향, 소, 부곡이 점차 일반 군현으로 승격되어 그 주민들이 양인화되어 갔고, 외거 노비 중에서 재산을 모아 양인으로 상승하는 자도 있었다.<sup>23)</sup>

이전의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사회계층 변동에 대한 언급이 다소 부족하였는데, 5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일반 군현으로의 승격, 외거 노비의 재산 소유 등 사회계층의 변동에 대해 서술하여 당시 고려사회가 폐쇄적인 성격보다는 개방적인 성격의 사회임을 거듭 강조하였다. 고려 사회가 신분 이동이 많았으며 이를 통해 신라보다 더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설명한 것이다. 그리고 이전 교육과정인 3·4차에서는 신분을 상류, 중류, 하류, 최하층으로 구성하였다면, 5차에서는 다시 귀족, 중간 계층, 양인, 천민으로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문벌 귀족과 권문 세족을 별도의 소주제로 다루었다. 이는 ‘고려 사회의 주도적 정치 세력은 어떻게 변모하였는가?’라는 연구 과제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호족-문벌 귀족-무신-권문 세족-신진사대부’로 이어지는 고려 사회의 지배층 변화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지배세력에 대한 설명이 이전보다 5차에서 확연하게 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중단원 연구과제에서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5차 교과서에서는 고려 사회를 문벌 귀족 사회임을 서술하려는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소단원인 ‘사회 시책과 법속’은 4차에서는 ‘사회 시설과 법속’이라는 소주제였는데 5차에서는 소단원으로 확대 서술되었다. 예를 들어 4차에서는 의창과 상평창을 단순히 언급하였는데 5차에서는 의창과 상평창에 대해 1줄씩 추가로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이 단원이 이전 교과서와 차이점은 법률과 풍속을 다루면서 혼인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혼인의 연령은 대체적으로 여자는 18세 전후 남자는 20세 전후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고려 전기에는 근친혼 내지 동성혼이 널리 성행하였으므로 후기에는 이에 대한 금지령이 여러 번 내려졌다.<sup>24)</sup>

23) 국사편찬위원회, 앞의 책, 106쪽.

24) 국사편찬위원회, 위의 책, 109쪽.

셋째 소단원인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는 전통 사회에서 경제의 핵을 이루는 토지 제도가 고려 전기 사회의 지배 질서가 동요되면서 토지의 사유화 경향이 나타남을 주목하여 경제 문제는 사회 구조의 변천과 맥을 같이 함을 인식하도록 하였다.<sup>25)</sup> 5차에서는 각 분야사별 구분이 분명해지면서 이전 교육과정에서는 교과서에서 통치 체제 일환으로 설명되었던 토지 및 조세제도가 중단원 속 경제정책과 경제구조 부분으로 변경되어 경제사 자체에 대한 분야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 경제 활동의 진전으로 농업과 수공업 그리고 상업이 구분되어 서술되어 이전에는 문화사적 연관성만 찾아볼 수 있었던 것에 더해 상민들이 각각의 사회사적 위치로 어떠한 경제 활동을 펼쳐졌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과에 대한 부가 자료는 5차 교육과정에서 처음 등장하고 민전에 대한 개념도 이 시기에 처음 서술되었다.

상업과 화폐, 대외 무역에 관련한 경제사 서술구조는 이전 교육 과정과 동일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교육과정에서도 한 번씩 언급되었던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연결되어 서술되고 있지만 고려시대 상업, 화폐 제도, 고리대업, 보 등과 관련된 주제들은 이전의 내용에 덧붙여 확대 서술하였다. 대외 무역의 영향력과 의의는 이전 교육과정에서 소략하지만 일부 설명되었던 것에 비해 5차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3. 문화사

네 번째 중단원인 ‘중세 문화의 발달’은 4차에서 각 중단원에서 작은 소주제로 나뉘어 서술되었던 문화사 내용을 하나의 중단원으로 집약하여 서술하였다. 귀족 중심, 불교 중심의 고려 전기 문화의 특성과 무신정변 이후 고려 후기에 나타나는 문화의 새로운 동향에 주안점을 두어 서술하였다. 4차에서는 교육제도와 과거제도 정비를 정치사에 서술했던 것에 반해, 5차에서는 이를 ‘유학과 한문학’이라는 중세 문화 파트의 첫째 소단원에 포함하여 서술한 것이 특이한 점이다. 과거제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음서제도 또한 포함시켜 관리등용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였다. 과거제도에 대해서도 명경과, 잡과에 대해 부가 설명하였으며 관학부흥책으로 양현고의 부실을 보충하기 위해 교육 재단인 ‘섬학전’을 설치하고, 국학에 대성전을 신축하였다는 새로운 내용도 추가되었다.

이외에 첫째 소단원에서 이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동명왕편』 사진을 해당 내용의 자료로 바꾸어 제시했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교과서의 분량이 증가했고 이전보다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한 교육과정이라 풍부한 읽을거리 등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삼국사기』나 『삼국유사』가 가지는 의의를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역사적 사실만을 제시하기 보다는 역사서가 가지는 의의를 강조하였다. 이는 단원 도입부에서는 4차 교육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연구 과제인 “고려인의 역사의식은 어떻게 변모하여 갔는가?”가 새롭게 추가하여 학생들에게 고려 역사서 서술방식 변화를 통해 고려시대 역사인식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역사서 기록 방식의 변화를 스스로 탐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4차에서 고려 전기와 후기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제시되었던 불교 관련 서술은 5차에서는 중세 문화 파트의 둘째 소단원인 ‘불교의 발달’에 모아서 서술하고 있다. 고려 불교는 불교 정책, 천태종, 조계종, 대장경의 조판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불교 정책을 따로 분리하여 설명하면서 불교의 현세 구복적이며 호국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조되었고 3차 교육과정 때부터 사라졌던 고려 태조의 훈요 10조와 왕사·국사 제도, 2차 개정 때 없어졌던 연등회와 팔관회가 “성종 때에는 최승로 등의 유학자가 등용되었고 유교 정치사상이 고무되면서, 연

25)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31.)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IX. 국사과 교육의 내용.

등회와 팔관회 등이 폐지되기도 하였다.”의 서술로 재등장 하였다. 이외에도 고려의 왕들이 불교 사찰을 건립하면서 불교가 고려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서술하였다.

천태종에 관한 서술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이 불교 의식의 폐단을 개선하고자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기 위해 노력한 내용과 그가 주장한 사상들을 서술하고 있다. 의천의 노력들은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주로 대장경과 불경과 연결 지어 서술되었는데, 5차에서는 대장경의 내용은 후에 서술되는 대장경의 조판으로 넘어가고 의천이 주장한 이론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한, 조계종에 관한 서술에서는 무신정변으로 인한 최씨 정권의 교종 중심의 불교계 탄압과 선종 계통의 불교를 후원으로 조계종이 융성하다는 서술과 함께 지눌의 사상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이전의 교과서에서는 조계종의 지눌은 정혜쌍수를 주장하였고 선종 사상에 중점을 두면서 선종과 교종의 교리상의 상호 보충과 통합을 도모하였다는 서술이 정혜쌍수에 대한 설명과 돈오점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 서술되었다. 또한 지눌의 사상으로서 선교일치의 완성된 철학 체계를 이룩하였다는 서술을 추가하면서 기존의 의천만 강조되던 서술에서 지눌을 부각하였고 고려 불교 조계종의 성격과 의의에 대한 서술도 추가되었다. 이외에도 유교와 불교의 타협을 주장한 혜심 서술도 추가되었다. 이는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융합이 문화에 반영된 것이고 고대의 불교와 근세의 유교를 비교하여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sup>26)</sup>

대장경 조판에서는 대장경의 의미와 대장경 조판의 성격, 초조대장경과 의천의 속장경, 신편제종교장총록, 마지막으로 팔만대장경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목판인쇄술은 주로 불교 문화부분에 서술되어 있는데 3·4차 교육과정은 간단하게 서술했던 것과 다르게 미군정기와 1차 교육과정의 것과 비슷하게 대장경이 만들어진 이유와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대장경의 정의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이전까지는 초조대장경과 속장경을 빈약하게 설명하거나 거란(요)를 혼용해서 사용했는데 5차부터는 초조대장경을 설명할 때는 거란으로, 속장경을 설명할 때는 요로 정확하게 서술한 점을 보아 교과서의 정확성을 높였다는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목판인쇄술 서술에서는 초조대장경이나 속장경의 일부가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이나 각 대장경을 정확히 어디에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서술하지 않았는데 5차 과정에는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또한 불서의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 등 기존에 나오지 않았던 세세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또한 사진 삽화가 지금까지는 목판 인쇄본이었지만 처음으로 대장경 경판 자체의 사진을 사용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지 않고 다른 사료를 제공하여 다양한 역사정보를 접할 수 있게 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목판인쇄술이 불교문화 부분에 편성되어서 그 둘의 연관성은 드러났지만 ‘고려의 인쇄술’이라는 독자적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셋째 소단원인 ‘도교와 풍수지리 사상의 유행’과 넷째 소단원인 ‘과학 기술과 예술의 발달’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이전 교과서보다 자세하게 이를 설명하였고, 그 의의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서술되었다. 도교 관련 서술을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26)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31.)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IX. 국사과 교육의 내용.

<표 4> 4차와 5차 고등학교 국사교과서 도교 관련 서술 비교

4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p>도교와 풍수 지리 사상 백성들의 불교 신앙은 재난을 피하고 복을 구하는 기복 불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고, 도교 역시 그러하였다. 한편, 무당들의 샤머니즘은 불교와 도교를 가미하면서 서민 사회에서 계속 성하였다.<sup>27)</sup></p>	<p><b>도교의 발달</b> 삼국 시대에 전래된 도교는 고려 시대에 들어와 성행되었다. 원래, 도교는 민간 신앙과 신선술을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도가나 음양, 오행의 이론 등이 첨가되어 성립된 종교로, 불로 장생 및 현세 이익의 추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고려 시대의 도교는 서낭신, 토지신 등 많은 신을 모시면서,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의례를 행하였다. 이러한 의식을 초계(醮祭)라 하였는데, 도사가 이 초제를 주관하여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하였다. 이에, 고려 시대에는 도교 행사가 자주 베풀어졌고, 예종 때에는 도교 사원인 도관이 처음으로 건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도교 사상은 특히 불교적인 요소가 강하였고, 도참 사상까지 수용하여 잡신적이었으며, 또 교단이 성립되지 못한 비조직적인 신앙이었다.<sup>28)</sup></p>

4차에서는 도교에 대한 설명을 풍수지리설과 함께 소주제로 다루었는데, 5차에서는 도교에 대한 설명을 풍수지리설과 분리하여 서술하였고 그 내용 또한 이전보다 훨씬 자세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도교에 대한 서술뿐만 아니라 문화사의 다른 소주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이전 교과서와 달리 분류사 방식을 취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다루면서 그 내용만 새롭게 몇 가지 추가하는 방식으로 교과서를 서술하여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역사적 내용만 많이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키웠으면 5차에서 강조하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과는 거리가 멀게 된 결과를 낳았다.

#### IV. 결론

5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국가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었다.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주성, 창조성, 도덕성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자주성 교육’은 국민 정체성, 민족 공동체의식 교육으로서 5차에서도 국사과가 교과독립을 지속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고도 정보화 시대에 대비하고 민주시민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창조성과 도덕성 교육’의 강조는 역사 교육에서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sup>29)</sup>

5차 교육과정에서는 역사교육학계의 학문적 발전과 국가교육의 새 방향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국사교육의 실제적인 목표로서 역사적 사고력의 함양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국사교육이 민족사관 교육에 치중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교육을 지향하고자 했던 발전적인 모습이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사회가 급격하게 민주화되고, 한국사 연구와 교육이 점차 다양화되면서 ‘민중 중심의 민족사관’에 입각한 서술, 사회주의 계열에 대한 서술도 시작되었다. 또한,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 계열성 확보를 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27)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2, 89쪽.  
28)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124쪽.  
29)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1987, 98쪽.



교의 국사 교과서 구성을 달리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부록에 고고학 용어와 옛 지명의 현재 명칭을 수록한 것은 학생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발맞추어 교육과정에서는 향토사를 강조하였지만 실제 교과서에서 해당 내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평가 방안을 구체화하였다고 교육과정에는 설명했지만 그것이 실제 교과서에 반영되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고조선에 대한 국수주의적 서술, 체제와 정권의 정통성 확립을 위한 근현대사 서술로 인해 국사교육에서 폐쇄성과 편향성이라는 지적도 계속되었다.

5차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고려시대는 고려는 고대적인 골품 체제를 벗어나 유교 정치 이념의 새로운 구현을 시도했던 중세사회라는 인식하에 서술되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고려가 고대 사회에 비해 사회 구성의 차원에서나 사회경제 체제에서 또한 문화 측면에서 한층 발전된 사회였음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서술 분량이 대폭 늘어났으며 해당 내용을 곳곳에서 강조하였다. 무엇보다도 이전처럼 고려 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종합적으로 서술하여 시간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해당 내용을 분류사로 나누어 고려 사회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였다.

정치사에서는 호족-문벌귀족-무신-권문세족으로 이어지는 지배세력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설명을 추가하였다. 고려 후기 민중들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시각도 곳곳에 나타난 서술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사의 경우에는 고려사회를 이전의 신라사회와 비교하여 개방적인 사회였음을 강조하기 위해 신분이동이 일부 가능하였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경제사에서는 이전에 없었던 전시과와 같은 토지제도와 수취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5차에서 문화사 부분의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주제나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키웠으며 5차에서 강조하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 ※ 참고문헌

- 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편, 『한국교과교육과정의 변천-중학교』, 1990.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2.
- 국사편찬위원회 1종 도서연구개발위원회, 『고등학교 국사(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김한중,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2006.
- 김희목 외, 『제5차 초·중학교 사회과 및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의 연구·개발』, 1986.
- 문교부 고시 제 88-7호(1988.3.31.)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VII. 국사과 교육과정개정 방향」.
- 방지원, 「국사 교육과정에서 ‘생활사-정치사-문화사’ 계열화 기준의 형성과 적용」, 『사회과교육연구』 13(3), 2006.
- 윤용혁·문경호, 「국사 교과서 속의 몽골 관련 서술」, 『교과교육학연구』 15(1), 이화여자대학교 교과교육연구소, 2011.
-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역사실학회, 1999.
- 장미애,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 - 4·5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16.
-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1989~95)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1), 이화여자대학교교과교육연구소, 2008.
-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05.
- 최용규, 「중학교 국사과 새교육과정의 특징」, 『사회과교육』 20,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1987.
- 한국교육개발원,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 1987.

<토론문>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에 대한 토론문

이형우(인천대학교)

이 발표문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에 대한 것입니다. 발표자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제5차 교육과정 시기 국사과 교육과정의 특징을 설명하고, 이어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의 특징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표 숫자와 제시된 사진 자료 숫자까지 분석하여 비교, 설명하여 주셔서 배운 바가 많습니다. 이어 세부적으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나타난 고려사 서술을 정치사, 사회경제사, 문화사의 3영역별로 분석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때 제4차 교육과정기 교과서와의 비교는 물론 그 이전 교육과정기 교과서와도 비교, 설명을 해준 부분이 많아 토론자는 여러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토론자는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서는 소양이 부족하여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맡은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고려사 서술을 영역별로 분석한 것에 대해서만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 드립니다.

1. 발표문 제목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고려사 서술」입니다. 그런데 영역별 분석을 한 것은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만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발표자께서는 교과서 서술에 대한 영역별 분석을 할 때 소단원 별로 구분하여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런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서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다소 혼동을 줍니다. 예를 들면, 정치사 부분 분석하는 곳인 12쪽 하단에 “또 하나의 특징은 4차 교육과정에서 사라졌던 하층민들의 저항에 관한 부분이 신분 해방운동의 성격으로 다시 서술되었다는 것이다.”로 시작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이하 내용들은 둘째 소단원인 ‘귀족 지배 체제의 동요와 무신 정권’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셋째 소단원인 ‘대외 관계의 변천’ 서술에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면 좋겠습니다.

- 14쪽에 “5차에서는 고려 말 무신들의 성장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최영 그리고 신흥무인세력의 대표주자였던 이성계가 고려에서 이름을 알리고 존재가 커졌다는 것을 지도를 통해 알려준다.”로 시작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분석한 내용들은 근세 사회의 발전 중단원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 사회경제사 부분 분석한 내용에서 4번째 소단원 ‘경제 활동의 진전’에 대한 서술이 셋째 소단원 ‘경제 정책과 경제 구조’ 서술과 함께 있는데, 구분해서 정리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3. 13쪽에 “최씨 무신정권에 대해서는 사료로 제시되었던 ‘최충헌의 시무 10조’가 본문에

서 축소 서술되는 등 조심스러운 비판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최씨 무신 정권은 대몽 항쟁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었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과서 서술 중 어떤 내용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였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4. 14쪽에 “초기 나라를 건국한 이성계는 혼란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과전법을 실시해, 땅을 나누어주고, 나라는 재정을 확충하는 법을 제정한다.”라는 서술이 있습니다. 사실의 선후 관계가 혼동된 서술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5. 문화사 영역 분석에서 문화사 부분의 분량이 많이 증가하였지만 새로운 주제나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전에 다루었던 주제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되어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키웠으며 5차에서 강조하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서술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생각하시는 역사적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는 문화사 부분 서술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발표>

# 5차 교육과정기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신유아(인천대학교)



# 5차 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신유아(인천대학교)

---

## 목 차

---

1. 5차 교육과정의 특징
  2. 5차 교육과정의 조선시대 단원 편제 방식
  3. 교과서의 조선시대 편찬 및 집필 방향에 대한 제언
- 

### 1. 5차 교육과정의 특징

5차 교육과정은 1987년에 공포되어 중학교는 1989~1994년, 고등학교는 1990~1995년에 적용되었다. 정치적으로 볼 때 5공화국 말에 개발되어 6공화국 시절에 시행된 교육과정이다. 5차 교육과정은 4차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었다고 보여지나,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하기는 어려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정의 중점은 학교급간 계열성 확보와 교육과정의 지역화에 두었으나,<sup>1)</sup> 교과서 내용 구성과 서술 면에서 이를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5차 교육과정의 특징을 든다면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국가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이 의도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려고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학교 국사의 경우 향토사 자료와 향토사 학습을 중시하면서 문화재 애호 정신과 역사적 사고력 및 역사의식의 신장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특색이고, 고등학교의 경우 국사와 세계사 모두 근·현대사를 강조하였다는 점과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인접학문의 연구 성과를 활용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색이라 할 수 있다.<sup>2)</sup>

5차 교육과정기에는 새로운 국가교육의 방향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총론에서는 '자주성, 창조성, 도덕성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는데, '자주성 교육'은 국민 정체성, 민족 공동체의 식 교육으로서 5차 교육과정기에도 국사과가 교과독립을 지속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창조

---

1) 윤종영은 5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의 편찬 방향에 대해, 계열성 확보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면서,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별로 사례사, 생활사, 인물·사건사 중심, 중학교는 정치사를 강조한 연대사 구조, 연대사적 구조 안에서 분류사적 접근(문화사 강조) 방식을 취하였다고 밝혔다(윤종영, 「국사 교과서의 편찬방향」, 『역사교육』 48, 1990, p.180).

2)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 2005, pp.209~227.

성과 도덕성 교육'의 강조는 역사교육에서 '역사적 사고력'을 강조할 수 있는 바탕으로 작용하였다.<sup>3)</sup>

5차 중학교 국사과 교육과정에서는 '역사적 사고력'이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학년 목표에서도 학습자료의 활용 능력과 역사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을 강조하였다.<sup>4)</sup>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졌는데, '단원개관'과 '학습개요'의 진술과 '학습문제', '학습정리'를 주제별로 할당하였고, '학습의 도움글'을 설치하였다.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는 문제제기형의 '단원개요'와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sup>5)</sup>

## 2. 5차 교육과정의 조선시대 단원 편제 방식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단원 편제 방식은 조선의 건국부터 소위 근대의 기점으로 알려져 있는 개항을 전후한 시기까지를 하나의 대단원에 모두 포함시키는 방법과,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나누어 2개의 대단원으로 편제하는 방법, 그리고 세 개 이상의 대단원으로 나누어 편제하는 방법 등이 있어 왔다. 1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현행 2015 재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조선 시대 부분에 대한 단원 편제 방식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1>과 같다.<sup>6)</sup>

<표1> 중·고등학교 대단원 편제 방법 (조선시대)

교육과정 차수 (고시한 년도)	중학교	고등학교
1차 (1954)	유교중심의 조선사회' '근대화하여 가는 조선사회'	'조선 전기의 문화(1392-1592)' '조선 중기의 문화(1593-1863)'
2차 (1963)	'조선 시대의 생활'	'조선 시대의 생활'
3차 (1973)	'조선의 성립', '민족문화의 융성과 양반사회의 발전', '민족의 항쟁과 사회·경제생활의 진전' '근대적 문화의 새 기운' '정치와 양상과 농민의 자각'	'조선 사회'
4차 (1982)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사회의 변화'	'근세 사회의 발전' '근대 사회의 맹아'
5차 (1987)	'조선 사회의 발전' '조선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세 사회의 발전' '근대 사회의 태동'
6차 (1992)	'양반 사회의 성립' '사림 세력의 집권'	'근세사회의 발달' '근대사회의 태동'

3) 최용규,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RR87-11)」, 한국교육개발원, 1987, p.98.  
 4)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1989~1995) 중등 국사교육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1, 2008, p.204.  
 5) 차미희는 이러한 변화를 민족사관 교육에 치중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민주적인 교육을 지향하고자 했던 발전적인 모습으로 평가하였다(차미희, 위의 논문, p.206).  
 6) 신유아, 「교과서 내용서술 체계화의 문제와 방향 -조선 전·후기 서술을 사례로-」, 『역사교육』 147, 2018, pp.93~94.



	‘실학의 발달’ ‘서민문화의 발달’	
7차 (1997)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정치: 근세의 정치, 근대 태동기의 정치 경제: 근세의 경제, 근대 태동기의 경제 사회: 근세의 사회, 근대 태동기의 사회 문화: 근세의 문화, 근대 태동기의 문화
2007 (2007)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우리역사의 형성과 발전’ -⑤ 조선의 성립 및 집권 체제 정비 과정과 사회의 특징을 파악한다.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2009 총론 개정에 의한 교육과정 (2009)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고려와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화와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
2011 각론 개정에 의한 교육과정 (2011,현행)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 사회의 변동’	‘조선 유교 사회의 성립과 변화’
2015 재개정 교육과정	‘조선의 성립과 발전’ ‘조선사회의 변동’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 조선 전기 - 조선 후기

대체로 4차 교육과정 이후부터는 조선 전기와 후기 사회를 가르치는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조선 후기를 근대로 접근하여 가는 시기로 파악하고자 하는 시각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지나치게 단절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하나의 왕조로서 지속되었던 조선국가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고,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난 근대적 변화에 대해서도 올바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후 6차 교육과정 연구 단계에서는 16세기 이후를 정치 구조와 운영의 변화를 수반한 ‘사림정치’의 성립으로 파악하여 조선 중기로 구분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되어,<sup>7)</sup> 이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아직 5차 교육과정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서의 사림을 적극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보다 조선 후기의 근대적 성격을 부각시키려는 시도가 더욱 두드러졌던 것으로 보인다.

위의 <표1>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사이에 내용 구성 체제를 달리 하기 위한 노력은 3차 교육과정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사’에서는 조선시대를 5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단원을 구성한 반면, 고등학교는 1개 단원에 모두 포괄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뚜렷이 드러난다. 그러나 4차와 5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단원 구성 방법상의 차별화는 보이지 않다가, 6차 교육과정에서 다시 중학교는 4개 단원으로, 고등학교는 2개 단원으로 나누어 중·고 간에 차별성을 나타냈다.<sup>8)</sup> 적어도 조선시대 단원 편제 방식은 4차와 5차 교육과정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7) 최이돈, 『조선중기 사림정치구조연구』, 일조각, 1994.

8) 신유아, 위의 논문, p.95.

내용 면에서 5차 교육과정은 조선이 고려에 비해 한층 발전된 사회라는 점을 부각하면서, 조선 후기 신분제 변동 등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조선 후기에 나타난 소위 근대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차 교육과정 개정 당시 국사교육심의회(위원장: 변태섭)에 의해 연구된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은 그 탄생의 주요 배경을 고대사 서술 문제에서 찾아야 하겠지만, 각 시대별로 전공자들로 이루어진 소위원회가 꾸러지면서 쟁점이 되는 주제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당시 교과서 편수관(윤종영)이 만들었던 회의 자료에서 조선시대 내용 서술과 관련된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근세>

- 서술방향: 근세를 발전적이고 긍정적으로 본다
- 일반적인 내용
  - 근세=조선설은 타당한가
  - 조선 양반관료제 사회의 용어 사용이 타당한가
  - 조선전기의 신분구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16세기 긍정설 문제는 받아들여야 좋을가
  - 당쟁사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당쟁과 봉당의 용어 사용 문제)
  - 현행 교과서의 ‘사림정치와 당쟁’의 단원명을 ‘봉당정치’로 표현하는 것은 타당한가
  - 임진왜란에 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특히 사림의 역할)
  -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조선을 전·후기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한가
  - ‘경영형 부농’의 용어 및 개념 규정은 타당한가
  - 조선후기 농법에 대한 이설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
  - 조선초기 신분구조와 관련하여 중인층 형성은 서술하는 것이 타당한가
  - 조선후기 중인층의 대두와 역할은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조선후기에 있어서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설명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sup>9)</sup>

그리고,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준거안에서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조선왕조는 국호 제정과 한양 정도에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역사 의식을 반영하였음을 밝힌다.
- 조선중기 이후의 정치사는 ‘당쟁’이라는 용어를 피하고 당시 보편적으로 쓰이던 ‘봉당’정치로 서술하되 그것이 사회발전에 미친 긍정적 측면과 저해적 측면을 균형있게 서술한다.
- 조선후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 걸쳐 근대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성격이 형성됨으로써 한국 근대화의 내재적인 요인이 마련되었음을 서술한다.<sup>10)</sup>

이후 1986년 문교부에 의해 발표된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은 각 시대별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내용상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주로 중학교의 준거안 내용이 고등학교에 비해 짧고 간단하게 서술되었다. 이 준거안 문서에서는 각 시대별로 <참고사항>을 두어 특별히 교과서 서술에서 유의할 점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조선시대 준거안에 대한 <참고사항>

9)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pp.703~704.

10) 윤종영, 위의 논문, p.755.

의 주제와 그 내용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 <표2>와 같다.

<표2> 5차 교육과정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중 ‘Ⅲ. 근세·근대의 태동’의 <참고내용> 부분 정리<sup>11)</sup>

번호	주제	내용의 요지
1	국호선정과 한양 천도의 민족사적 의미 문제	‘조선’이라는 국호가 고조선의 계승자임을 표방하는 것이고, 이 속에 단군과 기자에 대한 숭배관념이 포함되어 있다. 단군 숭배는 조선 왕조 개국 세력의 주체성을, 기자는 새 나라를 도덕적 국가로 재건하겠다는 개혁 정신이 투영된 것이다. 또한 한양으로의 천도에 대해서도 고려시대부터 남경(南京)으로 중시되어 왔으며, 국가 융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2	유교의 민본사상과 그 한계 문제	권력의 정당성을 민심을 얻는 것에 둔 것으로서, 민을 이처럼 크게 의식한 조선시대의 민본 사상은 고려 시대에 비해 한 차원 높은 것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고려에 비해 조선의 정치는 보다 더 여론을 존중하고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개방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3	조선 초기의 중인 계층을 서술해도 좋은가 하는 문제	‘中人’이라는 용어는 17세기 이후 나타났다. 양반이라는 용어가 고려 초기부터 나타난 것과는 판이하다. 중인은 중앙의 의관, 역관 등과 지방의 교생, 향리 등이다. 조선 초기에도 기술관원의 지위는 양반과 일반 상민의 중간에 있다고 설명할 수 있지만, 중인 계층이 세습 고정된 신분으로 굳어진 것은 조선 후기의 일이다.
4	16세기 경제 발전과 勳戚·士林의 대립 문제	16세기에는 서해안 간석지 개간 등이 추진되는 등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시장 역시 16세기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공무역도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은광 개발과 공무역의 증가, 면포의 화폐화 등 상품 유통 경제가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변동에서 주로 이득을 취하고 있던 분류는 중앙의 훈척 세력이었는데, 사림의 왕도정치나 균전론, 향약보급운동 등은 훈척에 대한 일종의 견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림의 입장은 그들이 향촌 지배권을 장악하는 조건하에서 농민 생활을 안정시키려는 한계가 있었고, 사농공상의 직업 세습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5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성격 문제	정치 현실로서 붕당은 利害를 바탕으로 한 이익 집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었지만 조선 후기 붕당의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다. 상대방에게 명분상 약점을 잡히지 않으려고 근심함으로써 정치의 부패와 타락을 막게 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붕당정치가 국민 통합에 지장을 준 것은 사실이고, 그 약점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며 적나라하게 노출

11) 변태섭 외,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3.준거안-‘Ⅲ. 근세·근대의 태동’ 중 <참고내용>

		<p>된 것도 숨길 수 없다. 봉당 정치를 당쟁이라고 부르면서 이를 조선인의 분열적 민족성의 소산인 것처럼 과장한 일 본인 학자의 식민사관에 동의할 필요는 없다. 또 반대로 봉당 정치를 일방적으로 미화시키는 것도 이ро울 것은 없다.</p>
6	조선 후기 농업의 개량과 농업경영상의 변화 문제	<p>조선 후기에는 농업 경작 기술 면과 시비법, 수리 시설의 개선 등이 이루어져 생산력이 향상되었다. 밭농사에서 견종법이, 논농사에서는 이앙법과 건양법이 개발되었고 이로 인해 보리와 벼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집약적 농업의 발전과 더불어 광작이 이루어졌고, 농민층 분해가 촉진되었다. 이에 따라 부농층의 성장과 임노동자의 신생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성장한 부농은 서민지주적 성격을 가졌고, 도지제, 금납제의 보급에 따라 지주-전호의 관계가 점차 경제적 관계로 전환되어 갔다.</p>
7	조선 후기 사상계의 동향과 실학 문제	<p>양란을 겪으면서 정주학의 도덕주의에 한계를 느끼고 부국강병에 필요한 실용적 학문에 대한 관심이 일부 식자들 사이에서 고조되었다. 인조 반정 후에는 서인 사이에서도 북벌과 관련하여 부국강병 사상이 풍미했다. 그들은 소중화 사상에 입각하여 부국강병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국방강화에 주력하였고, 노비 해방 등을 통해 신분적 제한을 완화하면서 국가 수입을 늘리는 정책을 취하였다. 한편 남인은 봉당 정치의 모순을 시정하고 상공업에 압도된 농촌사회를 재건하며 분배의 정의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개혁의지를 보였다. 18세기에는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분당하면서 소론과 학자들은 양명학을 수용하여 보다 尙武적이고 상업적 방향으로 흘러갔다. 18세기 후반에는 노론층에서도 북학파라고 부르는 개혁 사상가들이 출현하였다.</p>
8	조선 후기 역사학의 발달 문제	<p>양란을 거치면서 애국심을 드높이거나 부국강병을 추구하는 史書들이 많이 쓰여졌다. 영남 주자학자였던 오윤의 “동사찬요” 대북의 핵심인물이었던 조정의 “동사보유” 한백겸의 “동국지리지”, 허목의 “동사”, 안정복의 “동사강목”, 이종휘의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이공익의 “연려실기술”, 정약용의 “아방강역소”, 한치윤의 “해동역사” 등의 사서가 출간되어 조선후기 사학의 수준을 끌어올렸다.</p>
9	조선 후기 중인층의 신분 상승 운동 문제	<p>고급기술관원으로서의 중인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법제적 지위와 현실적 지위 사이에서 심각한 괴리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차별대우에 불만을 품고 여러 차례 그 시정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통청의 혜택을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철종 2년에는 1870명이 통청운동을 벌였으나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크게 향상되어 갔다. 이들은 개화운동의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면서 한국 근대사의 주역으로 성장한다. 서얼층은 중인보다 빨리 許通되어 순조, 철종 년간에 통청 조치가 내려</p>

		졌다.
--	--	-----

앞의 준거안 개발 담당자가 밝혔던 바와 같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조선시대를 고려에 비해 발전된 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차 교육과정에 비해 5차 교육과정에서는 조선 후기 사회를 근대에 접근하여 파악하려는 노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시도되었는데, 이는 중학교와의 계열성 확보 방안으로 고등학교에서 분류사적 체제를 취하게 되면서 사회·경제와 관련된 내용이 정치사와 별도로 서술됨으로써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단원 수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선전기와 조선후기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중단원 수준에서 정치사와 사회·경제사가 나누어지면서 신분제와 관련된 서술 분량이 늘어났고, 이에 따라 조선 후기 신분제 동요와 관련된 서술 분량도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사회구성과 관련된 서술 비중의 증가는 80년대 학계에서 쟁점이 되었던 4신분제설과 양천제설 간의 논쟁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 3. 교과서의 조선시대 편찬 및 집필 방향에 대한 제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역사 교과서는 정치 현실의 변화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련을 맺어왔다. 그 중에서도 고대사와 근·현대사는 더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조선시대는 상대적으로 그러한 격론의 정점에서는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식민사관 또는 서구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고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다.

양관을 획기로 삼아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고, 조선 후기의 사회 성격을 근대에 가깝게 보려는 시각 자체에 대해서는 필자의 연구 수준에서 뭐라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서양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소위 ‘근대’의 모습이 17세기 이후 조선 사회에서도 일부 발견된다는 점을 굳이 사례별로 가르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규정된 ‘근대’가 우리 역사 교육과정에서 시대별 비중을 가르는 부동의 획기가 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기 어렵다.

적어도 우리 ‘한국사’ 교과서의 서술에 따르면, 조선은 근대적 개혁에서 한 번도 성공한 경험을 갖지 못한 나라다. 일본의 메이지유신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했지만, 조선의 모든 근대적 개혁 운동들은 하나같이 한계를 지닌 것들이었다.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서술하면서 신라의 삼국통일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누군가가 생각했던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술하고 강조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현재의 시각에서 본다면 5차 교육과정이 4차 교육과정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도 물론 가능할 수 있으나, 86년에 구성된 국가교육심의회는 조선시대 분과에서 쟁점이 되었던 주제들만을 놓고 본다면, 그 당시에 이러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 이러한 정도의 변화가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당쟁’ 대신 ‘붕당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연대기적 틀 안에서 분류사 체제를 도입하여 신분제의 동요에 따른 사회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서술할 수 있게 되었으며, 17세기 이후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도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당쟁’ 대신 ‘붕당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당쟁’이라는 용어가 순수하게 붕당간의 대립 현상 그 자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점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서로 입장을 달리하는 정파 간의 대립은 어느 국가에서나 있어 왔고, 이러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역사는 아마도 엄청난 전제정치 국가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의 경우 이러한 정파 간의 갈등을 역사 발전의 선상에 놓고 파악하려는 경향이 자리를 잡고 있는 반면, 우리의 경우에는 줄곧 이를 비정상적 정치 운영의 한 형태로 보면서 국가가 쇠망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어왔다는 점이다. 인류 역사에서 권력을 둘러싼 투쟁은 시기와 지역을 막론하고 항상 있어왔고, 이것이 조선의 조정에서만 일어난 현상은 아닐 것임은 자명하다. 붕당정치가 예송으로 인해 변질되었고, 영정조 시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조 사후 1당 독재의 추세가 나타나 그것이 결국 망국으로 이어졌다는 식의 논조는 학생들로 하여금 정치적 쟁론에 대해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강력한 군주가 등장해야만 국가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

조선후기 정치사에서는 예송과 잦은 환국, 탕평책의 한계 등이 결국 세도정치와 삼정문란, 그리고 각종 개혁의 실패로 이어지는 구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식민지화로 너무나 매끄럽게 흘러가는 느낌을 준다. 동시대의 다른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언관권의 확대와 여론 수렴 과정, 조선정부의 적극적인 농업 장려 정책이나 수취제도 개혁 등에 대해서는 그 개념 정도를 간단히 언급하는 데 그치면서, 이러한 제도적 개혁의 결과를 실패로 단정짓고 그 실패 원인을 분석하거나 운영상의 폐단을 사례별로 설명하는 데에는 소홀함이 없어 보인다.

이밖에도 현재의 관점에 서서 특정 인물이나 정치 세력 또는 역사적 사실 등에 대해 학생들에게 은연중에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성리학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실학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한다든지, 광해군 당시에는 명과 후금 간의 전쟁에서 아직 어느 쪽이 승리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의 외교 정책을 무조건 높이 평가하게 만드는 경향은 없는지 재고해 보아야 한다.

그 동안 교과서에서 조선시대 역사를 서술하면서 각 시기별로 전통적으로 늘 강조되어 왔던 역사적 사실들은 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오랫동안 교과서에서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진리로서 굳어진 몇몇 역사적 사건의 ‘의의와 한계’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와 한계’에 대한 서술은 어찌면 아주 오래 전 교과서 집필자의 주관적인 역사 해석에 불과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을 교육과정 개정을 수차례나 거듭하면서도 계속해서 그대로 답습한다면, 후일 역사 교과서는 새로운 연구 성과의 끊임없는 축적에도 불구하고 해방 이후 크게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지도 모른다.

5차 교육과정의 준거안 연구 당시 ‘당쟁’을 ‘붕당정치’로 바꾸는 것이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비록 이것이 ‘당쟁’이라는 용어를 단원 제목에 쓰지 않도록 했을 뿐 근본적인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고 평가받는다 해도 이러한 정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아무런 논쟁 없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앞으로의 교육과정과 집필기준 개정에서 이런 정도의 변화가 꾸준히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전 교과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답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다.

## ※ 참고문헌

- 변태섭 외,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 문교부, 1986.
- 윤종영, 「국사 교과서의 편찬방향」, 『역사교육』 48, 1990.
- 최상훈, 「역사과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 2005.
- 최용규, 「제5차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시안 연구 개발(RR87-11)」, 한국교육개발원, 1987.
-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1989~1995) 중등 국사교육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12(1), 2008.
-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 신유아, 「교과서 내용서술 체계화의 문제와 방향 -조선 전·후기 서술을 사례로-」, 『역사교육』 147, 2018.

<토론문>

## 「5차 교육과정 ‘국사’의 내용편제와 서술방향 -조선시대를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문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 발표문은 5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원 편제 방식을 다른 교육과정과 비교하였으며, ‘국사교육 내용전개의 준거안’의 조선시대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이후의 조선시대 서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교과서의 개별 서술과 관련해서는 추후 최종 원고에서 완성될 것이라 판단되며 이 토론에서는 발표자가 제안한 ‘서술방향’을 중심으로 발표자에게 문의드리고자 한다.

서술 방향 가운데 “이렇게 많은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 일일이 누군가가 생각했던 ‘의의와 한계’를 명확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서술하고 강조하는 나라가 또 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이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데 어떤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는 지적은 매우 참신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입론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역사 교과서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역사서 내지 논문에는 ‘의의와 한계’이 외에도 적지 않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역사 용어, 서술의 분량, 심지어는 사진이나 도표, 사료 등의 보조자료 활용 모두 평가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실제로 그렇기도 하다. ‘의의와 한계’의 문제점은 인정하고 있으나 과연 역사 교과서에서 평가가 없을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

아울러 교과서 연구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재적 관점에서의 비판에서 벗어나 역사적 관점에서 당시 교과서 내용 편제를 분석한 점도 돋보인다. 교과서 용어나 서술이 바뀌는 과정이 담당자 한두명의 임의가 아니라 많은 연구와 논의 끝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과서 서술 변화의 성과를 평가한 부분도 돋보인다. 과연 그러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보충된다면 당시 학계와 역사교육계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적 입장으로는 아직까지 학계에서 산출되는 연구성과가 많지 않던 시기여서 최신의 성과가 바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국정이라는 교과서 발행제도도 그러한 신속한 연구 성과 반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현재는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분량의 연구가 다양한 시각으로 나오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설’을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교과서 발행제도도 검정으로 바뀐 현실에서(그리고 인정 교과서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정설’을 강요하기 어렵다. 개별 사실에 대한 관성적 평가에 대한 문제의식에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것을 교육과정과 (폐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적어도 대폭 대강화되고 있는) 집필기준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교과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과서를 선정하는 학교와 교사의 역량을 신뢰하며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교과서를 신성시해서는 안된다는 제언은 이미 70년대부터 나오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지 않을까?



세부적인 당부를 한가지 드리며 토론을 마치고자 한다. 80년대 중후반은 민중사학이 발전하면서 논란이 되었던 시기이다. 한국민중사가 논란이 되었던 시기이며, 민중사학을 표방한 연구 단체가 결성되고 연구 성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교과서에 영향을 준 것은 없는지 궁금하다. 토론을 위해 살펴본 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에서는 조선시대와 관련해서도 민중운동 등을 매우 적극적으로 서술하였다. 현재로서는 준거안 수준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데 최종 원고에서는 80년대 사학사 내지는 지성사와 관련된 논지도 포함해 주시기를 바란다.



<제6발표>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체제·내용과 그 특징

최보영(단국대학교)



#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체제·내용과 그 특징

최보영(단국대학교)

---

---

## 목 차

---

---

1. 머리말
  2. 편찬준거안과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서술 체제
    - 1)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과 구성 지침
    - 2) 『국사』 교과서 서술 체제와 학습보조자료
  3.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서술 내용과 그 의미
    - 1) 근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 2) 현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4. 맺음말
- 
- 

### 1. 머리말

제5차 교육과정은 1987·1988년에 걸쳐 문교부가 개정·고시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는 1988년 3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 88-7호에 의해 개정된 것으로 1992년 10월 30일 문교부 고시 제1992-19호로 개정·고시된 고등학교 교육과정(제6차 교육과정)이 시행되기까지 이어졌다. 교육과정의 개정이 대개 사회적 상황의 변화 혹은 정치권력의 변화 내지 필요에 의해 이뤄졌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한 『국사』 교과서의 개정은 교과 내용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개정요구가 그 동인이었다는 점에서 앞선 개정과 차이점을 지닌다.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에 따른 사회적 관심의 증대가 유신과 5공화국 출범과 같은 정치적 특수성에 의해 개발된 교육과정과 극적 차별성을 이루는 데 중요 매개가 된 것이다. 즉 제3차 교육과정부터 시작된 교과서의 국정발행이라는 형태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추동이 정권 밖이었다는 점에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는 「편찬준거안」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 집필 시스템을 만든 차별성을 띠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 근·현대사 분야는 민족주체성과 관련해 사회적 관심이 지대했고 여기에 덧붙여 1986·1987년 민주화과정에서 촉발된 근·현대사 분야는 한국사 전반에 대한 식민주의 사관의 탈피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새로이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부분의 서술 체제와 내용을 분석하는 작업은 국정 체제라는 동일한 교과서 간행환경에서도 내용상의 변화와 특징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그런데 제5차 교육과정기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sup>1)</sup>에 대해서는 다른 시기의 교육과정 개정에 비해 소략하다.<sup>2)</sup> 또 제5차 교육과정의 성립과 선행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위해 근·현대사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연구가 몇몇 제출되었을 뿐 상대적으로 다른 연구분야에 비해 허술하다는 느낌이 든다.<sup>3)</sup> 당시 고대사 분야와 함께 대중적 관심이 많았던 근·현대사 서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다만 5차 『국사』를 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당시 문교부 연구관의 단편적인 글은 「편찬준거안」과 『국사』 교과서의 편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뿐이다.<sup>4)</sup>

1965년 12월 18일 한일 국교정상화를 언급하면서, “과거에 사로잡히지 말자”는 박정희 정권 하 문교부의 교육과정 운영 지침<sup>5)</sup>은 “민족주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제강점기에도 보존했던 민족주체성을 해방 이후 일본에 팔아먹는 행위였다. 민족주체성은 민족 스스로의 역사를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민족주체성은 “과거에 사로잡혀” 과거가 발목을 잡는 일이 아니라 과거사의 인과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때 비로소 확고해지며 그 과정에서 민족의 역사와 결부되어 있는 일본과 같은 타국과의 관계 역시 바르게 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한국 근·현대의 역사는 치욕의 역사로 치부되거나 정치 권력이 필요로 하는 통치이념의 주입기로 작동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박근혜 정권 당시 ‘자학사관’ 탈피를 주창하며 시도했던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이었다.<sup>6)</sup> 5차 『국사』 교과서는 국정 체제로 발행된 교육과정 중 하나였으며 이 당시 역사 교육에서 민족주체성 확립을 강조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고대사 분야와 더불어 근·현대사 분야의 서술 체제와 내용에 대한 파악과 분석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5차 『국사』 국정 교과서의 근·현대사 분야를 대상으로 그 서술체제와 내용이 다른 교육과정기의 교과서와 어떠한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5차 『국사』만의 특징을 갖는지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기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과 교육과정 총론 및 국사교과목 목표·내용 및 교육과정해설서를 검토하여 『국사』 교과서 편재의 배경을 살피고 단원 구성을 검토할 것이다. 3장에서는 “중단원-연구과제-소단원-소항목” 구성과 학습목표 및 소항목 내용을 분석하여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와 비교하고 그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5차 『국사』(1990)와 4차 『국사』(1982)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였고, 이들 교과서를 분석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각 시기의 문교부 고시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서」를

1) 본고에서는 4차와 5차에서는 『국사』 ‘하권’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하 『국사』는 모두 『국사』 하권을 지칭함.  
 2) 5차 교육과정은 1차부터 7차까지, 혹은 3차부터 6차 교육과정을 다루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언급할 뿐 본격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임기환,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 56(1), 2017; 이부오,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3) 김성자,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의 변천」, 『역사교육』 155, 2020; 강진웅, 「중등 사회 교육과정과 국가 정체성 교육의 변천사」, 『사회과교육』 56-1, 2017; 조성운, 「해방 이후 한국사 교과서의 전주화약 서술과 변천」, 『승실사학』 37, 2016; 최상훈, 「역사와 교육과정 60년의 변천과 진로」, 『사회과교육연구』 12-2, 2005  
 4) 윤중영, 「『국사』 교과서의 편찬방향」, 『역사교육』 48, 1990.  
 5) 문교부, 「민족주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침」, 국정교과서주식회사, 1966.6.1.  
 6) 《중앙일보》 2015.09.14., 「[시론]역사 교과서는 다양한 시각 담아내야」.

참고하였다. 또 5차 교육과정기에 새로 작성된 「편찬준거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해당 교육과정이 개정되는 배경과 과정 그리고 개정 후 여론을 살펴보기 위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신문자료도 방계자료로 활용하였다.

## 2.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 체제

### 1)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과 구성 지침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개정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변화와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따른 사실 관계 기술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일반 대중의 높아진 역사에 대한 관심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6년 당시 현행 국사교과서가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민족사의 주체적·진취적 측면을 교육시키는 데 크게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었다. 이 여론은 《조선일보》가 주도하였는데 8월 15일 광복 41주년 특별기획으로 「국사교과서 새로 써야한다」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하면서 촉발되었다.<sup>7)</sup> 이에 문교부는 같은 국정교과서인 국어과보다 2년 가량 앞서 개정작업에 착수할 수밖에 없었다.<sup>8)</sup> 《조선일보》의 특집기사는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역사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나온 것으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도 강한 영향을 주었던 고대사와 현대사 분야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새로운 기구로 ‘국사교육심의회’를 발족하기에 이르렀다.

원래 기존의 국사 교과서는 1963년 만들어진 「국사교육내용통일안」이 준거가 되어 편찬되었다. 이는 당시 문교부가 주관하여 구성한 중견학자들의 회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편수자료」에 수록한 것으로 ‘준법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sup>9)</sup> 그런데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단기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편수자료」를 가지고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우선 당시 국사 교과서의 문제점을 추출하고 새로운 교과서에 담길 내용과 체계를 포함한 「편찬준거안」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사교육심의회’는 변태섭 교수를 위원장으로, 김정배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1986년 10월 24일 활동을 시작하여 1986년 11월 3일 문교부 장학편수실 산하에 두는 것으로 정식 발족하였다. 고고미술, 고대사, 중·근세사, 근·현대사, 역사교육 등 5개 분과로 구성되었으며 총 30명의 교수, 교사, 전문가가 참여하였다.<sup>10)</sup> 이 중 근·현대사 분과에는 이광린(서강대, 소속은 당시), 유영익(한림대), 이현희(성신여대), 박영석(국사편찬위원장), 조동걸(국민대), 박성수(정신문화연구원)가 참여하였다.<sup>11)</sup> 이 중 박영석은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편찬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sup>12)</sup> 이들 연구진들은 기존 국사 교과서 집필의 기준이 되는 새로운 준거안을 마련해야만 하였다. ‘국사교육심의회’는 국사 교과서 수정을 위해 성립되어 제5

7) 《조선일보》 1986.08.15., 「국사 교과서 새로 써야한다」

8) 《조선일보》 1990.02.20., 「고조선 최초국가로 명기」; 《조선일보》 1990.03.03., 「교과서의 고대사 공개토론 아쉬워」.

9)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689쪽.

10) 《조선일보》 1986.11.04., 「국사 교육심의회 발족」

11) 《조선일보》 1986.11.06., 「고대사 대폭 강화...국사교육 혁신」

12) 『국사』(1990), 판권.

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편찬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또 반 년에 걸쳐 진행된 ‘국사교육심의회’의 활동 결과로 제시된 국사 교과서 「편찬준거안」은 교과서 집필에 토대가 되는 중요한 지침서였다.

‘국사교육심의회’를 기획·구성하고 실질적으로 회의를 주도한 문교부 편수관 윤종영에 의하면 국사 교과서 내용 서술은 “한국사학계의 연구성과를 기본”으로 하되, “주체적인 역사 의식에 입각한 민족사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역사인식을 반영”토록하고 그 서술은 “학문적 관점을 넘어 역사교육적인 관점에서 고려”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주체적인 역사인식”을 위해 “민족사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이 역사인식”인데 이를 위해 윤종영은 “학문적인 전거가 부족하더라도 민족교육이라는 측면에서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면 새로운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다.<sup>13)</sup> 이는 거꾸로 말하면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 내용을 생산하는 것은 국가의 국정지표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국가 지배의 이데올로기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국사 교과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뜻이다. 그가 직접 교과서 내용을 생산해 내지는 않았지만 「편찬준거안」의 수립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점에서 그의 생각이 「편찬준거안」에 녹아들 가능성은 컸다. 이는 당시 국사 교과서에 대한 국정제 폐지와 검정제 도입을 요구하던 학계에 대해 “국사교과서가 갖는 특수성 때문에 풀기가 어렵습니다. 요사이 우리 학계의 소장학자 가운데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일부 학자들은 극히 편향적인 계급사관의 입장에서 우리 역사를 서술하고 있는데 만약 이들이 이러한 입장에서 교과서를 집필하고 이것이 중등학교 교재가 된다면 앞으로 우리 역사교육에 많은 문제를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sup>14)</sup> 국사 교과서 검정제는 문교부 내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로도 짐작할 수 있다.

「편찬준거안」은 1987년 6월 5일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에는 35개 항목의 「편찬준거안」 최종안과 새 교과서 개발기관으로 국사편찬위원회를 선정·위탁할 계획과 이렇게 개발된 새 교과서는 중학교는 1989학년도, 고등학교는 1990학년도에 보급·사용할 목표임을 밝혔다. 「편찬준거안」 중에서 <근·현대사 부분>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한국의 근·현대사를 3기로 구분하여 한말까지를 제1기, 일제강점기를 제2기, 광복 이후를 제3기로 서술하되 제2기를 ‘독립운동의 전개와 발전’으로 파악한다.
- 2) 한말까지의 단원은 ‘개화’, ‘개혁’, ‘구국’운동을 중심개념으로 하여 구조화한다. ‘개혁’운동은 동학운동·갑오경장·광무개혁 등을 하나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구국’운동은 러·일전쟁 후의 주권수호 노력과 의병전쟁 및 계몽운동을 포괄하여 구성한다.
- 3) 광복 이후 현대사의 서술 내용은 증면하되, 특히 경제·사회·문화적 발전에 대하여 기술한다.
- 4) 광복 이후 북한의 역사 변천에 대하여 민족사적 차원에서 필요한 내용을 설명한다.
- 5)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한다.
- 6) 광복 이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술한다.

「편찬준거안」에서는 근·현대사를 3시기로 구분하여 한말까지를 제1기라고 하여 제1기의 끝부분은 규정하면서도 시작이 언제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편찬준거안」 중·근세사 부분에서도 근세의 끝에 대한 관련한 언급은 없다. 위에서도 다뤘지만 근대사를 제1기와 제2기로 나눈 것은 분량의 증가에 따른 것도 있지만 시기구분을 통해 근대사회의 내재적 지향을

13)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696쪽.

14) 윤종영,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740쪽.



명확히 하고 일제강점에 의한 민족의 수난과 좌절 그리고 항일투쟁을 자세히 다루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1기는 ‘개화’·‘개혁’·‘구국’에 초점을 두고 기술하도록 유도하였다.

현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증면을 직접적으로 제시한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기술케하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조할 것을 주문한 것은 6공화국 수립과 함께 정권의 정통성과 민주 정부임을 강조하기 위한 장치로 생각한다.

「편찬준거안」의 마련과 함께 제시된 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편찬준거안」을 더욱 자세히 한 것이다. 제4차 교육과정기에 제시된 교육의 목적은 “민주, 복지, 정의 사회의 건설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길러내는 것”이었지만 이에 앞서 “민주주의를 토착화하고, 복지 사회를 건설하며, 정의 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을 혁신하고, 문화를 창달”한다는<sup>15)</sup> 제5공화국의 국정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교육 과정 구성이 신생 정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이에 반해 제5차 교육과정기의 교육과정 구성 방향은 “홍익 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여, 민주 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 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한다며<sup>16)</sup> 제6공화국의 국정지표를 노출시키지는 않았다.

5차 『국사』의 교과 목표와 근·현대사 부분의 서술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교과 목표 <sup>17)</sup>	
한국의 역사를 구조적으로 파악하여 그 발전의 특성을 이해하고, 역사 학습 과정을 통해 탐구 기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며, 올바른 역사 의식을 바탕으로 새 문화 창조와 민주 사회 발전에 기여하게 한다.	
1)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문화 및 사회·경제면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인식하게 한다. 2) 한국의 전통과 문화의 특질을 세계사적 보편성과 관련시켜 인식하게 한다. 3) 역사적 사실과 각 시대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현재적 관점에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게 한다. 4) 역사 자료를 조사, 분석, 종합하는 기능과 역사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5) 향토 문화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민족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며, 새역사 창조에 적극 참여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2. 내용 <sup>18)</sup>	
5) 근대 사회의 태동	근대 사회의 태동이라는 측면에서 조선 후기의 제도 개편, 산업 발달, 신분제의 변화를 파악하게 하고, 실학과 서민 문화의 발달, 동학의 창도와

15)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12.31. 별책4, 2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4차\_1981]고등학교.pdf’로 제공).

16)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 4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pdf’로 제공 기준).

17)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 43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pdf’로 제공 기준).

	서민의 각성에서 나타난 역사성을 인식하게 한다.
	(1) 제도의 개편과 정치적 변화 (2) 산업 발달과 사회 변동 (3) 문화의 새 기운 (4) 서민 의식의 성장
6) 근대 사회의 발전	근대 사회로의 새로운 움직임과 외세의 충격에 대응하면서 근대화를 추구해 가는 과정을 파악하게 하고, 자주적 근대화를 저해한 외세의 침략성을 인식하게 한다.
	(1) 근대 사회의 전개 (2) 민족 의식의 성장 (3) 근대의 사회의 경제 (4) 근대 문화의 발달
7) 민족의 독립 운동	국권 상실 이후 전개된 무장 독립 전쟁과 외교적 노력, 사회·경제적 저항, 민족 문화 수호 운동 등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고, 당시의 독립 운동을 세계 정세의 흐름과 관련하여 인식하게 한다.
	(1) 3·1 운동 (2) 대한 민국 임시 정부와 독립 전쟁 (3) 사회·경제적 저항 운동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8) 현대 사회의 전개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미주 정치의 발전, 경제적 근대화의 달성, 민족 문화의 창달, 국제 사회로의 진출 등을 중심으로 파악하게 하고, 대한 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과 민족 통일의 과제를 인식하게 한다.
	(1) 민주 정치의 발전 (2) 경제 활동의 진전 (3) 현대 문화의 동향 (4) 세계 속의 한국

교육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선 조선 후기를 근대라고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근대 사회의 태동을 근대로 규정한 듯하다. 「편찬준거안」과 달리 한말을 ‘근대 사회의 태동’과 ‘근대 사회의 전개’로 구분하여 서술토록 하고, 근대의 시작을 안과 밖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안으로는 조선 후기를 밖으로는 국제사회로 진입하는 개항 이후를 근대로 인식한 것이다. 내용의 중단원 구성은 수정없이 그대로 교과서의 체제가 되었으나 그 하위 소단원은 거의 대부분 수정되었다.(2장 2절의 <표1> 참조)

다음은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을 읊긴 것이다.<sup>19)</sup>

다.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	
1) 지도	(1) 중학교에서의 정치사를 중심으로 한 국사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사와 사회 경제사를 중심으로 한국사 이해의 체계를 세우도록 지도한다. (2) 오늘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강조하되,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민

18)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pdf’로 제공 기준 44쪽)

19)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 45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pdf’로 제공 기준).

	<p>족, 사회, 국가의 과제 해결이란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p> <p>(3) 민족 문화의 특성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세계사와 관련시켜 지도한다.</p> <p>(4) 고고학, 민속학, 인류학, 사회학 등의 연구 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역사 이해를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도록 지도한다.</p> <p>(5)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그 시대와 전체 역사 속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역사적 사고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p> <p>(6) 다양한 학습 자료와 수업 방법을 활용하여 역사에 대한 흥미를 높이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지도한다.</p> <p>(7) 향토 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지를 지니게 하며, 향토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사 발전에 기여하려는 태도를 가지도록 지도한다.</p>
2) 평 가	<p>(1)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편적 지식의 평가보다는 시대의 특성과 역사적 의미의 이해 정도를 평가한다.</p> <p>(2) 지필 검사에서 평가하기 어려운 역사적 탐구 기능과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수업 관찰, 과제물 검사 등을 통해 평가한다.</p>

5차 『국사』의 지도 및 평가상의 유의점에서 눈에 띄는 것은 “(2) **오늘의 현실과 직결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강조하되, 한국사의 전개 과정을 민족, 사회, 국가의 과제 해결이란 측면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한 점이다. 국정 국사 교과서로서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지도 지침으로 민족주체성에 입각한 교과서 작성과 개인의 지적성취도보다는 민족·사회·국가에 대한 과제를 해결하고 이의 발전을 이루는 데에 학습지도의 방점이 찍혀 있다. 1980년대 후반 민주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던 국정 교과서의 한계 지적과 검정 교과서의 발행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5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역사적 사고력**’을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명시한 것이 눈에 띈다.<sup>20)</sup> 이를 위해 교과서에 사료와 같은 학습보조자료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 2) 『국사』 교과서 서술 체제와 학습보조자료

5차 『국사』는 4차 『국사』와 유사한 구성과 체제로 편성되어 있다. 먼저 I·II·III·IV장으로 대단원을 삼았고 1·2·3·4 또는 5의 중단원을 구성하였고 그 아래에 (1)·(2)·(3) 등의 소단원과 이하 다수의 소항목으로 갖추어져 있다.

대단원은 첫 페이지에 대단원의 제목과 중단원을 제시하고 그 아래에 학습보조자료로써 사진·사료 등으로 채웠다. 그 다음 면에는 단원개관을 두 문단 정도로 간략하게 서술하였고 그 아래에는 해당 시기의 연표를 포함시켰다. 중단원은 해당 중단원의 제목과 개요를 실었으며 그 하단에는 연구과제를 제시하여 해당 중단원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하였다.

이들 내용은 정치사를 중심으로 하되 문화사 즉 사회·경제·문화를 포함한 광의의 문화사로 편재하였다. 특히 주제사·분류사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사를 택하면서도 시대를

20)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1989-95)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정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제12권 1호, 2008, 204쪽.

통괄하도록 시도하였다. 조선 후기사 집필에 참여한 최완기에 의하면 용어의 문제에서 민란 등을 농민의 항쟁이나 농민 운동으로 바꾸었으며 군역제도 종래의 ‘병농일치’를 ‘농병일치’, ‘군관민’을 ‘민관군’으로 바꾸는 등 농민 중심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이는 역사의 주인공을 농민으로 보고 기층 사회의 움직임을 주목한 것과 같다. 또 이와 궤를 같이하여 왕조사 혹은 지배층 중심을 지양하여 왕조의 명칭보다는 세기를 강조한 구성이 이뤄졌고 기층 단위의 변혁 움직임에 주목해 민중의 각성, 신분체제의 탈피 움직임, 役制에 대한 피지배 집단의 구속성을 지배에 대한 저항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sup>21)</sup>

5차 『국사』의 근·현대사 부분의 전체 서술 체제를 파악하기 전에 우선 근대의 기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문교부는 1963년 국사교육통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같은 해 6월 「국사교육 내용의 통일」(문교부, 『편수자료』 5,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64)을 발표하여 근대사의 기점을 ‘강화도조약’으로 결정하였다고 하였다.<sup>22)</sup> 그럼에도 5차 『국사』의 하권이 18세기 실학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사건 중심의 역사적 사실의 나열을 지양하고 자율적이고 내재적인 발전의 흐름을 중시해 서술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나,<sup>23)</sup> 이 시기를 근대로 보지는 않는다.

4차 『국사』의 체제를 보면 ‘II. 근대 사회의 성장’은 고종의 즉위 즉 1864년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같은 책의 부록으로 실은 연표를 보면 1886년까지를 조선사회, 그 이후를 대한제국으로 구분하고 있고 대한제국은 1905년에 끝나고 1906년부터는 일제 침략 시대로 구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면 5차 『국사』는 4차 『국사』와 마찬가지로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군의 섭정에서 시작하지만 ‘(2) 개항과 근대 사회의 개막’ 부분에서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 근대사회로 진전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와 달리 부록의 연표를 보면 근대사회를 1863년 고종 즉위부터 표시하고 있다. 본문과 연표가 서로 맞지 않는 명백한 오류를 보이는 점은 교과서의 완성도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4차 『국사』와 달리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5차 『국사』는 일제침략시대 혹은 일제강점기를 구분하지 않고 근대를 1945년까지 설정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이는 3차 『국사』(1974년판)에서 처음으로 대단원에 ‘근대’가 명시되고 근대의 기점이 개항으로 설정된 것과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라 하겠고 1979년판에서 근대 기점이 흥선대원군 집권기로 재설정된 것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그런데 1979년판 『국사』의 부록 연표를 보면 1897년 전을 ‘조선사회’로, 1897년부터 1910년까지를 ‘대한제국’으로 1910년부터 1945년까지를 ‘일제침략시대’로 구분한 것을 보면 시기구분의 측면에서 『국사』 교과서 체제의 기술적 퇴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대 기점이 교과서마다 차이가 나는 것은 근대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점에서 비롯된다고 하겠다. 5차 『국사』는 근대사회를 “민주화, 산업화, 합리화, 과학화 등이 추구된다. 조선 후기 사회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서서히 나타나, 근대사회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었다”<sup>24)</sup>라며 근대의 기준을 국민의 참정권이 전제되는 민주정치와 개인의 권리 신장과 국민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 사회적으로 각 계층의 평등,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성립, 사상적으로 합리화 추구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sup>25)</sup> 하지만 4차 『국사』 I장에서는 본문에 “박규수, 김옥균 등 개화 사상가들에게 영향

21) 최완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 188~189쪽.

22) 조성운,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특징」, 『역사와교육』 30, 2020, 126쪽.

23) 《동아일보》 1987.03.10., 「국사교과서 현대사 상세히 문화발전 치중」.

24) 『국사』(1990), 10쪽.

25) 최완기,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 189~190쪽.

을 줌으로써 우리나라 근대 사상의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았다”며 근대 사상의 태동에 북학파가 영향을 주었다고만 서술하고 있다.<sup>26)</sup> 이처럼 5차 『국사』의 근대편 체제는 근대라는 개념에 대한 고민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식으로 구성되었으며 역사학적 방법론으로 서술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5차 『국사』의 전체적인 서술 체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4차 『국사』와 대단원·중단원·소단원의 체제를 시기에 맞춰 자른 다음 아래의 <표>들로 정리하였다.<sup>27)</sup>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보다 근현대사 서술이 자세하게 세분화되어 있다. 이를 전체 비중의 측면에서 먼저 살펴보자. 제4차 교육과정기부터 국사를 상, 하로 나누어 출판하였는데 상, 하 각각 178쪽으로 편찬되었다. 단권으로 출판한 제3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1979년도 판과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략 비중으로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 1979년판은 근대사 부분 66쪽(21.9%)과 현대사 부분 16쪽(5.3%)로 총 82쪽(27.2%)인데<sup>28)</sup> 반해 1982년판은 근대사 부분 96쪽(26.4%)과 현대사 부분 24쪽(6.2%)로 총 116쪽(32.6%)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부터 근현대의 비중이 실질적으로 급증한 것은 사실이다. 이와 더불어 1990년에 간행된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는 상, 하 두 권으로 전근대사(상) 196쪽, 근현대사(하) 202쪽으로 전체 398쪽 중 근대사 부분이 168쪽(42.2%), 현대사 부분이 36쪽(9.0%)이다.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보다도 분량과 비중 모두 증가하였고 특히 근대사 부분의 분량이 16% 가량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이러한 분량 증가와 비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1982년판 이전의 교과서와 『국사』(1990)는 같은 판형을 쓰고 있으면서도 『국사』(1990)에 수록되어 있는 글자 크기가 이전 교과서에 비해 작은 크기로 조판되어 있어 교과서에 수록된 모든 분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은 강조해 두고 싶다.

<표1> 4차 『국사』(1982)와 5차 『국사』(1990) 근현대사 I 단원 비교

제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82)	제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90)
I. 근대사회의 태동	I. 근대사회의 태동
1. 조선후기의 사회변동과 대외관계 (1) 정치·군사상의 변화 (2) 세제의 개혁 (3) 산업의 발달	1. 근대 사회로의 지향 (1) <b>사회 변화와 서민 의식의 성장</b> <sup>29)</sup> (2) 근대 사회로의 이행
2. 문화의 새 기운 (1) 실학의 발달 (2) 유교철학의 동향 (3)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	2. 정치 체제의 변화 (1) 통치 기구의 변화 (2) 봉당정치의 발달과 변질 (3) 탕평책의 실시 (4) 세도 정치의 전개 (5) 조선 후기의 대외 관계

26) 『국사』(1982), 31쪽. 이외에도 중단원 1장에서는 “농업에 있어서는 새로운 영농 기술이 개발되고, 상업에 있어서는 전기와 달리 자유 상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근대 사회로의 내재적 성장을 의미한다”거나 2장에서는 “실학이 유교주의적 기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으나, 서서히 근대사회로 지향하는데 기여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나 본문에서 이를 뒷받침해 줄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27) 여기서는 대단원·중단원·소단원의 제목의 변화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되,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고찰할 것이다.

28) 한철호,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역사와교육』 27, 2018, 165쪽.

<p>3. 사회의 동요와 종교의 새 기운</p> <p>(1) 사회의 동요</p> <p>(2) 종교의 새 기운</p>	<p>3. 경제 구조의 변화와 사회 변동</p> <p>(1) 수취 체제의 개편</p> <p>(2) 경제 생활의 향상</p> <p>(3) 사회 구조의 변동</p> <p>(4) 사회 불안과 종교계의 변화</p> <p>4. 문화의 새 기운</p> <p>(1) 성리학계의 동향과 양명학의 수용</p> <p>(2) 실학 사상의 발달</p> <p>(3) 문학과 예술의 새 경향</p> <p>(4) 과학과 기술의 발달</p>
<p>1~56쪽(56면) / 31.8%</p>	<p>1~68쪽(68면) / 33.7%</p>

먼저 근대 진입 단계로 설정한 'I. 근대사회의 태동'을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변동을 근대사회로의 지향으로 재설정 한 것이 눈에 띈다. 중단원 '1. 근대 사회로의 지향'은 4차 『국사』에서는 없고 새롭게 작성한 부분으로 정치·군사·경제·산업에 앞서 서민 의식의 성장을 다룸으로써 양반을 최상위에 둔 신분질서의 동요에 따른 농민 의식이 재야의 진보적 지식인층에 의한 개혁 사상으로 각성하기 시작했음을 강조하고 있다.<sup>30)</sup>

<표2> 4차 『국사』(1982)와 5차 『국사』(1990) 근현대사 II 단원 비교

제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82)	제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90)
II. 근대사회의 성장	II. 근대사회의 발달
<p>1. 민족의 각성과 근대문화의 수용</p> <p>(1) 대원군의 집정</p> <p>(2) 개항</p> <p>(3) 개화운동과 척사운동</p> <p>(4) <b>동학운동</b></p> <p>(5) <b>갑오경장</b>과 근대문물의 수용</p> <p>2. 근대국가의 성립과 시련</p> <p>(1) 제국주의 열강의 대립</p> <p>(2)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p> <p>(3) 일제의 국권침탈과 민족의 저항</p> <p>(4) <b>의병</b>의 구국 항전</p> <p>(5) 애국계몽운동</p>	<p>1. 근대 사회의 전개</p> <p>(1) 흥선 대원군의 정치</p> <p>(2) 개항과 근대 사회의 개막</p> <p>(3)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p> <p>(4) 개화당의 개혁 운동</p> <p>2. 근대 의식의 성장과 민족 운동의 전개</p> <p>(1) <b>동학 농민 운동</b>의 전개</p> <p>(2) <b>근대적 개혁</b>의 추진</p> <p>(3)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p> <p>(4) <b>항일 의병 전쟁</b>의 전개</p> <p>(5) 애국 계몽 운동의 전개</p> <p>3. 근대의 경제와 사회</p> <p>(1)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p> <p>(2)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p> <p>(3) 개항 이후의 사회적 변화</p>

29) 집필자의 원래 제목은 '민중의식의 성장'이었다.(최완기, 1990, 189쪽)

30) 『국사』(1990), 6~7쪽.

	4. 근대 문화의 발달 (1) 근대 문명의 수용 (2) 근대 교육과 국학 연구 (3)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57~118쪽(62면) / 35.2%	67~126(60면) / 29.7%

본격적인 근대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II장의 체제를 살펴보면, I장과 마찬가지로 중단원의 증가가 눈에 띈다. (하)권 비중도 29.7%로 중단원이 늘어난 반면 분량은 다소 감소한 듯 보이지만 조판의 변화로 분량 역시 증가하였다. 또 소단원의 제목을 보면 ‘동학운동’이 ‘동학농민운동’으로, ‘갑오경장’이 ‘근대적 개혁’(본문에는 갑오개혁)으로 ‘의병’이 ‘항일의병전쟁’으로 명칭이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4차 교과서는 II장 근대사회의 성장에 대원군의 집정(고종의 즉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 단원에 담고 있으나 5차 교과서는 이를 두 개의 중단원으로 나누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3> 4차 『국사』(1982)와 5차 『국사』(1990) 근현대사 III 단원 비교

제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82)	제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90)
II. 근대사회의 성장	III. 민족의 독립운동
3.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1) 일제 침략하의 민족의 수난 (2) 3·1운동 이전의 독립운동 (3) 3·1운동 (4)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1. 독립 의식의 성장과 3·1운동 (1) 민족의 수난 (2) 항일 독립 운동의 추진 (3) 3·1운동
4. 독립운동의 새 단계와 민족문화의 수호 (1) 독립운동의 강화 (2) 무장독립전쟁 (3) 광복군의 대일전쟁 (4) 민족문화의 수호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 전쟁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2) 국내의 독립 전쟁 (3) 국외의 독립 전쟁
	3. 경제·사회적 저항 운동 (1) 민족 경제의 침탈 (2) 경제적 저항 운동의 전개 (3) 사회 운동의 전개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1) 국학 운동의 전개 (2) 교육과 종교 (3) 문학과 예술 활동
119~152쪽(34면) / 19.3%	127~168(42면) / 20.8%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독립의식의 성장’과 ‘경제·사회적 저항 운동’으로 명시한 것이 4차 교과서와 차별되는 부분이며 이 부분에서도 중단원의 세분화가 눈에 띈다. 분량면에서는 8면이 증면하여 20.8%를 차지한 것으로 증면되었으나 비율면에서는 가장 적게 늘어난 부분이다.

<표4> 4차 『국사』(1982)와 5차 『국사』(1990) 근현대사 IV 단원 비교

제4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82)	제5차 교육과정 국사교과서(하)(1990)
III. 현대 사회의 발달	IV. 현대 사회의 전개
1. 대한민국의 정통성 (1) 대한민국의 성립 (2) <b>6·25 남침</b>  2. 민주주의 발전의 새 전기 (1) 민주주의의 성장 (2) 대한민국의 발전 (3) 제5공화국의 성립 (4) 오늘의 역사적 사명	1. 민주 정치의 발전 (1) 대한민국의 수립 (2) <b>북한의 공산화와 6·25 전쟁</b> (3) 민주주의의 발전 (4) 통일을 위한 노력  2.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1) 경제 활동의 진전 (2) 사회 개혁 운동의 전개  3. 현대 문화의 동향 (1) 교육과 학술 활동 (2) 종교 생활과 문예 활동 (3) <b>체육의 발전과 올림픽의 개최</b> (4) 오늘의 역사적 사명 <sup>31)</sup>
153~176쪽(24면) / 13.7%	167~202쪽(36면) / 17.8%

위의 「편찬준거안」에서도 살펴보았듯이 IV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새롭게 편성되어 있는 점이 확인된다. 세부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북한의 공산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의 성립과 공산주의를 등치시킴으로써 북한=공산주의임을 전제하고 있다. 또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6·25남침’이 ‘6·25전쟁’으로, 전쟁의 성격을 한층 강화한 제목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6·25전쟁’으로서는 이 전쟁이 갖는 세계전의 성격과 그 발발 원인 및 시점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닌다. 현대사 분야는 『국사』 모든 분야사에 비해 가장 적은 양을 차지하고 있지만 4차 『국사』에 비해서 12면이 증편하였고 그에 따라 전체에서 17.8%를 차지한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고 하지만 현대사는 현재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쉽사리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어렵고 또 학계의 일반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면 1945년 이후 짧은 시기를 다루는 현대사의 특징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결코 적다고는 할 수 없다.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시대별 집필진이 구성되며 기존의 3~4명이었던<sup>32)</sup> 집필자가 9명까지 늘어나는 등 양적인 변화가 나타났고, 시대별로 책임 집필진을 구성하는 등 질적인 변화를 보이기도 하였다. 집필진 구성으로는 최몽룡(서울대)<sup>33)</sup>, 안승주(공주대), 김두진(국민대) 등 3명이 고대편으로 맡았고 박한설(강원대), 박천식(전북대) 등 2명이 중세편을 집필하였으며, 이수건(영남대)이 단독으로 근세편을, 최완기(서울시립대), 유영렬(숭실대) 등 2명이 근대편을 맡고 신재홍(국사편찬위원회)이 근대와 현대편 집필에 참여하였다.

31) 1979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편성.

32) 4차 『국사』의 경우, 하현강(연세대, 고대·중세편), 차문섭(단국대, 근세·근대편), 박용옥(성신여대, 근대 성장편), 이현희(성신여대, 근대 성장·현대편) 등으로 4명이 집필에 참여하였다.

33) 최몽룡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국정 역사 교과서 대표 집필진으로 선정했으나 여기자 성추행 의혹이 일자 선정 6일만에 자진사퇴하였다(《한겨레》 2015.11.06. 인터넷판(검색일 : 2020년 11월 24일))



서술 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글 이외의 학습보조자료이다. 학습보조자료는 아래의 <표5>와 같이 사진, 사료, 지도가 다수 사용되었다. 그 중 직관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차 『국사』(1979)의 사진 자료는 22개, 사료는 6개, 지도는 2개로 구성되어 있었고, 4차 『국사』(1982)의 사진 자료는 91개, 사료는 9개, 지도 9개로 지면의 증가와 함께 사진 자료를 대폭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5차 『국사』의 경우, 사진 자료는 91개로 4차 『국사』와 같지만 사료는 37개, 지도는 19개로 수적으로도 늘었고 새로운 자료를 대거 활용하여 시각적·직관적 이해도를 높였다.<sup>34)</sup>

<표5> 5차 『국사』(하)에 수록된 학습보조자료의 제목과 개재수

단원	사진	사료	지도
I			대동여지도
I-1	주막도	공명첩	
	집짓기*		
I-2	남한산성*	교지	대청사행로
	송시열		대일 통신사 행로
	탕평비*		
	한말의 규장각 서고		
	백두산 정계비		
	통신사행렬도		
I-3	대동법 실시 기념비*	토지문서*	조선 후기 대동세의 징수와 운송
	모내기	동경대전	조선후기 도시의 발달
	대장간		조선 후기 상업과 무역 활동*
	시장도		장시의 구역도
			19세기 농민항쟁
			천주교의 박해와 교세의 신장
I-4	정약용	성리학 서적	대동여지도(부분도)
	정선의 인왕제색도	정제두의 글씨*	
	김홍도의 씨름도*	북학의*	
	신윤복의 선유도*	지봉유설	
	민화	춘향전*	
	청화백자*	동의보감	
	수원성*		
	거중기*		
II장	독립문		
II-1	홍선대원군*	강화도조약의 주요내용	
	경복궁*	갑신정변 때의 14개조 개혁 요강*	
	신미양요 때의 미국 군함 알래스카호		
	광성보		
	강화도조약 체결 장면*		
	김홍집		
	척사상소문을 읽고 있는 유생		

34) 선행 연구에서도 학습보조자료에 주목해 그 개재량을 수식화 하였으나 사진과 사료의 구분이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어 전체적인 숫자는 연구마다 다를 수 있다. 필자는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문자로 이뤄진 자료 중에 해독이 가능한 사진 자료는 사료로 분류하였다.

	임오군란 당시 습격당하는 일본 공사관		
	갑신정변의 주역들*		
II-2	서재필*	전봉준의 격문	동학의 교세 확장
	독립문	폐정개혁 12조*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
	대한제국의 군인	홍범14조*	의병의 쫓기
	의병	광민공동회의 헌의 6조*	
	최익현*	대한 국제	
	박승환	대한자강회 월보	
II-3	개항 후의 인천항	황성신문의 논설	
	개항 후의 인천항	국채 보상 국민 대회 의 취지문	열강의 이권 침탈
	일제의 토지 측량	천일은행 장부	경제 자주권 수호 운동
	개화기의 서대문 안 풍경	독립협회 회보	
II-4	개화기 우편 배달원	백정 박성춘의 관민 공동회 연설문(1898)	
	광혜원에서 사용한 의료기구	서유견문	한말 서울의 주요 기관
	신식교육 장면	신소설	
	나철	애국가*	
III장	파고다 공원		
III-1	헌병 경찰 통치하의 식민지 교육	2·8독립선언서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기지
	서전서숙		
	3·1운동 당시 덕수궁 앞에서의 만세시위		
III-2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1919)	대한민국임시헌장 선포문*	무장독립군의 대일 항전
	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의거 직후 진행되는 윤봉길 의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대일선전 성명서*	
	봉오동 전투 현장		
	김좌진		
	훈련중인 한국 광복군		
한국광복군의 사열식			
III-3	간도로 이주하는 농민들	신간회 창립을 보도한 당시의 신문	
	일제의 산림 자원 약탈	브나로드 운동의 보도	
	일본으로의 쌀 반출		
	일제에 징용되어 혹사당하는 우리 동포들		
III-4	물산 장려 운동		
	식민지 교육에 이용된 교과서들	한글맞춤법 통일안	
	조선어학회 회원들*	자주독립선언문	
	민족주의 역사책		
	보성전문학교의 도서관		
폐허			
IV장	홍난파		
IV장	제24회 서울 올림픽 입장식		
IV-1	38도선 안내 표지	신탁통치 반대 유인물	반공 의거와 공산 폭동

	제헌국회 개원식	대한민국 헌법 전문	
	초대 대통령 이승만	북한 공산군 작전 지도 및 공격 명령 1호	
	국군의 평양입성을 환영하는 시민들		
	대동강 철교를 넘어오는 피난민들*35)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4·19의거		
	하야하는 이 대통령		
	장면 내각의 기자 회견		
	제6공화국 출범		
	헝가리와외의 수교		
	남북 적십자 회담		
	남북 이산 가족 재회		
남북 국회 회담			
IV-2	충주 비료 공장(1961)		
	자동차 수출의 시작		
	근대화되어 가는 농촌		
	광복 후의 신문 복간		
IV-3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1956)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발표에 환호하는 어린이들		
	국사편찬위원회		
	예술의 전당		
	올림픽 주경기장		
총계	91개	37개	19개

새로운 것으로 대체한 사진들은 대개 주막도·모내기·대장간·시장도 등 서술 원칙에 부합하는 농민과 서민 등 일반 민중과 관련한 자료를 게재한 면이 돋보인다. 이 중에서도 특히 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 자료는 현대사 부분의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발표에 환호하는 어린이들’의 사진이다. 중학교 무시험 진학은 1969년 2월 5일 서울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 1971년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만약 1990년 고등학교 3학년으로 이 교과서로 공부했을 학생들이라면 거의 1971년 생 직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책을 들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정도로 친숙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새로운 사진 외에도 동일한 사진을 재게시한 것들도 적지 않다. 위의 <표5>에 별표(\*)한 것이 그것인데 91개 중에 19건(약 20.9%)이 동일한 사진이다. 동일한 사진은 아니지만 같은 제목에 다른 사진으로 대체한 것들도 존재하지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진 않은 듯 하다.

또 사료의 수는 9개였던 4차 『국사』보다 4배 이상 많은 37건을 포함하였는데 사료의 양적 증가는 교육과정의 목표인 ‘역사적 탐구력’과 관련이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제5차 교육과정 『국사』 교과서 해설서에는 이를 위해 사료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역사학도가 지닐 수 있는 역사적 사고는 중·고등학교의 역사 수업에서도 연습에 의해 배울 수 있고 사료학습이 그러한 연습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이라고 하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번역되거나 쉬운 말로 다시 써진 옛 사료를 조사함으로써 역사가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나 생각하는

35) 해당 사진은 4차 교과서에서도 게재되었는데 그 사진에 “자유대만으로 넘어오는 북한 동포”라는 제목과 ‘과피된 대동강 철교를 건너 자유를 찾아오는 피난민의 대열이다’라는 설명을 붙인 반면, 5차 교과서는 별다른 서술 없이 제목만 “대동강 철교를 넘어오는 피난민들”이라고 붙인 것이 인상적이다.

방법을 연습”함으로써 역사적 탐구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sup>36)</sup> 이처럼 학습보조자료는 사진, 사료, 지도 등을 다수 활용하였고 여기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도표와 연표 그리고 각주를 사용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습자료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지 못하였고 농민 중심적 서술에 따른 의도적 사진 게재로 내용상의 형평성도 맞추지 못하였다. 즉 양적 증가 만큼 질적 증가가 뒤따라 주지 못해 공간 사용에 비해 학습 효과가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3.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5차 『국사』 교과서의 기본 방향은 기층 단위의 역사 주체를 앞선 교육과정기 교과서보다는 높게 설정하고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실제 5차 『국사』 근·현대사 분야의 서술은 어떤 내용과 맥락적 전개를 펼치고 있는지 지금까지 다뤄지지 않았던 중단원에 제시된 「연구과제」와 소항목까지 검토 대상을 넓히고 여기에 새롭게 제시된 용어와 변화된 용어를 중심으로 파악해 보고자 한다.

5차 『국사』의 근·현대사 서술은 4차 『국사』와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이후 조선 후기사를 ‘근대사회의 태동’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다. 이는 4차 『국사』와 같이 이 시기를 자본주의 맹아론에 입각해 있었음을 의미한다.<sup>37)</sup>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대사회의 태동’기 조선사회는 “안으로부터 싹트기 시작한 근대적인 요소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한 채 제국주의 열강에 개항을 하였다”<sup>38)</sup>고 언급한 것처럼 제국주의 열강 즉 일본에게 문호를 개방하기 전까지는 근대적인 요소만을 품고 있었을 뿐 근대라고 할 수 없는 시기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I~IV장을 중심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 1) 근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근대사에 해당하는 II, III장은 각각 4개의 중단원과 그 아래 소단원 및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 각각의 중단원에는 34개의 「연구과제」를 설정하여 근대사 중에 핵심적으로 학습할 목표를 제시하였다. 중단원 아래의 소단원에는 두 개 이상의 소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대단원-중단원-연구과제-소단원-소항목” 체제를 중단원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단원	II. 근대 사회의 발전
중단원	1. 근대사회의 전개
연구 과제	1. 흥선대원군이 실시한 내정 개혁과 대외정책의 성격은 어떠한가? 2. 개항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3. 개항 이후, 근대 국가의 수립을 목표로 한 각 부문의 개혁 추진 방향은 어떠했는가?

36) 문교부, 「고등학교 국사과 교육과정 해설」,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 45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_국사과\_해설서.pdf'로 제공 기준).

37) 조성운, 2020, 121쪽.

38) 『국사』(1990), 「단원개관」, 70쪽.

	4. 개화 운동과 위정척사운동 간의 갈등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5. 갑신정변 때에 추구한 개혁의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흥선대원군의 정치	전제 왕권의 강화 쇄국정책과 양요
	(2) 개항과 근대 사회의 개막	강화도조약과 개항 각국과의 조약체결 근대사회로의 진전
	(3) 개화정책의 추진과 반발	개화정책의 추진 위정척사운동의 전개 임오군란의 발발
	(4) 개화당의 개혁운동	개화당의 형성과 활동 갑신정변과 그 영향

‘1. 근대사회의 전개’에서는 흥선대원군의 정치가 가장 먼저 등장한다. 흥선대원군에 대해서는 3차 『국사』에서도 부국강병의 개혁정책을 펼친 인물로 우호적으로 평가했고<sup>39)</sup> 4차 『국사』에서는 “삼정을 바로잡고 농민 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획기적인 개혁을 감행”하는 등 개혁을 실시하였지만 경복궁 중건에 필요한 원납전 강제징수와 당백전 발행 및 백성들의 토목공사 징발에 의해 “대원군은 양반과 백성들의 큰 원성을 사게 되었다”고 평가하며 대원군에 대해 부정적 평가로 돌아섰다. 반면 5차 『국사』는 다시 “양반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약화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대외정책에 대해서는 “쇄국정책은 외세의 침략을 일시적으로 저지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나 조선의 문호 개방을 가로막아 근대화에 뒤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적으로 보았다. 즉 연구과제에서 제시한 흥선대원군의 내정개혁과 대외정책에 대해 개별적으로 파악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서술한 것으로 보인다. 대개 민중 중심의 개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면에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 단원에서는 근대 국가 건설과 관련하여 갑신정변을 주목하였다. 소단원 (3)과 (4)에서 개화정책과 개화당 그리고 갑신정변에 대해 많은 분량으로 다루고 있다. 이는 4차 『국사』에서 (3)개화운동과 척사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다룬 것을 내용면에서 대폭 확장하고 개화정책과 개화당의 형성 및 활동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다. 특히 위정척사운동에 대해 “우리 민족을 자주적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한 민족사상의 한 흐름”<sup>40)</sup>이라고 평가한 4차 『국사』와 달리 “당시 정부의 개화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되었고 그만큼 역사의 발전을 가로 막는 역기능도 가지고 있었다”<sup>41)</sup>고 하는 비판까지 하며 개화정책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도는 이미 연구과제 3·4·5번의 문항에서 잘 드러나 있다.

39) 한철호,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과 그 특징」, 『역사와교육』 27, 2018, 176쪽.

40) 『국사』(1982), 78쪽.

41) 『국사』(1990), 81쪽.

대단원	II. 근대 사회의 발전	
중단원	2. 근대의식의 성장과 민족운동의 전개	
연구 과제	1.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어떠하였는가? 2. 갑오개혁, 을미개혁의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3. 독립협회의 사상과 활동이 근대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4. 대한제국의 성격과 역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5. 항일의병전쟁과 애국계몽운동은 독립운동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농민층의 동요 동학농민군의 봉기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2) 근대적 개혁의 추진	갑오개혁 을미개혁 갑오·을미개혁의 의미
	(3) 독립협회의 활동과 대한제국	독립협회의 창립과 민중 계몽 국권·민권운동의 전개 독립협회 활동의 의의 대한제국
	(4) 항일 의병 전쟁의 전개	무력 항일 운동의 시작 의병 항전의 확대 항일 의병 전쟁의 의의
	(5) 애국계몽운동의 전개	애국계몽운동의 맥락 한말의 애국계몽운동

중단원 2에서 눈에서 띠는 부분은 동학농민운동의 소단원이다. 동학관련 내용은 4차 『국사』에서는 중단원 1에 있으면서 소단원 ‘(4)동학운동’이라는 제목이었다. 동학운동이 동학농민운동으로 개칭된 것이다. 우선 서술 흐름 상에 나타난 위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4차 『국사』의 동학은 열강의 대립과 일본의 경제침탈 등 방곡령을 다루는 과정에서 갑자기 ‘동학교세의 확대’라는 소항목을 두어 “제2세 교주 최시형이 (중략) 관료의 횡포와 일본 경제의 침투로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가난한 농민과 몰락한 양반들 사이에 세력” 뻗었다는 맥락으로 서술하였다. 반면 5차 『국사』는 중단원 2에 소단원 ‘(1)동학농민운동의 전개’라는 제목으로 근대의식의 성장이라는 중단원 학습목표의 첫 머리에 위치시켰다. 이에 대한 평가 역시 4차 『국사』는 “갑오경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밖으로는 청과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마침내 청·일전쟁이 일어났다”<sup>42)</sup>며 청·일전쟁의 직접적 원인을 동학운동에서 찾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면 5차 『국사』는 4차 『국사』와 마찬가지로 갑오개혁에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고 “반침략적 성격은 동학 농민군의 잔여 세력이 의병 운동에 가담함으로써 구국 의병 투쟁을 활성화시켰다”<sup>43)</sup>며 4차 『국사』와

42) 『국사』(1982), 83쪽.

43) 『국사』(1990), 90쪽.

는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이 단원에는 용어의 개칭이 두드러지는데 앞선 동학농민운동과 함께 갑오경장을 갑오개혁으로 바꿨고 의병의 항전을 항일 의병 전쟁으로 바꾸어 서술하고 있다. 특히 항일 의병 전쟁은 의병의 투쟁 대상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민란과 봉기의 수준을 넘어 근대적 전쟁이라는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의병의 활동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의병의 주체가 다수의 농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항전 이유가 국제 보전에 있었다는 점에서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와 충성을 교육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단원	II. 근대 사회의 발전	
중단원	3. 근대의 경제와 사회	
연구 과제	1. 개항 이후, 일본의 경제 침탈 정책은 어떠하였는가? 2. 일본의 경제적 침탈에 대항한 경제적 구국운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3. 개항 이후, 근대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4. 개항 이후, 우리나라의 신분제도와 사회 의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개항 이후 열강의 경제적 침탈	일본상인의 무역독점 제국주의 열강의 경제침탈 일본의 토지약탈
	(2) 경제적 구국 운동의 전개	경제적 침탈 저지운동 근대적 상업 자본의 성장 산업 자본과 금융자본
	(3) 개항 이후의 사회적 변화	평등사회로의 이행 사회이식의 변화

중단원 3의 연구과제는 일본의 경제침탈과 이에 대항하는 경제적 구국운동 및 근대적 경제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볼 것과 이에 따른 사회상의 변화에 주목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단원 3과 4는 4차 『국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경제적·사회적 상황을 폭넓게 설명하면서 한국 병탄 직전까지 일본의 한국 침탈과 이에 대항하는 한국민의 대응을 서술하고 있다. 또 앞선 교육과정의 『국사』에서 시대별로 흩어져 있던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이곳으로 한데 묶어 주제사 서술이 두드러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한편 백정에 대한 서술에서 4차 『국사』의 경우 갑오경장을 다루는 부분에서 백정, 광대 등의 천민신분을 폐지하였다고<sup>44)</sup> 언급한데 그치고 있지만 5차 『국사』에서는 4차 『국사』에서 다루지도 않은 관민공동회를 새롭게 추가하고 천인 출신인 백정이 연사로 나섰다는 사실과 백정 박성준의 관민공동회 연설문을 사료로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sup>45)</sup>

44) 『국사』(1982), 88쪽.

45) 『국사』(1990), 117쪽.

대단원	II. 근대 사회의 발전	
중단원	4. 근대 문화의 발달	
연구 과제	1. 근대 기술과 근대 시설의 수용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2. 근대 교육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어떠한 성격을 지녔는가? 3. 한말에 국학운동이 일어난 동기와 그 의의는 무엇인가? 4. 한말의 종교계는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근대 문명의 수용	과학기술의 수용 근대시설의 수용
	(2) 근대 교육과 국학 연구	근대 교육의 발전 국학연구의 진전
	(3) 문예와 종교의 새 경향	문학의 새 경향 예술계의 변화 종교운동의 변화

중단원 4의 경우도 중단원 3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편성된 부분으로 주제사 중심의 서술로 이뤄져 있다. 4차 『국사』에서 단편적·파편적으로 다뤘던 부분들을 한 곳에 모아 더 많은 주제를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등 기술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대단원	III. 민족의 독립운동	
중단원	1. 독립의식의 성장과 3·1운동	
연구 과제	1. 일제의 식민통치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과 세계정세의 변화와 결부하여 어떻게 바뀌었는가? 2.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의 추진을 위해 어떠한 방략을 세웠는가? 3. 3·1운동은 국외로 어떻게 확산되어 갔는가? 4. 3·1운동의 민족사적 의의와 세계사에 미친 영향을 무엇인가?	
소단원 / 소항목	(1) 민족의 수난	국권의 피탈 간도와 독도 조선총독부 헌병 경찰 통치 식민지 지배체제의 변화 민족말살통치
	(2) 항일 독립 운동의 추진	항일 결사의 조직 독립운동 기지의 건설
	(3) 3·1운동	3·1운동의 태동 3·1독립선언 3·1운동의 확산 3·1운동의 의의



독도와 간도에 대한 서술은 전체적인 서술 경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확인된다. 1982년과 1986년 일본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파동을 겪으면서도 독도에 대한 서술은 사회적 요구에 역행한 것으로 보인다. 4차 『국사』는 ‘간도와 독도’라는 소항목을 설정하고 「(사진)백두산정계비」, 「(지도)간도 개척과 한민족의 이주」와 「(사진)독도 - 우리나라 최동단에 위치한 섬으로, 동서 두 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는 학습보조자료를 활용하고 두 쪽에 걸쳐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반면, 5차 『국사』는 같은 제목의 소항목을 설정했으면서도 1/3쪽 정도의 분량으로 아무런 학습보조자료도 없이 짧게 서술하였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한편, 일제는 러·일 전쟁 중에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불법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는 단 한 줄로 그치고 있다.

대단원	III. 민족의 독립운동	
중단원	2.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전쟁	
연구 과제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 및 발전과정은 어떠하였는가? 2.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민족사적 의의는 무엇인가? 3. 3·1운동 이후, 국내외의 독립운동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4. 한국광복군의 성격과 활동 내용은 어떠하였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임시정부의 헌정 광복운동의 전개
	(2) 국내의 독립 전쟁	무장 항일 투쟁 애국지사들의 활동 6·10만세운동 광주학생 항일운동
	(3) 국외의 독립 전쟁	독립전쟁의 방향 봉오동·청산리 전투 독립전쟁의 시련 한국광복군의 결성 대일 선전포고와 한국광복군의 활약

대단원	III. 민족의 독립운동	
중단원	3. 경제·사회적 저항운동	
연구 과제	1.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어떠하였는가? 2. 농민, 노동자의 항일민족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3. 민족 산업을 육성하려는 경제적 자립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4. 1920년대의 사회운동은 어디에 역점을 두었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민족 경제의 침탈	토지의 약탈 산업을 침탈 식량의 수탈 병참기지화 정책

	(2) 경제적 저항운동의 전개	소작쟁의 노동쟁의 민족기업의 성장 물산장려운동
	(3) 사회운동의 전개	신간회와 근우회 청소년 운동 문맹퇴치운동

대단원	III. 민족의 독립운동	
중단원	4. 민족 문화 수호 운동	
연구 과제	1. 일제 식민지 문화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어떠하였는가? 2. 일제가 저지른 한국사 왜곡의 실상은 어떠하였는가? 3. 일제하의 국학 연구는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4. 일제하의 민족교육활동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국학 운동의 전개	식민지 문화 정책 한글 진흥 운동 한국사의 연구
	(2) 교육과 종교활동	민족 교육 종교 활동
	(3) 문학과 예술 활동	문학 활동 예술 활동

이처럼 5차 『국사』의 근대사 분야 서술은 4차 『국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지만 판형이 달라지면서 같은 지면에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또 중단원 앞의 연구과제를 통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술을 이어나갔다. 근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흥선대원군은 국내외의 활동을 양분하여 각각 긍·부정의 평가를 내렸고 근대 사회를 열망했던 갑신정변을 비중있게 다루었다. 동학운동은 그 주체인 농민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백정의 활약을 거론하면서 기층 단위를 역사의 수면 위로 한단계 상승시켰다. 이에 덧붙여 갑오개혁과 의병전쟁 역시 각각 그 역사적 위상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반면 간도와 독도의 경우 지면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용이 소략되는 모습도 보였다.

## 2) 현대사 서술 내용과 특징

현대사에 해당하는 IV장은 3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모두 13개로 근대사의 34개 연구과제에 비해 27.7%정도 수준이지만 근현대 전체 단원에서 현대사가 차지하는 분량이 17.8%임을 감안하면 적은 수의 연구과제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4차 『국사』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었던 중단원 1은 ‘민주정치의 발전’으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의 성립’은 ‘대한민국의 수립’으로 바뀌었다. 경제성장과 사회변화 그리고 현대문화의 동향까지 현대사 분야를 폭넓게 다루면서 이전 교과서와는 질적·양적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이 현대

사라 할 수 있다. 개별 중단원의 연구과제와 소단원 및 소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중단원	1. 민주 정치의 발전	
연구 과제	1. 남북 분단과 민족 분열의 역사적 배경과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기존) 2.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기존) 3. 6·25전쟁은 왜 일어났으며, 국제 전쟁으로서 어떠한 의의를 지니는가? 4.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은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가?	
소단원 / 소항목	(1) 대한민국의 수립	건국 준비 활동 민족의 광복 국토의 분단 신탁통치 문제 대한민국정부의 수립
	(2) 북한의 공산화와 6·25전쟁	북한정권의 수립 공산집단의 남한 교란 6·25전쟁과 공산군의 격퇴 휴전과 전후 복구
	(3) 민주주의의 발전	제1공화국 4·19의거 제2공화국 5·16군사혁명 제3공화국 10월 유신과 제4공화국 제5공화국 제6공화국의 출범
	(4) 통일을 위한 노력	적극 외교의 추진 북한의 변천 통일정책의 추진

앞서 언급한대로 현대사 부분은 양적으로 늘어나긴 했지만 새롭게 쓰여진 부분 이외의 부분은 4차 『국사』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용어가 수정된 것이 몇 개 보이는데 ‘제주도 폭동 사건’<sup>46)</sup>을 ‘제주도 4·3사건’으로 바꾸었다.<sup>47)</sup> 그런데 그 해설을 보면, “제주도 4·3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10 총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 일으킨 무장 폭동이었다”라며 공산주의자에 의한 무장 폭동이라는 관점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국사 교과서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소단원이 처음으로 설정되었다. 4차 『국사』에서는 ‘북한의 공산화’라는 소항목이 있었지만 소단원명으로 북한을 끌어올린 것은 처음이다. 기존 소항목은 ‘북한 정권의 수립’으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북한 인식을 객관화하려는 시도”<sup>48)</sup>

46) 『국사』(1982), 161쪽.

47) 『국사』(1990), 177~178쪽.

48) 김정인, 「국정 『국사』 교과서와 검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와현실』 92, 2014, 99쪽.

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내용 서술은 기존 교과서와 대동소이하여 「편찬준거안」과 교육과정의 서술 지침이 반영되었다기 어렵다.

한편, 현대사 분야의 연구과제로 제시한 것 중에 특징적인 것은 6·25전쟁에 대한 것이다. 6·25전쟁의 발발 배경과 함께 연구과제는 이 전쟁을 ‘국제전쟁’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6·25남침’이었던 것을 ‘6·25전쟁’으로 개칭하고 이 전쟁의 성격을 국제전쟁으로 확대하고자 한 것이다. 4차 『국사』의 경우 6·25전쟁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에 의해 시작된 국지전으로 규정하고자 6·25전쟁 이전 지속되던 남북 양측의 교전은 생략한 채,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 작전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로 나타났으나,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해결되었다”<sup>49)</sup>며 한국전쟁 이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오류를 보인다. 하지만 5차 『국사』는 “이러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교란 작전은 그 후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로 끝맺으면서 양측의 분쟁은 지속되었음을 시사하였다. 뒤이어 6·25전쟁을 서술하여 분단과 38도선을 두고 벌이던 양측의 갈등이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흐름으로 서술하는 차이점을 보인다.<sup>50)</sup>

명칭 변화와 관련해 또 흥미로운 사실은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5월 혁명’이라고 미화한 4차 『국사』와 달리 ‘5월 군사혁명’이라고 개칭하면서 그 내용 역시 2쪽에 달하던 방대한 분량을 1/3분량으로 축소하고, 군정실시, 반공국시, 경제재건과 정치안정 강조, 구 정치인의 정치활동 금지 등 사실 나열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직선제에 의해 성립한 민주 정부와 앞선 권위주의적 군사정권과 차별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서술의 경향은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서술에서 잘 드러난다.

4차 『국사』는 5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의 것으로 광주민주항쟁을 거쳤음에도 그 이후 출범한 5공화국 성립은 다루고 있으면서 광주민주항쟁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부록에서도 포함시키지 않았다.<sup>51)</sup> 반면, 5차 『국사』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다”고 기술하고 또 부록의 연표에도 포함시키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

49) 『국사』(1982), 162쪽.

50) 『국사』(1990), 178쪽.

51) 이 시기와 관련한 4차 『국사』의 본문에서는 “그 이후 한때 혼란 상태가 나타났고”라는 문구가 보이는 데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고 또 광주민주화운동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운동을 ‘혼란 상태’로 규정함으로써 운동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4차 『국사』(1982), 173쪽)

중단원	2. 경제 성장과 사회 변화	
연구 과제	1. 6·25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어떠하였는가? 2. 1960년대 이후의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정책은 어떠한 성과를 이룩하였는가? 3. 경제성장과 더불어 추진된 의식개혁 운동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4.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어떠한 사회문제가 야기되었는가? <sup>52)</sup>	
소단원 / 소항목	(1) 경제활동의 진전	미 군정기의 경제 정부 수립과 경제 건설 경제개발5개년 계획의 추진
	(2) 사회개혁 운동의 전개	의식 개혁 운동 언론 활동 노동 운동

경제성장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경제성장’을 통해 강조한 4차 『국사』와도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박정희 정권 하 추진된 경제개발5개년 계획과 이를 통한 고도 경제 성장을 강조하여 국력이 신장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긍정적 평가 일색인 4차 『국사』와 달리 5차 『국사』는 “이와 같이 경제 개발 계획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며 기존 경제성장의 서술에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국민 간의 소득 격차, 정부 주도형 경제 체제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고 객관적 서술을 함으로써 앞선 교과서와 차별점을 두고자 하였다.

중단원	3. 현대 문화의 동향	
연구 과제	1. 광복 이후, 우리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였는가? 2. 학술연구활동은 시기별로 어떠한 특색을 지녔는가? 3. 광복 이후, 종교는 민족의 요구에 어떻게 부응하였는가? 4. 문화계의 서구문화 수용에 대한 반성과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였는가? <sup>53)</sup> 5. 21세기를 앞둔 우리의 민족사적 과제는 무엇인가?	
소단원 / 소항목	(1) 교육과 학술 활동	교육활동 학술활동
	(2) 종교 생활과 문예 활동	종교생활 문예활동
	(3) 체육의 발전과 올림픽의 개최	체육의 진흥 올림픽의 개최
	(4) 오늘의 역사적 사명	(없음)

중단원 3의 현대문화의 동향은 처음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주제사에 따른 분류체계를 현대사에도 반영한 것으로 교육·학술활동에 많은 부분 할당하고 있다. 특히 홍익인간을 교

52) 산업화, 도시화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산업화, 도시화가 사회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는가에 주목하게 하는 질문.

53) 서구문화 수용을 반성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이와 반대로 우리의 민족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떠했는지 살피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질 것을 유도하는 질문.

육의 근본이념으로 규정한 민족정신을 “인류 공영이란 민주주의 기본 정신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보았다. 광복 후 6·25전쟁 그리고 군부에 의해 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한 점을 꼬집고 교육의 중앙집권화와 관료적 통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는 등 교육에 대한 권위주의적 정치권력의 영향을 비판하였다.<sup>54)</sup>

마지막으로 소단원 (3)의 ‘체육의 발전과 올림픽의 개최’는 5차 교육개정을 전후하여 치러진 1986년 제10회 아시안게임과 1988년 제24회 88서울올림픽이 포함되어 있다. IV장 현대 단원의 사진 자료 역시 ‘제24회 서울 올림픽 입장식’인데 서울올림픽 입장식이 열렸던 ‘올림픽 주경기장’ 사진을 본문에 또다시 게재하면서 국제 스포츠경기를 개최했다는 점을 홍보하듯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5차 『국사』의 현대사 분야 서술은 4차 『국사』보다 양적 질적으로 중요시 되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북한을 소항목으로 설정해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과 제주도4·3사건, 6·25전쟁 및 5월 군사혁명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 몇몇 용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국사』(1982)를 답습하다시피 한 복제판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는 6공화국의 잉태가 권위주의 군부독재 정권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사 서술의 내용 전개나 표현이 당대 정권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즉 현대사 영역은 역사 연구의 과정을 거쳐 일반화된 역사가 아니라 단순 사실 나열과 이를 통한 정권 홍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또 현대사라는 당대 정치 권력의 영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제5차 교육과정기에도 반복된 것이라 할 수 있다.

#### 4. 맺음말

5차 『국사』는 국정 발행제 기간에 간행된 3번째 교과서이긴 하지만 교육과정 개정의 배경이 단순히 정권의 교체나 유신 등 정치적 영향에만 있지 않았다. 이는 5차 『국사』가 다른 교과서와 적지 않은 차별점을 갖는 강력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5차 『국사』의 근·현대사 분야의 서술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1982년 일본의 역사교과서 파동 이후 역사에 대한 높아진 대중적 관심 속에 제기된 《조선일보》의 특집기사는 「편찬준거안」이라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언론과 여론에 의해 추동된 것으로 『국사』 교과서의 내용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편찬준거안」의 근·현대사 부분은 ‘개화’, ‘개혁’, ‘구국’, ‘경제·사회적 발전’, ‘북한의 역사’,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뤄졌고 이는 5차 교육과정과 교육과정 해설에도 반영되어 교과서 서술체제와 내용의 기반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둘째, 5차 『국사』의 서술 체제는 근대의 기점만 보더라도 본문의 내용과 부록의 연표가 서로 다르며 3차 『국사』와 4차 『국사』와도 다를 정도로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럼에도 조판 상 글자 크기의 축소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절대적인 양적 증대를 통해 기존 교과서에 없었던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 3~4명에 불과하던 집필진을 9명으로

54) 『국사』(1990), 196~197쪽.

확대시킨 것도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기 시작한 ‘역사적 탐구력’ 신장을 위해 학습보조자료의 다양한 활용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셋째, 5차 『국사』의 근대사 분야 서술은 4차 『국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지만 판형이 달라지면서 같은 지면에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 또 중단원 앞의 연구과제를 통해 학습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는 서술을 이어나갔다. 근대를 맞이하기 직전에 등장하는 흥선대원군은 국내외의 활동을 양분하여 각각 긍·부정의 평가를 내렸고 근대사회를 열망했던 갑신정변을 비중있게 다뤘다. 동학운동은 그 주체인 농민이 드러나도록 하였고 백정의 활약을 거론하면서 지배층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기층 단위를 포함시키는 서술로 변화하였다. 이에 덧붙여 갑오개혁과 의병전쟁 역시 각각 그 역사적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반면 간도와 독도의 경우 지면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용이 소략되는 모습도 보였다.

넷째, 5차 『국사』의 현대사 분야 서술은 4차 『국사』보다 양적·질적으로 중요시 되었음이 확인된다. 특히 북한을 소항목으로 설정해 객관적으로 다루고자 한 것과 제주도4·3사건, 6·25전쟁 및 5월 군사혁명을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등 몇몇 용어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외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4차 『국사』를 답습하다시피 한 복제판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이는 6공화국의 잉태가 권위주의 군부독재 정권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따라 현대사 서술의 내용 전개나 표현이 당대 정권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대신 ‘군사혁명’과 경제개발 부분에서는 군사독재와 차별화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즉 현대사 영역은 역사 연구의 과정을 거쳐 일반화된 역사가 아니라 단순 사실 나열과 이를 통한 정권 홍보에 그치고 있는 한계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근·현대사 서술의 차별점은 근대사의 경우 기층 단위 즉 농민과 민중의 시각에 보다 무게 중심을 두어 서술하고 있는 점이 두드러졌지만 현대사의 경우 1982년판 『국사』의 서술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 쓴 부분이 적지 않을 정도로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에 정통성을 둔 당시 정부를 미화하거나 합리화하거나 차별화하고자 한 한계는 명확하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역사교과서가 역사가와 교사 그리고 학생들에 의해 자유로운 날개를 달게 될 날을 기약해 본다.

## ※ 참고문헌

- 교육부, 『국사』(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 문교부, 『국사』(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82.
- 문교부, 『국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79.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442호 1981.12.31. 별책4, 2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4차\_1981]고등학교.pdf'로 제공).
- 문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교부고시 제88-7호, 1988.03.31., 4쪽(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에서 '[5차\_1988]고등학교.pdf'로 제공 기준).
- 김홍수, 『韓國歷史教育史』,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2.
- 기경량, 「사이비 역사학과 역사 과시즘」, 『역사비평』 114, 2016.
- 김성자, 「한국 현대사 교육과정의 변천 -고등학교 『한국사(국사)』 과목을 중심으로-」, 『역사교육』 155, 2020.
- 김정인, 「국정 『국사』 교과서와 김정 『한국사』 교과서의 현대사 체계와 내용 분석」, 『역사와현실』 92, 2014.
- 서인원, 「고등학교 국정 국사 교과서의 비교 분석」, 『역사와실학』 26, 2004.
- 송치중,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단위 도입부의 형태와 특징」, 『역사와실학』 63, 2017.
- 신선혜,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의 고대사 서술」, 『대구사학』 136, 2019.
- 신유아, 「한국 역사교육과정기의 변천과 근현대사의 비중」, 『전북사학』 55, 2019.
- 윤종영, 「『국사』 교과서의 편찬방향」, 『역사교육』 48, 1990.
- \_\_\_\_\_, 「국사교과서 편찬준거안」, 『역사와실학』 10·11, 1999.
- 이부오, 「제1차~제7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에 나타난 고대 영토사 인식의 변화」, 『한국고대사탐구』 4, 2010.
- 임기환, 「3~7차 교육과정 국정 국사교과서의 고조선, 한군현 관련 서술의 변화」, 『사회과교육』 56(1), 2017.
- 장미애, 「민족의 국사 교과서, 그 안에 담긴 허상」, 『역사비평』 117, 2016.
- 조건, 「제2차 교육과정기 민족주체성 교육의 시행과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내용 분석」, 『역사와교육』 24, 2017.
- 조성운, 「제4차 교육과정기 국사교과서 근현대사 서술의 특징」, 『역사와교육』 30, 2020.
- 조인성, 「고대사 과동과 고조선 역사지도」, 『한국사연구』 172, 2016.
- 차미희, 「5차 교육과정기 중등 국사교육 내용의 개선과 한계」, 『교과교육학연구』 제12호 1호, 2008.
- 최완기,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의 내용구성과 특성」, 『역사교육』 48, 1990.
- 한철호, 「제3차 교육과정기 고등학교 국사 국정교과서의 한국 근현대사 서술」, 『역사와교육』 27, 2018.
- 허은철, 「제1차 교육과정의 성립과 역사과 교육과정」, 『역사와교육』 22, 2016.



<토론문>

## 최보영선생님의 “제5차 교육과정기 『국사』 교과서 근·현대사 체제·내용과 그 특징” 에 대한 토론문

김인덕(청암대학교)

동국대 역사교육연구소의 학술회의에 참가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격적인 교과서 관련 연구자가 아닌 제게 공부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한된 지식에 기초하여 발표문을 읽으면서 지식을 갖고 토론에 임하게 됨을 미리 밝혀 둡니다.

최보영선생님의 논문에 대해 토론이 아닌 학습에 기초해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되어 이 부분을 여쭙고자 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논문에서 다음의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에 의한 『국사』 교과서의 개정은 교과 내용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개정요구가 그 동인이었다는 점에서 앞선 개정과 차이점을 지닌다.(1쪽)”

“1963년 만들어진 「국사교육내용통일안」이 준거가 되어 편찬되었다. 이는 당시 문교부가 주관하여 구성된 중견학자들의 회의체에서 협의한 내용을 「편수자료」에 수록한 것으로 ‘준법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3쪽)”

“「편찬준거안」은 1987년 6월 5일 발표되었다.---<근·현대사 부분>만 제시---5)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강조한다. 6) 광복 이후사는 자유민주주의와 국력신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과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서술한다.(4쪽)”

“5차 『국사』의 근대사 분야 서술은 4차 『국사』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이어가지만 관형이 달라지면서 같은 지면에 더 많은 분량의 내용이 담기게 되었다.(22쪽) 5차 『국사』의 현대사 분야 서술은---『국사』(1982)를 답습하다시피 한 복제판 교과서라 할 수 있다.(25쪽)”

1. 한국역사학계의 제5차 교육과정의 개정이 갖는 의미에 대한 논의와 그 문제점, 그 이후 한국사학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을 청합니다. 여기에서 본격적인 현대사 논의 구도가 형성되었다고 하기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2. 「국사교육내용통일안」의 본질과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소개를 청합니다. 왜 한국사학계는 교과서문제에 집착하는지를 생각하는지 하는 생각에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문제의 식민지성은 혹시 생각할 수 있을지 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생각하니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3. 현대사 서술을 어떻게 할지는 정말 숙제이지요. 논의도 필요하고... 이 문제에 고견을 청합니다.(끝)

